금주법구
스스로 공부함을 상품(上品)이라면
시켜서 하는 이 중품이 되고
그래도 아니 하면 하품이리니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세.
-지원 법사-

현대불교

불상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309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생명나눔' 대학 동아리

지난해 서울 모 대학에서 생명나눔실천회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을 때의 일이다. 생명나눔 관계자가 무리지어 가는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그게 뭐하는 건데요" 생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한 학생은 "엄마에게 허락받아야 돼요"라면서 고개를 돌렸다.

지난달 생명나눔실천회에서 지난 7년간 벌였던 장기기증 캠페인의 등록자 현황이 집계됐었다. 이 통계를 보면 장기기증 서약자가 7년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기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에는 40대 주부들과 20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사례만 놓고 봐도 장기기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그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반면, 나머지는 아예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후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의 대학생들은 취업이다 뭐다 해서 자기 한 몸 추스리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무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대학생들마저 각박해져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지난달 말 동국대학교에서 장기기증 동아리가 창립됐다는 소식은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Life Share(생명나눔)'로 이름을 붙인 이 동아리는 10여명의 불자 학생들로 구성돼 학교로부터 정식 동아리로 인준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나눔회의 노력과 뜻있는 학생들의 발심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장기기증 동아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 동아리는 장기기증 서약은 물론 혈소판 헌혈, 자체 캠페인, 매월 정기봉사활동, 무의촌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동국대에 그치지 않고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서울산업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고루 참여하는 연합동아리 구성도 추진하고 있어 장기기증 동아리가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학생들의 장기기증 동아리 창립은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는 물론 대학과 대학인이 자기 아닌 '남'을 위한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아무나 쉽게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회 전체가 이들 대학생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열린 불교' 지평 넓힌다

조계사 - 생명문화학교 불교환경교육원 - 생태강좌
통도사 - 박물관대학 좋은벗들 - 통일대화마당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열린 강좌를 통해 '앎과 실천'의 매개역할을 함은 물론 문화포교의 지평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법단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이 강연을 하고, 시민들은 봄상 앞에서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주제도 환경, 정치 통일, 경제, 문화 등 폭넓게 걸쳐 있다. 강사 중에는 학자, 시민운동가, 작가 등 전문가는 물론 신부, 목사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도 끼어 있다. '열린 사찰'이 사회교육의 도량으로, 문화포교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열린 강연회'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조계사는 15일 '불교사상으로 본 환경문제'를 시작으로 '상생 순환적 삶의 논리' '우리나라 생협운동' '사찰 육아운동' 등 12가지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생명문화학교를 연다. 또 이날부터 오전 · 오후에 걸쳐 선학강좌 및 문화강좌를 연다. 〈육조단경〉으로 문을 여는 전문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자의 〈도덕경〉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는 문화강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며, 한 주제당 14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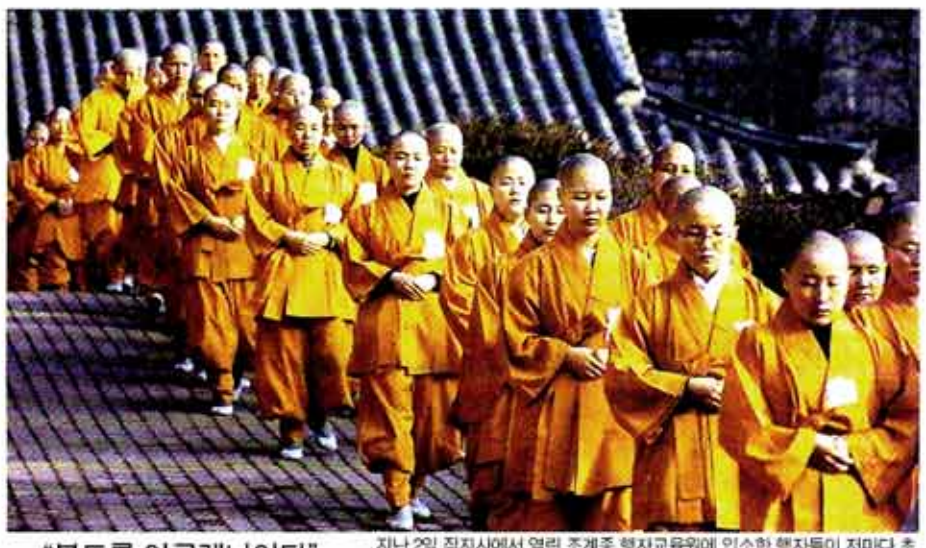
통도사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에 1년 과정의 박물관대학을 연다. 2년 과정의 연구과정도 개설. 불교공예, 불교건축, 불교미술, 불교조각 등을 집중 강의한다.

실상사에 자리잡고 있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사회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화엄광장을 두 달에 한 번 개최한다. '화엄광장'의 주제에는 삶과 수행, 지역공동체, 대안문화, 환경과 생명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망라된다.

매년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통해 불교생태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불교환경교육원은 5월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8개 도시에서 신도들을 주대상으로 한 생태강좌 및 환경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좋은벗들의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은 2002년 11월 22일까지 총 12기 143회의 연속강좌를 매주 정토회관에서 진행중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미륭사도 개신교, 가톨릭, 유교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정기강좌를 열고 있어 불자 및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지난 2일 직지사에서 열린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소한 행자들이 저마다 초발심을 되새기며 불도를 이룰 것을 발원했다. 행자교육은 3주간 기초교리, 예불의례, 일보일배 등의 교육을 받고 사미 ·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김천=고영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동백꽃에 묻힌 남도산사

백련사 · 대둔사 · 미황사



◎대둔사의 서산대사 부도.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현대불교가 연중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지역불교 문화기행'이 첫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3월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에 묻혀 있는 남도의 산사를 찾아갑니다.

8명의 국사를 배출한 현태종 결사도량인 백련사에서는 만덕산과 강진만 바다가 빚어내는 환상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대둔사에서는 조선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현판이 돋보이는 대웅전과 통일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등을 만나실 수 있고,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남도의 봄냄새가 가득한 미황사도 새봄을 맞는 봄자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출발: 3월 24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생명평화연대 촉구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범불교연대 등 20여개 종교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일 새만금 간척사업 유보를 건의한 해양수산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새만금 간척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의 주무부서인 해양부가 해양생태계 보고인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유보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해양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에 따르면, 해양부는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될 경우 갯벌이 사라지고, 회귀 조류의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될 것"이라면서 "갯벌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바미얀 대불 파괴명령 종단협, 즉각 철회 성명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바미얀대불 파괴 명령과 관련, 종단협의회는 2월 28일 성명을 내고 문화유적 파괴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종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유산 파괴 정책은 종교를 떠나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탈레반 정부는 바미얀 대불을 비롯한 불교와 힌두 문화유적 파괴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바미얀대불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괴 명령의 철회를 위해 중국불교협회와 일본불교 대표기구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종단협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청와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보냈다.

민주당 연등회(회장 김기재)와 한나라당 봄자회(회장 합종한)도 성명서를 내고 탈레반 정부의 고대 문화유적 파괴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10면) 정성운 기자

종단협 "연합감찰위 구성"

올 예산 8억여원 확정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을 8억2727만원으로 확정하고 초파일 봉축 테마열차 운행, 남북불교통일토론회, 연합감찰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의원 59명 가운데 47명(위임 10명 포함)이 참석해 하림각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종단협은 △정기회비 인상 △회비 및 사업분담금 미납 종단에 대해 자진 탈퇴 종용 △연합감찰위원회 구성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 등의 임원 변경 등을 결의하고, 대각종의 가입을 추인했다. (봉축열차 2면, 회비 미납 기사 3면)

종단협은 또 정관을 개정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 허가 사항이었던 임원 변경 해산 조항을 보고 및 신고 사항으로 바꾸었다. 임원 취임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회비를 인상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종단협은 년 5280만원의 세입이 늘어난다. 회장 종단(조계종)은 월 350만원으로 현행대로이며, 부회장 종단(태고 천태 진각)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임이사 종단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이사 종단(가입 종단)은 30만원 또는 40만원에서 4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20~50% 인상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장 - 군 - 죽 - 비

◇서울 지하철 5호선 4 5월 두 달 동안 봉축 열차 운행. '이 열차의 도착지는 극락입니다.' (2면)

◇왜 대안학교인가? 아이들을 로보트처럼 길들이는 교육과 살벌한 경쟁만 남은 교실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8면)

◇사형제 폐지 운동 종교계가 나선다. 한국 사법부의 사전에는 없는 말, 용서! (9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코란의 이름'으로 불상 파괴, 어찌할 것인가? 종교라는 이름의 이 폐역무도를. (10면)

一心佛院
각종 불상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since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지혜와 자비로 열려있는 문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五大主要事業 불교대백과사전편찬 · 교육 · 학술 · 출간 · 교화 진흥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서울 · 종로 · 동숭192-10 ☎765-9602~3

●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教大辭林 회원'으로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지와 목적
佛教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慧明과 傳燈의 修行 傳統을 정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教의 金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 선전경독「景德傳燈錄」
- 한국불교원경독
「白雲和尙語錄」「眞覺國師語錄」
- 범어불교서연찬
「俱舍論」
● 불교어학연수과정
- 불교원문경독
「韓國佛教全書」「眞覺國師語錄」
- 범어연습 1 · 2
학계에서연습「고전학계토어」
● 개론학습과정
- 불교근본설의 이해

○ 삼학원생 원서교부중
입학상담은 수시 접수 가능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대백과사전 불사동참을 바랍니다!!
● 현재 1 · 2 · 3권 출간, 4권 근간 제15권 내지 속간 예정
● 전권당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 입금하시면 됩니다.(1000부 한정 예약)

● 학술 및 출판 · 교화사업부



■ 가산학회편「伽山學報」창간호~계속호 · 각권 근간

■「한국고승법명서」총간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신라편 /고려편1/고려편2/고려편3 /고려편4/조선편
·「한국고승법문총집」(조선조 · 근현대)

■ 이력관 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
·「伽倻山海印寺誌」·「信行日露」·「要經序說」·「四集私記」·「曹溪宗史」

■ 세미나 및 학술자료집
·「韓國佛教文化思想史」(상 · 하)
·「세계속 3강5륜의 고유체계와 수행체계」
· 99년 2월의 인물 예프스닌 조명
「세계정신을 리드한 위대한 한국인 예프」
·「지관대종사」자료집

사 설

조계종 환경위에 바란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 이룰 수 있는 최고 형태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이 사찰이다. '명산'이라는 말에는 으레 '대찰'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실제로 산수가 빼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사찰이 있다. 그곳에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연에 대한 교감의 길을 열 수 있게 되고, 자연에는 신성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사찰은, 인간의 패악이 쉽게 자연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의 대형 불사를 보게 되면, 사찰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는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거기에 더하여 무분별한 물고기 방생 같은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환경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니 반가움과 기대가 자못 크다.

앞으로 '환경위'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불교가 환경보호에 어떤 형태로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환경으로서의 사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가의 문제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나머지 부분의 노력도 무의미해지고 만다.

수행 공간으로서의 사찰이 보호 받아야 하는 까닭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피난처로서의 공간을 지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위의 활동은 단순히 수행 환경을 지키고 불사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는 정도를 넘어, '세상'이라는 가장 큰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환경위가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건 '친환경적 불사 지침 마련'에 주목한다. 그동안 사찰은 환경지킴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환경파괴의 주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사찰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내실 있는 활동으로, 불교야말로 가장 자연친화적인 종교임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군장병위한 군승단 되자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제는 낡은 표현이 되어버렸을 정도다. 물론 이 말에는 군장병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아만의 그림자가 묻어나지만, 여전히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가 군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군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한다. 군대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꽉 짜여진 일과, 철저한 상명하복이 때로는 자신을 조여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현실에 젊은이들은 혼돈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잖이 힘든 시기이다. 정신적인 위로와 다독임이 그래서 필요하다. 불교는 군장병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 여기에 우리가 군에 관심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 단지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불자화로 대치하려는 발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은 군 포교에 관심을 두고 군승단을 조직, 30여년을 이어오며 포교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군승단을 해체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웃 종교의 적극적인 활동에 위축돼 있던 판인데, 군승단까지 해체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군승단의 선배법사들과 조계종 포교원이 군승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군승단이 '해체'라는 극단에 이른 원인을 우리는 군승단과 포교원의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종단의 지원과 관리를 간섭과 통제로, 일부 군법사의 그릇된 행위를 전체의 모양으로 매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 한번 돌리면 지옥이 극락이 된다고 했지 않았는가. 군불교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도 마찬가지이다. 포교원과 군승단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군장병들이 있는지 되돌아볼 일 당부한다. 군승단과 포교원 모두 군장병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봉축열차' 운행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4~5월 두달…주제별 탑 · 연꽃 장엄

지하철 객차가 선방으로 변신한다. 객차 내부가 온통 연꽃밭이 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열차가 달린다.

종단협의회는 2월 27일 열린 총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이사장 성운스님, 삼천사 주지)가 기획, 제안한 봉축테마열차는 종단협의회가 주관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주최한다.

이날 종단협의회 총회에서 성운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시민들과 함께 봉축하고, 지하철을 포교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축열차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5호선(방화~김포공항~광화문~마천동) 1편성 8칸 열차 중 4칸의 열차에 설치된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매일 4~6회 운행한다. 4칸의 열차는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 '현실의 버팀목-불교' 연꽃 세상'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따라 꾸며진다. 8칸 전체는 띠모양의 단청문양과 석가탑 반가사유상 등의 불교문화재로 장엄한다.

'연꽃 세상'의 경우, 의자시트를 비롯한 전동차 내부 전체를 연꽃 문양으로 처리하고 천정에는 여러 재질의 연꽃 조화를 부착한다. 승객들이 연꽃밭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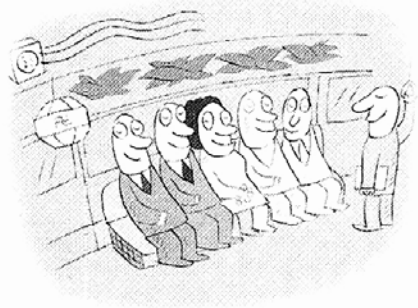
기획자인 이기선씨(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는 "4개의 주제는 혼돈과 자기성찰을 거쳐 연화장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며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품 설치에는 홍현숙 양주혜 김인경 안성금 정명스님 등 설치미술가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20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1억원의 예산은 각 종단과 기업체의 협찬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대만평

박 구 원



봉축열차 마음이 맑아진다

"포교사에 긍지"84%

포교사단 110명 설문 포교사의 84%가 '포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창립 1년을 맞는 조계종 포교사단의 포교활동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2월 4일부터 3주간에 걸쳐 500명의 회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110명은 포교의 내실화를 위해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실무(54.5%), 수행(21.8%) 등이 부족함을 절감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사단이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포교프로그램 및 자료개발(30.9%), 포교사의 조직및 팀활동(19.1%), 포교사교육 및 연수(9.1%), 대외홍보 미흡(7.3%)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포교사들은 포교사단비 사용의 용도에 있어서도 포교프로그램 및 자료연구개발, 포교사단 조직운영, 교육비 지출 등을 꼽아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교사단의 출범 1년과 관련해 포교사들은 출범이후 포교사간 교류와 협력(35.5%) 포교사 위상강화(25.5%) 포교현장에 있어서의 높아진 인지도(15.5%) 부분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화해 · 평화 위한 발걸음 '온겨레 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스님)는 1일 3 · 1절을 맞아 '2001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손잡기 운동' 행사를 열고 3.1 정신으로 7천만 겨레의 하나됨을 기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입 5억이상 사찰에 특별분담금"

조계종 재정분과위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자승) 2월 26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0차 회의를 열고 특별분담사찰을 확대하도록 총무원에 요청하고 다음 회의에 확대 지정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날 재정분과위는 특별분담사찰 확대 대상 사찰을 3년 동안의 예결산을 분석하여 년5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했다. 재정분과위 21차 회의는 19일 열린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6일 공석중인 기획실장에 전 송광사 주지 현고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3월 5일부터 출근한다.

구산스님을 은사로 71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현고스님은 같은 해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보살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원효사 원각사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올예산 2926억원 통과

동국학원, 가상대 개원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2월 26일 제176회 이사회를 열고 2001학년도 법인 및 각급기관 예산안 2926억여원 규모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예산심의 외에도 서울 캠퍼스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전임강사에 전승일 씨를 새로 임용하고 재임용 20명, 승진임용 57명, 복직 1명과 경주 캠퍼스 선학과 호진 스님을 비롯한 의원면직 6명 등에 대한 인사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경주병원과 관련 기본재산 매입과 가상대학 2002년 설립계획 승인안 등을 통과시켰다. 오종욱 기자

교역 종무원 사설사암 등록 촉구

조계종 종립교 관리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월 28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32차 회의를 열고 종립학교 소속 교역직 종무원의 종헌 · 종법 위반(종단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조사결과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호법부 조사결과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 가운데 5명의 스님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종단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등국학원 재가이사의 종교현황을 보고하도록 동국학원측에 다시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영배(현 동국학원 이사) 정인(중앙승가대 교수)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종회에 복수추천키로 했다. 또 20일 이전에 동국학원의 이사 감사스님들과 종립학교관리위가 함께 동국학원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국방부 선도책자 재발간

불교상담사례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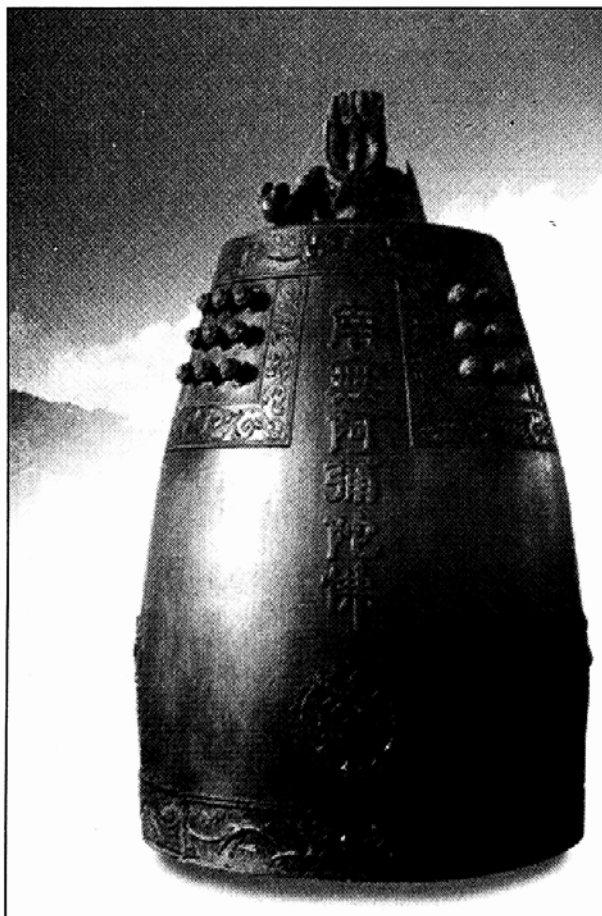
종교편향 내용으로 문제가 됐던 〈선도상담백과〉가 재발간됐다.

국방부 정선진 선임법사는 "2월 23일 〈선도상담백과〉가 재발간 됐고, 이미 예하부대에 배포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재발간된 〈선도상담백과〉는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12가지 항목을 수정했고, 기타 기독교적인 용어를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또 특정종교의 용어가 들어갈 경우 해당 종교를 명시했고, 불교상담사례를 대폭 확충하는 등 종교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윤승환 주임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군법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까지 발견, 수정했다"며 "책자 재발간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목어

3·1절과 화합의 날



한반도 5천년 역사상 3·1절만큼 한겨레가 한 마음, 한 소원으로 함께 행동한 적이 없다. 3·1정신은 한민족이 하나된 자주독립의 자존심이다.

82년전 3월 1일 우리 겨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도시와 농촌, 종교와 사상 등 모든 갈등과 벽을 허물고 오직 하나의 염원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해마다 맞는 82번째의 3·1절이지만 우리네 현실은 남북분단과 지역감정 등으로 선조들의 얼을 받들어 화합과 평화의 독립 정신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3·1절에도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온겨레 손잡기 운동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겨레에게 새 희망을'이란 주제를 걸고 합동행사를 진행하였다. 7개 교단은 이 날을 '화해 평화의 날'로 선언하고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한겨레의 통일과 화합을 이루어 화해와 평화의 한 민족이 되자는 희망찬 염원을 함께 하였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선조들이 왜 온몸이 찢어지는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독립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어떤 정신으로 극복했는가를 꼭 상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우리의 국적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한 투지와 결연의 정신 공덕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우리는 3·1절을 맞아 그저 단순히 매년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서 지나치고 있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현실에서 주어진 남북 평화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과 종교간의 갈등이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피부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이 두 가지 갈등만이라도 시급히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한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통일과 민족 화합의 길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법 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군불교위 설치" 물밑 움직임

군승단 해체 파문 이후

군포교 주체-인사권 등 군법사-포교원 입장차

"갈등 끝내고 서로 합심"

군승단의 한시적 해체로 군포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과 군승단이 이번 사태로 군포교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포교를 전담할 종단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군불교위원회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승단·포교원 움직임

정선진 선임법사와 이희용 법사는 2월 22일 군승총회에서 결정된 군승단 한시적 해체에 대해 포교원을 방문해 경과보고를 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경과보고가 미진하다며 2월 28일까지 경위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2월 28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포교원을 방문한 정선진 법사는 포교부장 상운스님과 환담자리에서 군승단의 앞날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양측은 군포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불협화음과 갈등보다는 서로 합심하여 군포교에 매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주 중 각 군 선임법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포교원은 새 포교원장이 취임하면 포교원이 군승총회를 소집해 군승단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군승단도 현재 포교원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군불교위원회의 쟁점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포교원과 군승단은 그동안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군승단은 위원장을 군승출신에 승랍 20년 이상 스님으로 군승총회에서 추천해 임명할 것과 의사결정권을 군불교위원회 뿐만 아니라 군승총회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교의 주체는 군승이고 군승출신의 위원장이라면 군포교 현실을 잘 알기에 적절한 군포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사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군과 전혀 관련 없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군승단은 원로스님, 예비역 및 현역 법사, 포교원 포교국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군불교 위원 가운데 현역 군승을 과반수 이상인 12명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포교원은 위원장은 군포교 원력과 경험있는 승랍 20년 이상 스님으로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임명하고, 군승총회는 위원장 및 현역군승으로 구성된 군승회의로 전환해 군불교의 전반적인 사업 및 군승 상호간의 상조를 위한 사업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또 원활한 군포교 종책 수립을 위해 군불교위원으로 현역 군법사를 6명 정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군승단·포교원의 문제점

포교원과 군승단은 그동안 군포교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논의했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견합의를 보지 못해 이미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다수 군법사들은 군불교위원회 설치는 종단의 일방적인 종책이라 생각한다. 특히 군불교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미 결혼한 법사들이 비구 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급, 보직이동 등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당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포교의 활성화라는 밝은미래를 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포교원도 군승단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법회와 설법〉지에 실린 기사처럼 군승단을 문제의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타종단에 군승을 개방하지 않고 조계종 승려에게만 열어두고 있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포교의 올바른 청사진

군에 파견된 군종장교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조계종 종책을 대내외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군승단을 군불교위원회로 전환해 대내외적인 군포교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불교위원회는 군불교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군승 고유 활동 강화와 군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 및 종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군포교 업무를 총괄하는 종단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불교위원회 설치로 인해 군승 및 군포교 사업에 대한 통솔과 협조체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군포교의 밝음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불교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군승단 해체 파문이 조기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군불교위원회 설치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회비 안내면 제재

종단협 미납회비 1억 넘어

종단협의회가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밀어낸다는 방침이다. 회비와 행사비 분담금 미납 액수가 1억원을 넘어섰고,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회원들의 회비는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재정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6개 종단의 협의기구인 종단협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27일 열린 정기총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기회비 체납액이 8640만원에 이른다. 회원 종단의 절반이 넘는 15개 종단이 60만원에서 1050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상종은 3년, 원효종은 2년치 회비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8.15남북동시법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비를 내지 않은 종단도 12개 종단, 액수로는 2090만원이다. 상임이사 종단도 포함되어 있어 분담금 납부에 대한 둔감함을 보여준다.

회비와 행사분담금 미납액을 합치면 1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세출액 6억1665만원의 17.4%에 이르는 액수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정기회비와 각종 사업비 분담금 미납 종단이 많아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축소 또는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원종단의 책임있는 참여가 요구됨"이라는 감사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정기회비 및 사업분담금 미납 종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안건에 올랐고, 활발한 의견이 나왔다. "99년에도 탕감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동사섭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성의의 문제이다. 종단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할텐데, 또 탕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반면, "미납 액수가 많아 부담스러운 종단도 있을 것이다. 절반 정도로 탕감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결론은, 5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자진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다. 96년에도 회비를 내지 않아 정도종과 천화불교 등 2개 종단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2월 27일 열린 종단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인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법인법 제정 추진

종단등록 의무화 등 삼보정재 유실 최소화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2월 27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법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인법(안)을 마련,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총무원은 20일부터 열리는 종회에 법인법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무원은 법인법 제정 이유를 "종헌 9조의 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종단과 법인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헌 9조 3항에는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고만 규정돼 있을 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없다. 따라서 법인법을 마련해 사찰에서의 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종단등록 및 변동사항 등의 보고를 의무화해 심보정재의 유실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찰에서 공공성을 지닌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자칫 사찰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인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종헌·종법 제·개정특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 위원은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한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의 "사찰의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총무원이 마련한 법인법(안)에 따르면, 사찰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립 후 반드시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 조계종'을 삽입해야 하며, 정관상의 목적에도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수는 조계종 승려를 다수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임원과 재산 현황, 정관 개정, 이사 변동 시 총무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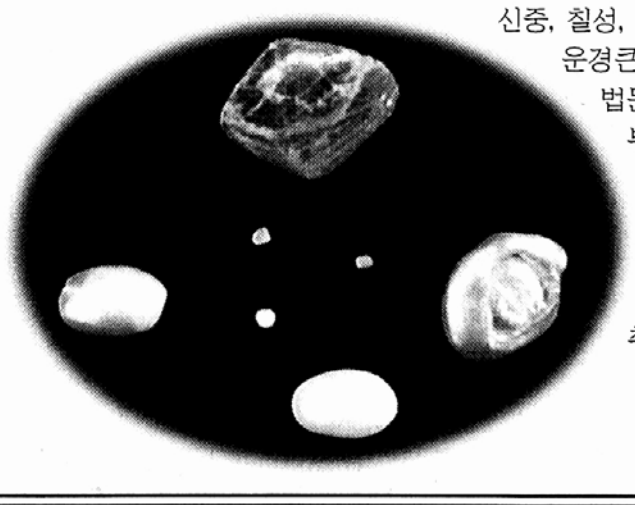
그러나 법인의 인사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법인은 1년 이내에 종단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성운 기자

봉축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큰스님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부처님나라 신라시대의 세분 성인이신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께서 수행정진하신 덕화가 곳곳에 어려있는 삼성산 상봉에 자리한 상불암에서는 늘 자님 가정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랜 세월 풍진에 닳아지고 깨어진 당우를 보수하고 탱화를 새로 조성하는 기도를 봉행하던 중 부처님께서 내리시는 한줄기 빛을 두 손에 받아 안는 현몽을 하고 불탑의 나라 미얀마 종교성에서 보내온 부처님 진신사리 다섯과를 모셔오는 기연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바른 불교, 정법불교를 지향하는 저희 상불암에서는 불자님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고 우리 나라가 불국정토가 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중, 칠성, 산신, 독성 탱화점안과 동시에 운경큰스님, 법현스님, 도선스님의 법문도 듣는 49일 기도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미얀마 고승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행 사 내 용

◎ 산신, 칠성, 신중, 독성 탱화 점안 법회 :
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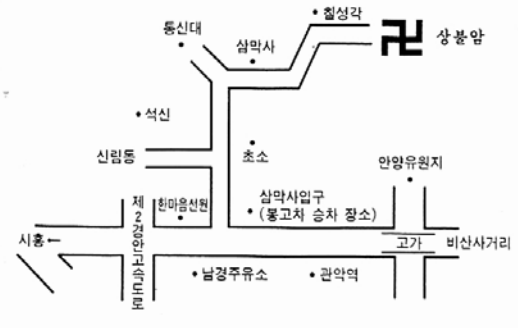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3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1시

◎ 사리친견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 :
3월 14일부터 5월 1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매일 오전 10시

◎ 3화상 초청 법회 :
3월 14일 (운경큰스님)
3월 25일 (법현스님)
4월 11일 (도선스님)

◎ 동참 문의 : 031-473-5042 (종무소)

찾아오시는 길 ➔



불기 2545년 2월 일

108배 소원성취 기도도량 삼성산 상불암 주지 무위

일주문



보현불교대 입학식 법문

법장 수덕사 주지(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는 6일 보현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초청법사로 법문했다.



경주교도소 컴퓨터 구입비

종상 불국사 부주지는 2월 22일 수형자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주교도소에 컴퓨터 구입비 1천만원을 기탁했다.



대원불교대학장 취임

혜거 금강선원장은 대원불교대학 학장으로 추대돼 4일 입학식에서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출가재일 수계 법회

성열 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은 2일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포교원 2층 대웅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 연수회서 법문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은 3~4일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열리는 제6회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에서 법문했다.



이동성 법사 수술비 전달

지홍 조계사 주지는 2월 26일 최근 간이식수술을 받은 이동성 법사에게 수술비 850만원을 전달했다



'번뇌란 무엇인가' 강연

권기종 동국대 교수는 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리는 불교강좌에서 '번뇌란 무엇인가' 주제로 강연한다.



'불교란 무엇인가' 사상강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26~28일 '불교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제135회 사상강좌를 열었다.



충주 석불 친견 법회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장은 11일 충주 미륵사지 석조부처님과 양성 모점리 석불좌상을 찾아 친견법회를 갖는다.



파필리오배 아줌마 축구대회

김흥국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18일 여의도 축구4구장에서 제1회 파필리오배 아줌마 축구대회를 연다.

"의료혜택 나눌 수 있어 보람"

위안부 출신 이옥선할머니 무료수술 이수찬 길병원 원장



"소외된 삶을 살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현대불교신문과 퇴행성관절염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펼쳤던 동인천길병원 이수찬 원장(41)이 2월 28일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출신 이옥선(74) 할머니에게 무릎의 인공관절을 끼워주는 수술을 무료로 시술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무릎관절이 다 닳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군요. 한 많은 삶을 사신 할머니에게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3·1절 82주년을 맞아 한층 의의가 각별한 이번 무료수술은 나눔의 집에서 본지에 이옥선 할머니의 수술 여부를 문의해오고, 이 할머니의 딱한 소식을 전해들은 이수찬 원장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무료수술이 이뤄지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중국 연길에서 귀국한 할머니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술비가 2천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 원장은 "이 할머니야말로 수술이 꼭 필요한 분이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결국 수술이 이뤄지게 됐다.

이 원장은 "이번 수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옥선 할머니가 퇴원하는 이달 20일경 이 할머니와 함께 나눔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무릎을 진찰하고 치료에 필요한 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시하기 위해서다.

관절염 분야의 명의(名醫)로 알려진 이수찬 원장은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의사다운 의사'이기에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고아원 등 세워 배운 지식 회향"

65세 동국대학원 불교사회복지과 입학 이완기 법사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세워 불은에 보답하겠습니다."

2월 23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65세 만학으로 졸업하고 바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완기(실크로드귀금속 대표) 법사.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젊은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하루 6시간씩 공부했다는 이 법사가 졸업하는 날 경희대 졸업식장은 졸업동기 가족들과 후배들의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1992년 우연한 기회에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한 것이 계기가 돼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이완기 법사는 매일 학교갈 때마다 태고사 삼천불전 부처님께 참배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불교포교에 나서겠다'고 발원해 왔다.

"불교사회복지학를 공부하여 고향인 경기도 양평의 땅 3만평에 고아원과 노인양로원 등 불교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처님 전에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이 법사는 "죽는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보시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완기법사는 1957년 생활고에 못 이겨 경희대 중외과를 자퇴하고 1958년부터 1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다가 자퇴 43년 만인 98년 경희대에 복학, 이번에 졸업한 것이다. 보석도매상을 운영하며 1996년 동방불교대학, 1998년 금강불교대학도 졸업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대불어 신임회장 정여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2월 28일 부산 불교회관 7층 여여선원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여스님(사진)과 운성스님을 신임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대불어 총재 정관스님을 비롯 이사들과 전국어린이회 15개 지회에서 지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여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인 만큼 전임 회장들의 뜻을 받들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발전기금 조성 불교병원 등 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신임 회장 법해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5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7대 회장으로 취임한 법해(봉선사 前 재무부장) 스님은 2년 간의 임기 동안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의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스님과 재가불자로 구성됐고, 회원 스님들의 소속 종단 역시 범종단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교 화합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이번에 취임하는 7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지금보다 더 활발히 신행과 포교에 투신하겠다"고 말했다.

94년도에 창립된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현재 1천 500여 회원이 활동할 만큼 큰 단체로 성장했다.

스님은 또 "동창회의 목적은 동국대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도 있다"며 "이를 위해 총동창회 발전 기금을 조성해 일산불교병원의 건립 불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허천택 △대학원장 조희영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 이황우 △행정대학원장 이상현 △경영대학원장 황용호 △교육대학원장 김헌규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김규석 △문화예술대학원장 조승환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 △법과대학장 연기영 △경영대학장 김태홍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오정수 △공과대학장 김병식 △정보산업대학장 엄기현 △예술대학장 김흥우 △야간강좌 교학처장 김상종 △정각원장 법산 스님 △기획인사처장 정용길 △대외협력처장 한보광 △연구처장 최순열 △정보관리실장 이종옥 △중앙도서관장 조용길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 최창선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재문 △불교문화대학장 이 만 △정각원장 도업 스님 △교무처장 이계영



김해사암련 회장 덕일스님 취임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일)는 2월 28일 김해 목화예식장에서 회장 이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초대회장을 역임한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진영포교당 한파스님을 비롯한 2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흥덕사 주지 덕일 스님이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덕스님 시봉일기' 출판기념 법회

광덕스님(1999년 3월 10일 입적)을 시봉하던 이야기를 상좌 송암스님(도피안사 주지)이 엮은 '광덕스님 시봉일기, 징검다리'의 출판 기념법회가 1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스님의 날 기념법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석남사 주지 정무스님, 대각사주지 흥교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이 참석해 광덕스님을 추모했다.



강남구청 신청사 개원기념 법회

강남불교사원연합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은 2월24일 강남구청 신청사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강남구청 신청사 이전 봉축 및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혜, 능인선원장 지광스님, 진각종 행원심인당 주교 혜일종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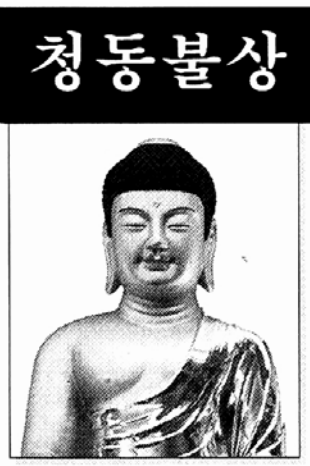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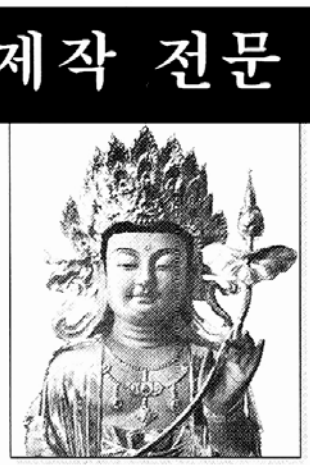
김해 덕천사 대웅전 기공식

김해 덕천사(주지 원천)는 1일 대웅전 기공식을 갖고 철웅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철웅 성전암 회주스님, 이병천 김해지역경제교통국장, 조해룡 경찰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원천스님은 "부처님법을 열심히 배워 정신계의 발전을 일구어 가야 한다"고 불자들의 기도 정진을 당부했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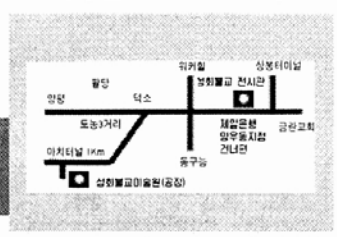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광명 승가대학 학인 모집

승가대학을 열며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이루어 21세기 한국 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본 광명 승가대학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한국 승가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아래 학점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지속적인 공교육기관으로의 진학가능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저명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모집학과 불교학과 00명 ■ 자 격 고졸 학력 이상의 승려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신상명세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호적등본 1부
5) 승려증 · 주민등록 사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건강진단서 1부
8) 증명사진(3×4, 오조착용) 1매
■ 접수 마감일 불기 2545(2001)년 3월 14일(음 2. 20) 수요일 ■ 전형 방법 서류 접수 후 면접
■ 전형 일시 불기 2545(2001)년 3월 15일(음 2. 21) 목요일
■ 준 비 물 대가사(사미 · 사미니는 만의) · 장삼 · 발우 ·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 문 의 처 광명승가대학 사무처 ☎ 02)991-5909, 0502-999-1616
보 광 사 종 무 소 ☎ 02)993-3808, 990-1725

불기 2545년 3월 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3-9번지

보광사 광명승가대학장

"자선공연 자주 열어야죠"

대한불자가수회 제7대 회장 장미화씨

"회장이라는 직책이 부담도 되지만 봉사를 통한 불음 전파와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전법의 최선봉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강남웨딩문화원에서 취임법회를 통해 대한불자가수회 제 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가수 장미화씨는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엄정화등 신세대 영입

싫건 좋건, 요즘 같이 대중매체가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스타에게 쏠린다. 그런 만큼 연예인의 종교는 대단한 파급력을 지닌다. 그래서 장 회장은 젊은층에 인기 있는 김민종, 엄정화 같은 젊은 가수들을 영입해 조직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젊은 후배 불자가수들 가운데는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부모가 불교를 믿으니 나도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젊은 후배들을 영입해 신행활동과 더불어 자선행사를 펼쳐 이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지난 1990년 부처님의 정법 수호와 불음을 통한 포교, 불교의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불자가수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립됐다. 그 동안 대한불자가수회는 창립 이후 12년간에 걸쳐 전국을 무대로 약 600회 이상의 불교단체와 사찰의 각종 행사와 법회에서 단체나 개인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음성포교의 선봉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실천해왔다. 또 경희의료원, 한국불과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불자회 등과 교류를 통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불음 포교

장 회장은 올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불자가수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자선공연과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많이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사를 원만회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이나 신행단체와의 연계와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장 회장은 11일 동불라이온스와 공동으로 서울 신림동 관악구민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가진다.

"자선공연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불자가수회 회원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계신문이나 불교방송등 고계 매스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장 회장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지만 독실한 불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88년 교통사고가 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비구니 스님과 한 소녀가 법구경 책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절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불교의 생활화를 주장하는 장 회장은 1979년부터 일산 홀트아동복지관에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봉사활동 및 자선공연을 통한 후원을 하고 있고, 낙도어린이돕기 운동에도 10년째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에비역 해병대 불자들이 2월 28일 해불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병 전우들 불자회 만든다

내달 15일 창립법회…초대회장 김흥국씨

예비역 해병대 불자회인 '해불회(海佛會)'가 창립된다.

예비역 해병대 전우 12명은 2월 28일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장실에서 해불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해불회는 해병대를 전역한 불자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현역 해병장병들의 포교활동에 전력한다는 취지로 창립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포 무애원 설봉스님, 해병 2사단 한창희 법사를 비롯해, 가수 김흥국, 청백엔비텍 대표이사 조세형, 방배 해병대전우회 회장 안규근씨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해불회 정관을 마련하고, 김흥국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 창설기념일인 4월 15일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해불회는 창립 전까지 스님, 연예인,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해병대 출신 불자들을 파악해 동참을 권유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불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불자들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해 조직을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김흥국 초대회장은 "해병대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남에게 모범이 되어 역시 해병대 불자들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며 "해불회가 불교포교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있는 신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종단과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나우누리 서경지역장 선출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대표시삽 최용원)은 2월 25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2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2001년 서경지역장으로 오경미씨<사진>를 선임했다.

오씨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며 부처님 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불심회 사찰순례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2월 23일 관내 삼천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다.

KBS불교㈜ 천수경 법문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현)는 2월 24일 본관 3층 제 1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30여명은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스님으로부터 '천수경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부산 운불련 수계법회

운불련 부산지역회(회장 조홍인)는 2월 22일 양산 통도사에서 경내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8일에는 동명불원에서 지도법사 장산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금강회 법타스님 초청

한국조폐공사 경산 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월28일 법타스님 초청 특별법회 및 금강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금강회 현판제작은 김정현 김난영씨가 제작했다. 김난영씨는 계명대 예술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했고 공모전 3회 입상 경력이 있다.

시민운동 단일기구 탄생

시민협-개혁연대, 연대회의로 통합

2백11개단체 참여…정치등 개혁주력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양대 산맥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와 개혁연대준비위(가칭)가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됐다. 시민협과 개혁연대 대표들은 2월 27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출범식을 갖고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공명선거운동과 총선시민연대의 운동을 각각 계승해온 시민협과 개혁연대가 통합 네트워크를 결성, 시민운동의 전국 최대 단일 연대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시민운동이 더욱 힘을 발휘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생명나눔실천회 등 211개 단체가 참여한 단일 네트워크로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참여하는 각 시민단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열린 네트워크 정신을 담아, 시민사회의 개혁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다소 '느슨한' 연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월 27일 출범식을 갖고 정치개혁, 예산 감시 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연대회의 박원순 상임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연대회의는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제도 및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에 집중하는 동시에, 3대 개혁입법과 교육 · 언론개혁입법 등 시급한 국가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02)723-9995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의치시술=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한다. 의치시술은 응암동 소재 남치과 남한우(61)원장이 시술한다.(02)385-1351

▲강남포교원 시민선방=강남포교원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층 수선당에서 시민선방을 연다.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02)539-2631

강좌

▲법화경=원효학당은 6일부터 3개월간 법화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동국대 권탄준 교수이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02)3411-6167

▲불교교리=동산반야회는 7일부터 3개월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김재일 법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의 정의, 반야심경, 불교의범,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

▲합창단 지휘자=안양 망해암은 찬불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지휘자를 모집한다. (031)443-5559

▲노후생활교육참가자=부산 노인의 전화는 은퇴예정자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051)862-0529

▲의약품 후원자=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약품을 지원할 후원자를 모집한다.(051)866-0454

화촉

▲본사 부산주재 천미희 기자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용답동 대명웨딩 3층 그랜드홀에서 최도교 씨의 장남 재석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011-873-511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天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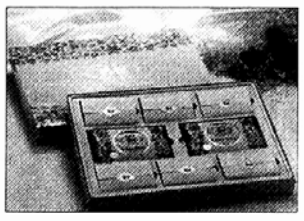
■용네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46-4422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리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찬불동요로 새싹불자 키운다"

신행현장

부처님께 음악공양 '풍경소리'

한 그루 나무가 되기 위해 누군가 한 톨의 씨앗을 심었다. 그들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사랑의 물로 가꾸고 가꾸었다. 이제는 그 씨앗이 푸른 나무로 자랐다.

27일 서울 마포 도화동 4층의 풍경소리 녹음실에서는 밝고 빠른 신세대풍의 찬불가요 '봉축의 노래'가 응장하면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컴퓨터 연주장비를 앞에 두고 이종만 실장, 이진구 작곡가, 정유탁 연주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처님 오신날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는 봉축음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회원들이 손수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는 녹음실과 기본적인 음악기자재를 갖춘 스튜디오이지만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화음은 극락의 소리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종만(43)실장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음악이 좋아서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해온 법우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큰 원동력이다"며 "교계가 찬불동요 및 가요 창작에 힘을 쏟는다면 불교음악의 길은 밝다"고 힘주어 말했다.

리틀앤젤스 어린이합창단과 삼보사 합창단 지휘자인 이진구(34) 작곡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풍경소리에서 음악을 할 생각"이라며 "지속적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획부장 정유탁(28)씨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감로 법문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면서 찬불동요를 만든다"며 "관심있는 청년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4년 찬불 동요 · 가요 창작과 보급에 원력을 세우고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시작한 '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찬불동요 테이프 11집과

'아름다운' 젊은 불자들 찬불동요 만들기 7년

100곡 창작-100곡 편곡

봉축기념 찬불가요 테이프 3집과 CD한 장, 찬불동요 악보집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풍경소리가 발표한 찬불동요와 찬불가요는 '오늘은 좋은 날' 등 총 200여곡으로 이중 100여곡은 순수 창작곡이고, 100여곡은 기존 찬불동요 및 가요를 편곡한 것이다.

현대음악에 있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척박한 교계 환경에서 이종만실장 이진구, 권양숙, 김희영, 정유탁 씨등 10여명의 작곡 및 작사가, 연주자, 가수들은 '한 그루 한 그루 모이면 숲이 된다'는 마음으로 7년간 찬불동요 만들기에 매진해왔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실장(가운데)과 이진구 정유탁 작곡가가 녹음실에서 신세대풍의 봉축 찬불가요 제작을 함께 하고 있다.

매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녹음실을 옮기면서도 꼬박 꼬박 여름과 겨울 어린이불교학교에 맞춰 2개의 찬불동요음반을 만들어온 풍경소리 회원들은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한'으로 표현하며 어려운 일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버텨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난해 찬불동요 10집을 발매한 풍경소리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내 회원들과 눈물을 머금고 해체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던 차에 청도 운문사에서 급하게 팩스가 들어왔다. '풍경소리가 해체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두면 안된다. 강원에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계좌에 입금했으니 받아달라.' 운문사 대중스님들이 500만원을 풍경소리 후원기금으로 기탁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풍경소리는 '또 한번의 시작'을 하기로 하고 좋은 찬불동요를 만들기로 새롭게 발심했다.

지난 2월 10일 풍경소리는 제 2도약을 위해 지현스님(청량사주지)과 덕신스님(원심회 회장)을 총재와 대표로 추대하고 포교원에 단체등록도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발표한 베스트 동요 모음집과 청 ·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찬불가요 창작집 불교의식 CD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출 및 짜임새를 갖춘 산사음악회 등을 기획하여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방침도 세워두었다.

제작참여 및 후원문의 02) 717-698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강물은 강둑을 따라 흐른다

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겨 놓으면 나무가 크는 대로 글자도 커진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걸림없는 행이 아닌 한, 마음의 심층에 남겨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치 나무에 흠집을 내 놓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흔적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심한 충격이나 깊은 슬픔의 경우는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저 흘러가 버린 일로 여긴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고 혹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리다고 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일어난 것은 반드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은 어느 때든 다시 나타나게 되어있다.

속담에 '고깃덩이를 먹어 본 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까 자꾸 먹고 싶어 안달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습기의 무서움을 빗댄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불면증 환자가 늘 수면제를 복용해 오다가 어느 날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 '하마터면 수면제를 안 먹고 잘 뻔했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습관이란 그렇듯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습기를 두려워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그것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사슬이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끊기 어려운 사슬이다." "습기는 내부의 전제 권력자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노끈을 꼬며 산다."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면, 마음에 각인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것이 닦음이요 수행이다. 또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더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습기를 없애는 수행이 어렵다면 대신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경전 말씀엔 나쁜 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의식주 돈 권력 명예 따위를 탐하지 않는 것, 정법을 비방하지 않는 것, 바른 길을 가는 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을 따르기 십상이다. 강물은 강둑을 만들고 그 강둑을 따라 물이 흐른다. 龍眼

주계가 있는 법문

"방에 들어온 독사 내쫓듯 중생의 껍질 벗어야죠"



묘각스님
장성 묘현사 주지

지난해 사월 초파일 때인가 봅니다. 법당에서 법문하면서 "여러 신도님들, 방안에 독사가 들어왔는데 내쫓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자신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하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중생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탐진치 3독의 그물에 갇혀 일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생을 끝마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진대, 우리는 방안에 들어온 독사를 무서워 내쫓듯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해답을 인류의 스승이요 사생의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승경전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범부는 중병든 환자 부처님은 천하명의

제16'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범부들은 중병이 든 환자요 부처님은 의사요 법화경은 처방전이라, 이를 가져서 읽고 외우고 풀어서 밝히고 베껴쓰면 그 마음과 몸이 정화되어 잃어버렸던 광명을 되찾아 자기 부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전기불을 켜면 방안이 환해져서 무엇이 어디에 놓여있고, 어느 것이 검고 흰 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 부처님의 광명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말씀 중에 다섯 가지로 마음을 다잡는 방법(五停心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탐중생부정관(多貪衆生不淨觀)이니, 애욕이 많아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요사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윤리 · 도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눈 · 귀 · 코 · 혀 · 몸 · 뜻(六根)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애욕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몸의 9가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시체가 된 몸을 상상할 때 애욕은 뜨거운 물에서 얼음 녹듯 사라집니다.

둘째는 다진중생자비관(多瞋衆生慈悲觀)이니, 성질을 불쑥 잘 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과 몸이 어디로 가는 지를 잘 살펴서 마치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배고픈 사람이 빵을 보듯,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머지않아 자비심이 생기니, 이런 자비심 앞에 무슨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셋째는 다산중생수식관(多散衆生數息觀)이니,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숨을 고르게 쉬라는 뜻입니다. 숨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몸도 또한 건강해 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식관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우치중생인연관(愚痴衆生因緣觀)입니다. 어리석어 일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악인악과(惡因惡果)가 되지 않고 선인선과가 되도록 닦아나갈 때 행복이 옵니다.

다섯째는 다장중생염불관(多障衆生念佛觀)이니,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염불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바세계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상(凡聖同居土)이라, 성인들은 중생들의 잘못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잘못을 잡아주듯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정도(正道)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천지 사이에 부처님 안계신 곳이 없기에 정성으로 염불하면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모든 경전이 광명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3월 7일 (수)

■조계종 환경위원회 출범식=조계종 총무원은 오전 10시 불교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환경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한다.(02)735-5864

■육사 졸업 법회=육군사관학교 화랑 호국사는 오후 7시 제 57기 졸업발원 법회를 개최한다.(02)972-7747

3월 8일 (목)

■성주사 니르바나 정진대법회=창원 성주사는 오전 10시 영주사 조실 정관스님을 모시고 니르바나 정진대법회를 봉행한다.(055)262-0108

■대한불자가수회 회장 취임법회=대한불자가수회는 오후 6시 강남웨딩문화원에서 제 7대 장미화 회장 취임법회를 개최한다.(02)713-2905

■도선사 단기출가 수련회=도선사는 4월 8일까지 한달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 2회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02)993-3161~3

3월 9일 (금)

■봉선사 부처님 열반재일 및 보름법회=봉선사는 부처님 열반재일 및 보름법회를 봉행한다.(031)527-5974

■조계사 천도재=조계사는 오후 2시 대웅전에서 선망부모 극락왕생 발원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02)737-6895

3월 11일 (일)

■한국석불선양회 석불친견 순례법회=한국석불선양회는 충북 충주시 소재 보물 제98호 미륵사지 부처님과 충북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양성 모점리 석불좌상을 친견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7시 2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 016-267-7945 이귀인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1주년 기념법회=조계종 포교사단은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7-7588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 사찰순례=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는 오전 10시 창원 정병산 우곡사로 사찰순례 및 산행법회를 떠난다.(016)881-5262 서성열

3월 12일 (월)

■관음사 자광스님 초청법회=관음사는 영남불교대학 개강을 맞아 오전 11시 문경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2)474-8228

■건교부 불자회 정기법회=건설교통부 불자회는 오후 6시 30분 서울 천마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031)910-0220 송도근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박태원 교수의 27

불교로 보는 인생

산골소녀 영자의 선택

거친 바람 헤치며 내딛는 힘을 키우렴

산골 소녀 영자. 강원도 오지 산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연의 건강을 누리며 천진하게 웃던 그녀. 사랑하는 딸을 탁한 문명 속으로 내보내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영자의 심신은 강원도 산골의 맑은 기운으로 싱싱하게 빛났었다. 생기 잃은 지식과 검잡을 수 없이 부풀려진 욕망에 지친 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희소성은 곧 높은 상품 가치임을 꿰뚫고 있는 자본주의 첨병들의 후각은 역시 민감하였다. 기업과 언론은 이 부녀의 삶을 신속하게 요리하기 시작하였다. 돈 되고 시청률 높이는 일인데 앞 뒤 가릴 것 있나. 부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예상이나 배려를 할 여유가 어디 있나.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카메라로 담아 내고 광고에 띄워야지. 과연 그 후각은 정확하였고 타이밍은 절묘하였다. 저잣거리의 인간 악취가 도처에서 코를 찌를 때인지라, 산골 부녀 소박한 삶의 그 향수(鄕愁)같은 그림은 훌륭한 상품이었다.

산골 소녀 영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인류가 자랑하는 문화와 문명은 욕망 증폭의 과정이요 장치이기도 하다. 오직 인간만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욕망을 키워간다. 몸의 욕구, 정신의 욕망이 문명과 문화의 이름으로 무한히 번져간다. 아직 문명에 열리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과 활발발한 생기가 얼마나 가련가. 문화에 길들고 문명에 부추겨진 아이의 눈빛은 곧 예고와 욕망으로 복잡해지고 생기가 바래져간다.

문화를 생명의 오염원으로, 문명을 삶의 덫으로 보게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고는, 퇴색해 가는 인생에 툴툴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란 말인가, 이것이 인생 아니던가?' 라고. 현실 순응의 태도이다. 드문 일이지만 문명 체제에서 발을 빼는 경우도 있다. 문화의 길들임과 문명의 부추김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을 차폐하여 오염을 막아보려는 몸부림이다. 현실에서 몸을 빼고 물러나는 퇴행(退行)의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문명 기피 노력이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비록 성공한다고 해도 그 견실함이 문제가 된다. 무균실에서 키워 면역 안된 몸의 건강이 언제나 아슬아슬하듯이, 문명에 노출되어 보지 않은 산골 소녀의 순박한 건강은 환경만 바뀌면 단번에 스러져 버린다. 적당히 오염되어 면역력을 갖춘 사람보다 더 크게 더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문명에 몸을 싣자니 오염이 싫고, 기피하자니 그 무면역의 불안이 마음에 걸린다. 현실 순응은 오염이 생명의 희망을 제한하고, 현실 기피의 퇴행은 면역 결핍이 생명의 건강을 위협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탈출구는 있다. 머무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말며,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문화를 안고 문명을 받으며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길이다. 겪으며 넘어서려는 노력이 성공할 때, 문화와 문명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거름이 되고 '생명 거듭 남' 의 토대가 된다.

해탈, 그 생명 해방의 여정도 이렇게 전진적이다. 맹목적 현실 적응이나 소심한 현실 기피로는 인생의 희망이 열리지 않는다. 생명의 빛 열반은 현실을 딛고 넘어서는 것. 세계 속에서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 내적(內的) 초월' 이다. 산골 소녀 영자야, 문명의 폭력에 주저앉지도 말고, 다시 산 속으로 도망가지도 말아라. 힘겹더라도 이제부터는 거친 바람 받으며 앞으로 내딛는 힘을 키우렴. '깊이를 더한 맑은 눈빛' 으로 다시 미소지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울산대 철학과 교수

달마-혜능 선맥이은 임제때 황금시대

◇전남 보성 대원사 극락전 벽에 그려져 있는 혜가 단비도. 혜가 스님이 자신의 팔을 잘라 달마에게 건네주며 사생결단의 구법 결심을 보여주는 그림.



참불자의 길 참선⑧-중국선의 역사

우리나라 선불교의 모태는 흔히 중국 선불교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막상 '중국 선불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현실이다. 중국 선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선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된 것은 A.D 67년으로 가섭마등과 축법란 등이 낙양 백마사에 머물면서부터다. 이후 선경(禪經)이 전래돼 안세고에 의해 소승계통의 〈안반수의경〉 〈선행법상경〉과 지루가참에 의해 대승계통인 〈반주삼매경〉 〈도행반야경〉, 구라마집에 의해 〈선법요해〉 〈좌선삼매경〉 등이 번역되었다. 이처럼 6세기 이전의 중국선은 경전에 의존했다.

우리가 중국선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선사가 보리 달마다.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인 달마는 선법을 닦기 위해 중국의 소림사에 들어가 9년 간 면벽 좌선을 하며 중국선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달마는 제자 혜가(慧可)를 만나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설하며 중국 선의 초조가 된다. 그의 법은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남종선의 6조 혜능과 북종선의 신수로 나뉘어져 눈부신 발전을 한다.

여기서 달마의 면벽 좌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대에 달마의 면벽 좌선에 대해 송대의 종감(宗鑑)은 〈석문정통〉을 통해 "벽관은 모든 번뇌와 거짓된 망상이 들어갈 수 없는 내면적인 마음의 긴장과 통일이라며 거기에는 순일무잡한 본래의 마음인 안심의 세계에 응주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일행삼매 실천불교 혜능 '무상반야' 로 귀결

달마의 대를 이은 혜가(448~593)는 〈능가경〉 4권을 전수 받아 실천 수행했는데, 〈능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한 선종의 일파를 능가종이라고 한다. 이 때가 중국 선이 체계를 잡고 실천한 시기다. 계속해서 이러한 선수행 체계는 〈신심명〉의 저자로 알려진 제 3조인 승찬(?~606)에 까지 계승된다. 그러나 제4조 도신과 제5조 홍인은 〈금강경〉을 중시하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시대를 열었다.

제4조 도신(580-651)은 황매현의 쌍봉산에 들어가 대승선을 실천하며 30년 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실천불교를 전개했다. 그 결과 문하에 5백명의 수행승들이 운집하는 수행교단을 형성했다.

그의 제자인 제5조 홍인(601~674)은 쌍봉산의 동산(東山)으로 옮겨 새로운 수행 도량을 열어 1천 여 명이 수행했는데 이를 동산종이라고 칭했다. 이때 불법의 요지를 알려면 수심(守心)이 제일이라는 내용의 선서 〈수심요론〉이 저술된다. 또 홍인의 문하에서는 북종선의 신수와 남종선의 혜능이 배출되면서 중국은 본격적인 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6조 혜능은 자각과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상(無相)의 반야사상을 일체화 한 유명한 선서 〈육조단경〉을 편찬하며 새로운 중국 선불교를 완성시켰다. 〈육조단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선수행을 하는 불자들에게 기본서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후 임제의현(?~866)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위산영우(771~854)와 앙산혜적(807~883)은 위앙종, 동산양개(807~869)와 조산본적(840~901)은 묵조선을 주장하는 조동종, 운문문언(862~947)은 일자관으로 지도하는 운문종, 법안문인(885~958)은 염불선을 주장하는 법안종 등을 각각 개창해 선의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특색 있게 발전했는데 이를 중국 선종의 5가(五家)라고 한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증시랑에 대한 답서(2)

생각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선방에서 오래 참선하는 납자들이 걸리기 쉬운 선 공부의 병(病)은, '날카로운 근기와 총명함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들은 배운 지식과 총명한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며 화두란 이런 것이다'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견주고 헤아려서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쉬는 곳에서 본래면목이 바로 드러남을 알지 못한다. 본래면목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며 처음부터 한 번도 어두워 본 적이 없는데도, 본래면목을 찾는다는 생각에 가로막혀서 바로 그 찾는 생각 속의 본래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수미산(須彌山)' '방하착(放下著)' 이야말로 조사가 전한 진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모든 시비분별을 부수어 버리고 이렇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이렇지 않다는 생각도 놓아버려서 활활 타고 있는 불덩이처럼 어떤 생각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곧 "공(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헤아리고 비교하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이니, 마치 "배는 뒤집어지지도 않는데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매우 불쌍한 일"이다. 이들은 "공(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수미산' 이며,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곳"에서 '방하착' 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생각에 의지하여 보면 시비분별도 생각이요 공(空)도 생각이며 '수미산' 도 생각이요 '방하착' 도 생각이지만, 본래면목에서 보면 시비분별도 본래면목이요 공도 본래면목이며 '수미산' 도 본래면목이요 '방하착' 도 본래면목이다.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앞에 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본래면목일 뿐 다른 일은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생각에 매여 있는 한,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도 쉴 수도 없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그 생각이 바로 본래면목의 드러남임을 알지 못하고 생각에 막혀서 본래면목을 찾고 있으니,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령스런 빛이 어둡지 않으니 영원히 쓸 수 있는 훌륭한 꾀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알음알이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구할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써 이를 수도 없고 침묵을 가지고 통할 수도 없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취사간택(取捨揀擇)은 모두 생각을 따라다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가 '중생은 이렇고 부처는 저렇다' '생각은 이렇고 본래면목은 저렇다' 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모두 본래면목의 일이고 본래면목을 벗어난 다른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본래면목일 뿐이다. 지금 찾고 있는 이것이 찾고자 하는 목적물이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을 일으킬 줄도 알고 생각을 놓을 줄도 안다. 생각을 일으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타나며 생각을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다. 마치 우주가 별들로 꽉 차 있기도 하고 허공이기도 하듯이, 생각이 있어도 본래면목 그대로이며, 생각이 없어도 본래면목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이러니 저러니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러니 저러니 라는 생각을 놓을 수만 있다면 본래면목이 달리 없다. 따라서 대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일시에 생각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다면, 문득 본래면목을 깨달을 것이니, 그 때에는 이 생각이 바로 진공의 묘한 지혜(眞空妙智)이고 달리 얻을 지혜는 없습니다.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어리석을 때에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하루에 3천배를 1,000일간 하여 300만배를 하고 하루 만배씩 100일간 하여 100만배를 하였으며 지금도 하루 최소 108배를 3회 이상 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청견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않풀리지는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꿈을 자주 꾸고 악몽에 시달려 잠못 이루십니까?
뜻을 세워 무언가를 꼭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꼭 이 책을 읽고 절을 해 보십시요 !!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은 반드시
여러분께 속시원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절 수련 특강
- 일자 / 3월 21, 28일 / 4월 18일, 25일 (수)
- 시간 / 15:30~17:30
- 동참비 / 40,000원(2회), 선착순 10명
- 장소 / 마야 문화원
- 접수문의 : (02)722-1050 · 722-0293

도서출판 붓다의 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象 갤러리 405호
· 전화 : (02)722-0292, 722-0293
· E-mail : bdland@chollian.net

■ 군부대, 교도소, 영가천도, 49재 등 법보시용으로 종종합니다. (법보시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청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정천우 박사 지음
신국판
값1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길흉 부부궁합〉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3. 나쁜 집(陽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응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응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양장본 이상옥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택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천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이렇게 들었다

동족은 공업중생

"서로 공경하며 서로 돕고…"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육방예경〉

지난 2월 28일 제3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이 2박3일간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하는 장면은 동족의 진한 정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면서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사는 상봉 가족들은 또 다시 '짧은 만남, 긴 이별' 이란 비극을 연출했다.

이를 지켜 본 불자들은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은 공업(共業)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정한 참회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통일 · 번영에 대한 원력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분단의 고통은 아니지만, 다른 종족과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날마다 아수라의 세계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민족들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18일 시작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주의 종족간 분쟁은 2월 27일 현재 사망자가 1천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비공식 집계가 나올 정도로 대량 살육전으로 치닫고 있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곳곳의 종족분쟁, 중동지역의 종교전쟁을 동반한 종족분쟁 등은 대량 학살과 함께 순환적인 피의 복수를 부르고 있다. 상대에 대한 용서와 자비 없이는 분쟁의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응부경전〉은 "성내는 자를 향해 성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승리를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냄에 대해 정념(正念)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자는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진정한 승리는 용서임을 설하고 있다.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자 세 차례나 쳐들어오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을 막았던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정벌에 나선 군대를 막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게 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신통력으로 유리왕과 그 군사를 다른 세계로 던져버릴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석가족의 전생 인연까지도 다른 세계로 던져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목련이여, 자리에 돌아가 앉아라. 석가족의 전생 인연이 무르익어 이제는 과보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증일아함경〉

석가족의 멸망을 인연법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부처님 재세시의 종족분쟁을 보여주는 한 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되 그 애착으로 말미암아 이웃 종족과 민족을 멸하는 비인간적인 살상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 시대가 진정 '문명시대' 라고 한다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안학교, 한가한 실험 아니다

불자 세상보기

'제 앞가림 할 힘'
'더불어 살 힘'
길러주는 것이 교육



윤구병
변산공동체학교 대표

대안교육은 말 그대로 현존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교육이다.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른 생명체들은 교육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조상들의 지난 삶의 기억은 유전정보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몸에서 몸으로 물려주고 물려받아 본능에 의지해서 되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집 짓는 능력도, 불을 지피고 옷감을 짜는 능력도 배우고 익혀야만 발휘할 수 있다. 걸음마도, 말도 마찬가지 듯이 교육은 인류의 생존과 존속에 필수적이다.

부모와 어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고, 인류가 지상에 나타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지속돼 왔다. 다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어왔을 따름이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 교육이론과 형식, 내용이 아무리 변천을 거듭해 왔다고는 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에는 반드시 지켜진 대원칙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미래사회의 구성원인 아이들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도 벌이나 개미처럼 여럿이 떼지어 살도록 운명지어진 생명체이므로 '더불어 살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이 대원칙에 따르는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렸고, 이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는 멸망하거나 해체되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필요한지 어떤지에 앞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 힘을 제대로 길러주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아닌가. 두 가지 측면을 보자. 첫째는 시간의 문제다. 어떤 생명체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삶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 하다못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싹트고, 꽃피고, 열매맺을 시간을 스스로 내면화하지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라. 부모들은 물론 교육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아이들이 걸음마와 옹아리를 제대로 익히기 전부터 아이들 시간 뺏기에 혈안이 돼있는 실정이다. 머지 않아 아이들의 정신적인 집단학살(?)로 드러날 이 극한에 이르는 집단학대를 교육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없이 버젓이 저지르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스무 해가 넘게 타인에 의해서 통제 당하면서 기계적인 시간계획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힘'을 기대하는 것은 삶은 밤에 싹돋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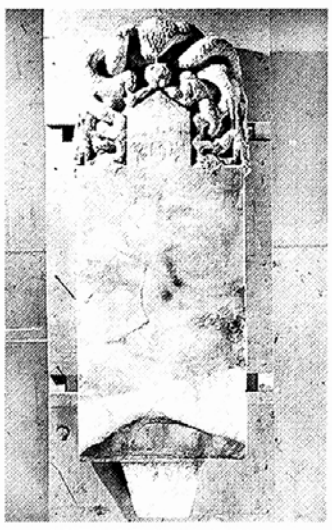
둘째는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더불어 살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 힘은 무한경쟁 체제에서는 절대로 길러질 수 없다.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한가한 실험도 아니고, 선택 가능한 또하나의 방편도 아니다. 미래의 민족 공동체, 인류 사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우리는 대안교육이라 부르고자 한다. 어른들에게 빼앗긴 시간과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친구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

문화재청 "경기도 박물관" 불교계 "사찰 박물관으로"

문화재청이 최근 보존처리를 마친 회암사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의 보관장소를 경기도 박물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월 2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보존처리 후에는 경기도박물관에 이전한다는 97년 결정을 재확인하고 경기도 박물관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관장소를 둘러싼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알려졌던 선각왕사비가 문화재청 자료에도 소유자가 회암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교계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보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교계에서는 성보문화재이기에 당연히 종단내 박물관 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

교계 입장 고려말 나옹화상의 일대기를 새겨넣은 선각왕사비가 복원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산불로 수백 개의 돌조각으로 변한 비가 복원된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문화재연구소의 피땀어린 정성이 빚어낸 성과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다. 비의 소유가 국가가 아닌 사찰임이 확인되자 사찰의 성보박물관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계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배경에는 그 동안 박물관으로 간 몇몇 사찰소유 문화재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찰박물관 가운데 이전전시나 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가장 잘 갖춘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문화재는 원래 위치에 있을 때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회암사에 보존시설이 없어 옮기기 힘들다면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사찰과 종단,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 회암사나 경기도내에 사찰박물관이 건립되어 보존시설이 갖춰지면 반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방식의 위탁관리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문화재청 입장 문화재는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는 보존처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워낙 많은 조각으로 갈라지다 보니 접합부위의 강도가 약해져 세워놓는 것도 무리다. 원래 자리인 야외에 세워놓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복원처리된 문화재는 보존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로 되어있는 회암사의 경우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사찰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보관할 만한 사찰박물관도 없다. 다른 지역 사찰박물관으로의 이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박물관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이 현재로선 과학적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보존을 위한 최선책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결정은 97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상황이고, 그 결정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 당시에는 보존장소에 대한 이견이 없다가 이제 와서 보관장소를 둘러싸고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고

"외모지상주의 모두를 불행하게 마음이 중요하다"



방귀희
방송작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 그 첫번째는 외모이다.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호감을 갖는다. 그리고 두번째 기준은 말이다. 말을 잘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세번째 기준은 글인데 글을 잘 쓰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끝으로 보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마음까지 파악해서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눈으로 척 봐서 남자는 잘 생겨야 하고 여자는 예뻐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런 시각 우선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고쳐서라도 근사한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형 수술을 택한다.

성형 수술의 피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피해는 수술에 성공했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성형 수술로 원하는 외모를 얻은 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긴다. 비밀이 생겼다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달라진 외모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 진짜 자신과 가짜 자기가 있는 듯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외모는 겉포장 일 뿐이다.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외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사람은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신 것이다.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범)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월 · 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 (토요반) 운영 ◎ 개강 : 3월 19일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신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리영자교수, 서윤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사업박사, 경일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봉산스님, 장각성스님, 구해스님, 최흥주법사, 최중찬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희회장, 임선정원장, 허은법사, 곽대일법사, 김일룡법사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 (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중단 추천 스님 (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타)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학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혜철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특허산업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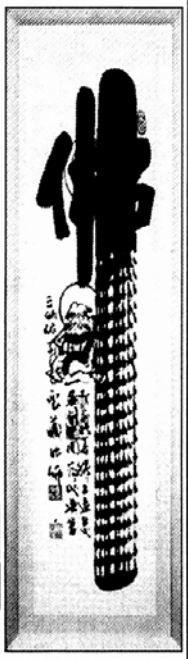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달마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사주비전


〈정가 : 35,000원〉
著者 達磨
◎본 책의 판매대금은 달마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됩니다.
- 목 차 -
1. 우주의 기운 2. 역의 시원
3. 시간과 운명 4. 사주 분석과 해석
5. 인연법 6. 작명 비법
부 록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고
오복은 이것을 잘분석 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 구입송금 계좌번호 (입금후 전화 주십시요)
중소기업은행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구입문의처 051-301-4949 011-301-4949
男女 철학원생모집
과 목 :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 과 정 :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 사주·감정 :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계좌번호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
귀달마사 대리스님 (051)301-4949 (011)301-4949
(0 2)999-5551 · 999-4804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농 협 307077-51-031273 운장사
덕화산 돌탑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

사·부·대·중

자기 신뢰와 불교



안옥선
전남대 강사 · 철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도 심오하여 우리 같은 중생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깨달음의 성취는 불가능하다. 자비도 마찬가지다. 동체자비(同體慈悲)는 공허한 이념일 뿐이다." 불자로부터 이러한 주장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 가슴 답답한 일일 것이다.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불교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불교의 독특한 매력은 다양하지만 그 으뜸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신뢰'에 있다.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는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 그것도 무한한 신뢰이다. 인간의 깨달음에의 가능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한한 신뢰, 이것으로부터 불교는 출발한다. 수행의 완성 역시 이러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견성성불(見性成佛),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심외무불(心外無佛), 이 모든 말들은 기만일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불교가 제시하는 목표 앞에서 나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교는 애초부터 무의미하다. 불교의 가르침이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직결되지 않으며,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더라도 중생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동체자비는 실천 불가능한 이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다. 동체자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매순간 나의 동료와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려는 태도의 끝없는 확대적용일 뿐이다. 그리고 그 완성점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내 몸에 대해서와 같은 돌봄이 실현된다.

누군가 불교를 가장 확실하게 배반하는 지름길을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없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목탁소리

말법시대의 마구니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불교에서는 부처님 재세시부터 5백년 혹은 1천년까지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정법(正法)시기라 하고, 이후 1천년을 수행하는 사람은 많으나 증과(證果)에 이르는 이는 드물다 하여 상법(像法)시기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말법(末法)시기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도를 구하는 이도 드물어 불법이 쇠퇴하며 교만과 시비가 넘치게 된다고 하니, 오늘날의 오탁악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듯 하다.

얼마 전 기자는 독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과연 '말법시대'임을 절감했다.

동두천시에 소재한 모 사찰에서 자칭 승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다는 한 보살은 이 사찰의 승려 3명이 보살 수십여명을 상대로 (심지어 법당에서) 강간하고 돈을 뜯거나 사기행각을 벌이다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에 사실을 폭로, 수사에 착수하자 달아났다고 전해왔다.

이들의 승적은 종단협에 가입되지 않은 모 군소종단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 관련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는 이 제보자는 불교언론이 이를 보도해 또다른 여성 신도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물론 이들 가짜 승려들이 유력 종단의 스님들은 아니지만, 이런 악랄한 비행을 저지르는 사이비 승려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신문과 방송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사이비 승려들의 비행. 해마다 수천여명의 납자들이 안거에 들어 정진하고 있는 청정 승가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종단협이 군소종단의 비행 승려들을 감찰하는 연합감찰위원회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참 수행자를 구별할 수 있는 보살들의 혜안을 갖추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옛 스님들이 말법시대의 수행법으로는 참회와 염불이 더 적합하다고 한 것처럼, 불자 모두가 참회와 포살로 더 이상의 마구니가 발붙일 수 없는 정토를 발원했으면 한다.

"사형제 폐지는 인간 존엄성 회복"

"나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자를 벌하기 위해, 국가가 살인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사형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범죄만큼이나 비인간적이다."(칠레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물론 헌재는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토도 달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다소 신축적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영자지와 회견에서 사형폐지 문제에 관한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폐지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 취임후 3차례 있은 사면에서 형집행을 기다리던 9명의 사형수를 무기로 감형했다"고 지적, 사형제도의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현정부가 사형제도에 대해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폐지론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사형제 폐지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등 4인)는 "사형제 폐지는 만물만생의 생명을 귀히 여겨 물살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일 발족된 부산지역본부의 창립법회 장면.

'사형제 폐지 범종교 연합' 곧 결성

포스터 · 소책자 발간 등 대국민 홍보

정치권도 입법추진… "폐지" 세계적 추세

▲종교계의 사형 폐지운동

현재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지난해 7월27일 출범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를 비롯한 천주교, 원불교, 천주교, 성균관, 민족종교 등 6개 교단 관계자들은 2월 23일 서울 중곡동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구성되는대로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범종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4월말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포스터와 소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생명존중의 참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종교인들은 "사형제도가 무기형보다 범죄예방효과가 크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사형폐지특별법 추진

종교계가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신자인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2월 28일 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을 계기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사형폐지 반대론을 감안,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 ·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법안에 보완키로 했다.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핵심 주장

사형 존치론자들이 거론하는 사형제도의 실제적인 기능은 크게 세가지다.

이 제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抑止)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둘째로 동일한 흉악범에 의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응보적 정의의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종식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응보적 정의에 입각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등가응보하는 것은 사실 비문명화된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법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는 논리다.

이와 아울러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종신형제도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폐지론자들은 인간사회의 사법제도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드물게는 사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1998년 105개국에서 3개국이 늘어,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108개국이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과거 1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국가들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30개 이상의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주도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형 집행을 전세계적으로 유예(moratorium)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청원이 전세계 1백45개국에서 3백20만명의 사형폐지 옹호론자들의 서명을 받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87개국이 있다. 1999년 한해동안 31개 국가에서 최소 1,813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최소 3,857명이 63개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재경 기자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를 사하고…

불교에서 보는 사형제

부처님 재세 당시 희대의 살인마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은 앙굴리말라의 일화는 사형에 대한 불교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다. 삿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천명을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인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죽은 자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기에 앙굴리말라(손가락 목걸이)로 불리었던 지명 수배자였다.

그러나 불타오르던 그의 강한 살기는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자비의 힘 앞에 흔적도 없이 사그라져 버렸다. 마치 빛 앞에서 사라지는 어둠처럼 그렇게 제 정신이 든 그는 부처님을 1천번째 회생자로 만들려던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단기간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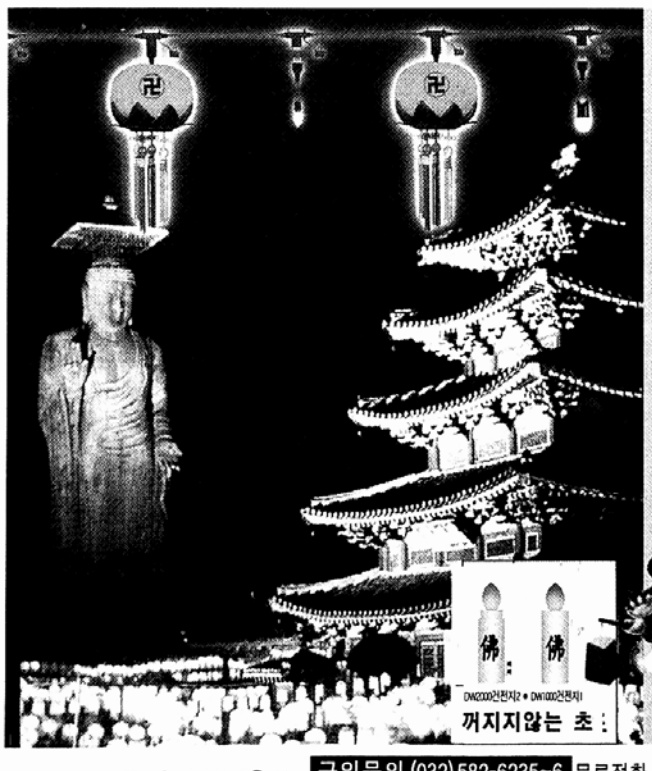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는 살인자라 할 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를 사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출요경〉은 "본래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받나니, 악을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고치면 강철로 구슬을 뚫는 것 같다"며, 진정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숫타니파타〉에는 "산 것을 몸소 죽여서도, 남을 시켜 죽여서도,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설하고 있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설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은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게 하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다시 원한을 맺는 악업의 윤회를 되풀이할 뿐이다"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으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사람과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 간 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종류 : 3W, 5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에세이
청어와삐삐 02-586-0477
가격 7800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⑤

이타의 자비심이 근본마음

짧은 들숨 긴 날숨 습관되게 정진

자비심(慈悲心)이란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인 그런 사랑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공감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환희 속에서 삶의 존엄성을 공감하면서 숨의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삶의 가치가 새롭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다. 안반수의를 통해 얻은 자비심은 인간 모두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근본 마음이며,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타(利他)의 마음이다. 불교에서의 이와 같은 궁극의 세계가 호흡이라는 생명 현상 속에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

청정한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나의 것이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들은 호흡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서 호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흡을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수식(數息)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죄에 이르는 것이요, 둘째는 행이 공교롭지 않은 것이요, 셋째는 정진하지 않는 것이다. 들숨은 짧고 날숨은 길고, 생사에 따르는 바가 없는 것을 도의 마음으로 삼으며,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을 죄로 삼는다. 죄는 밖에 있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호흡이란 내적으로 건강과 정신상태에 따라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의 원인은 호흡을 방해하는 장애가 닥쳐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잡념이 생기거나 불안할 때는 호흡이 흐트러진다. 둘째 호흡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이다. 셋째는 바르게 호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호흡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생각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혼란하면 호흡이 흩어진다. 그 원인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있다. 생각이 일어나서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정신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의 장애가 죄이다. 죄는 마음 속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게 된다.

호흡의 방법이 공교롭지 않다는 것은 들숨이 짧고 날숨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을 취해야만 복압력이 생겨 자율신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게 된다. 짧은 들숨과 긴 날숨을 습관화시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이 실행되려면 조건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진(精進)이다. 이상의 조건들이 호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도 적용된다.

들어오는 숨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이는 마음이 수식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사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경우, 수를 세다가 까먹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숨을 세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호흡은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들어오는 숨은 짧고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어야 하며, 나가는 숨은 길고도 충분하며 들어오는 숨은 자연히 그 반동에 의해서 급하고 짧아지게 된다. 이때 마음이 절대 숨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긴 날숨은 횡경막의 압축력을 주어 모든 장기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유입시키고, 숨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많은 산소를 내포한 동맥혈을 여러 장기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은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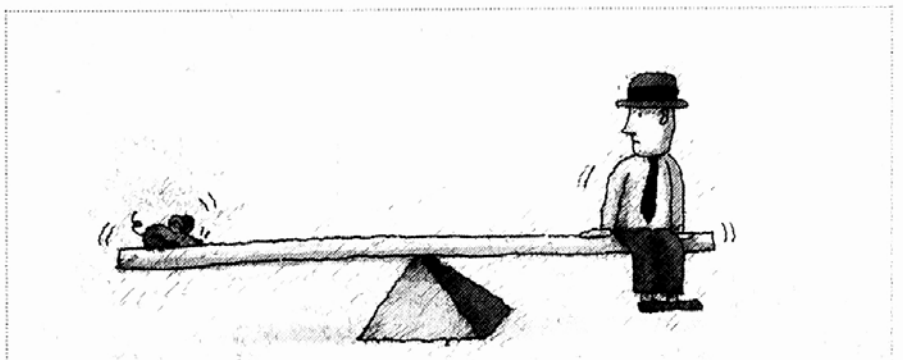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하늘 아래 우월한 생명 없다

불교와 과학 〈20〉

우주 한 모퉁이 인간

산탄총으로 새를 쏘는 경우, 새를 맞추어 떨어뜨리는 총의 발사행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행위이다. 그러나 산탄총이 발사된 후 산탄들(많은 총알들)이 새를 맞추게 된다면 그 많은 산탄 총알 중에서 어느 총알이 새를 맞출지는 전적으로 우연에 속한다. 이 이야기는 목적과 관계없는 우연과 목적에 부합하는 필연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이다. 우연과 필연의 이러한 연결성은 특히 생물의 진화과정에 잘 드러나고 있다.

새의 뼈 속이 성글게 된 진화과정은 먼 과거 역사에 한 육상 생명체가 하늘을 날게 되는 단편으로 보아서는 우연에 속한다. 그러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가 가벼워야한다는 생리학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진화과정은 필연에 속한다. 진화는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화과정에 놓여 있는 생명체는 강 위로 흘러가는 미아의 바구니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3톤 짜리 체중을 갖는 새로 진화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 우연이나 행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1859년 다윈이 불과 2천50부만 출판한 책인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은 유럽의 지적 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단지 생물학적 혁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축 위에 서 있던 유럽의 사유체계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다윈 이전의 서구 인간관의 기본은 기독교적 인간관으로서, 인간은 신의 모방체로서 다른 동식물과 달리 매우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달리 진화론의 인간관은 우연적이고 많은 생명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무중심의 태도를 지닌다.

인간의 유전자는 침팬지의 유전자와 비교해서 98%는 같고 나머지 2%만 다를 뿐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고 해서 최고의 영장류 혹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특수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쥐는 초음파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낙타는 물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생명체이며, 박테리아 역시 외부환경에 강한 증식력을 갖는 특수한 존재이기도 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화학자 자끄 모노(Jacques Monod)는 인간을 "우주 한 모퉁이를 떠도는 집시"라고 표현했다. 결국 인간은 무수히 많은 생명종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위가 보잘 것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종, 모든 생명개체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를 지닌다는 뜻이다. 인간 유전자의 2%만이 침팬지의 것과 다르고, 진짜 하등하다고 생각한 초파리의 유전자의 숫자도 인간 유전자 수의 1/3 정도나 된다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간과 침팬지의 생물학적 차이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2% 정도일지라면, 나머지 인간과 침팬지가 공유하는 98%라는 생명체 일반의 신비로움은 더욱 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파리의 유전자의 수가 인간 유전자의 1/3정도라면 그 나머지 숫자인 30%가 갖는 생명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보고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지니는 특수한 지위를 따지기 전에 인간과 초파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일반이 갖는 신비로운 생명성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최근 발표한 게놈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로서 되새겨져야 한다.

과학 진화론 이후 인간 위주 세계관 변화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생명 평등 주창

다윈 이전에는 인간만이 생명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목적론적 사유를 정면으로 붕괴시켰다. 그래서 필연적인 방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연의 역사를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였다. 진화론과 같은 생물학의 이론은 물론 아니지만 우연으로 나타나는 필연의 세계를 삶의 전체성과 연관하여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기의 세계이다. 연기의 세계는 삼세간(三世間)의 상호장엄(相互莊嚴)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삼세간 중에서 생명체의 세계인 중생세간 사이의 생명체들은 어느 무엇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하거나 비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 평등의 존재자들이다. 나아가 깨달음의 세계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생명체의 세계인 중생세간 그리고 산천초목의 세계인 기세간(器世間)이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의 존재의미를 서로에게 부여해주는 관계이기도 하다. 진화론이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국한하지 않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의 겸허한 자세를 요청하는 새로운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세계최대 바미얀 대불 포화속에 사라질 위기

지구촌 불교 / 아프간 불상 파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대불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중부 지역에 있는 간다라 양식의 불상들이 파괴되고 있다.

AFP통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쿠드라툴라 자말 정보문화관장은 "불상 파괴 작업이 1일 오전부터 시작돼 진행중"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상 파괴를 반대해 온 유네스코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불교권 국가들의 거센 반반이 예상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탈레반은 불상 파괴를 위해 탱크와 로켓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고대 불상군(群) 등 문화재가 밀집해 있는 수도 카불에서 서쪽으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중부 바미얀 지역이다.



◇바미얀대불.

이외에도 6000여 개의 불교 문화재들이 소장돼 있는 카불 박물관을 비롯해 가즈니, 헤라트, 잘랄라바드, 칸다하르 등지의 박물관에 있는 고대 불상들도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 불상군 중에는 높이

탈레반 "모든 불상은 우상" 파괴 명령

2세기 귀중한 고대 불상군 소멸 우려

53미터인 세계 최대의 사암(砂巖) 마애석불(일명 바미얀 대불)과 높이 37미터의 대형 볼상을 포함, 최고 서기 2세기경에 만들어진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포함돼 있어, 그 심각성을 더했다.

전형적인 간다라 불상을 거대하게 확대시켜 놓은 듯한 바미얀 대불은 불교미술사상 최초의 거대한 예배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불상으로, 중국의 운강이나 용문 석굴의 대불, 일본 동대사의 청동대불에 많은 영향을 준 귀중한 불교문화재다.

또한 대불이 조각된 절벽에는 2킬로미터에 걸쳐 승방과 불당으로 사용됐던 굴들이 벌집처럼 뚫려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한 현장스님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대불과 석굴은 도금으로 빛나고 보석이 찬란했다"고 기록했다.

탈레반이 국제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불상 파괴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자인 이스라르 아흐메드 박사는 "탈레반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교시를 교조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상 파괴에 앞서 탈레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는 지난달 26일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든 불상을 파괴하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불상파괴 행위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에 복구 불능의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며 "아프간의 불상, 특히 마애석불의 손실은 인간애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고고학계 역시 "그리스의 헬레니즘 양식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에 성행한 간다라 미술 양식은 세계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음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당겨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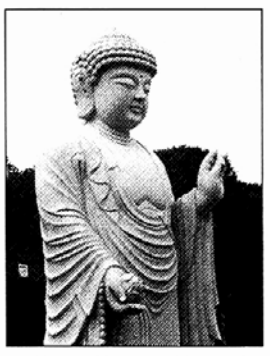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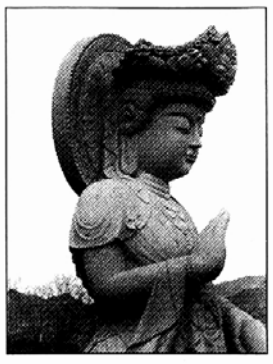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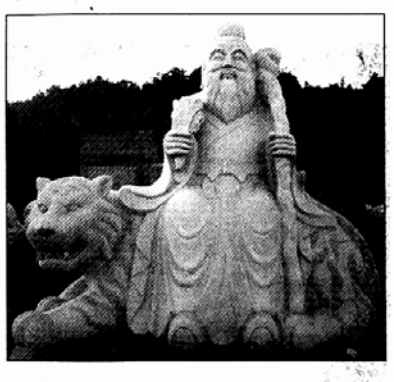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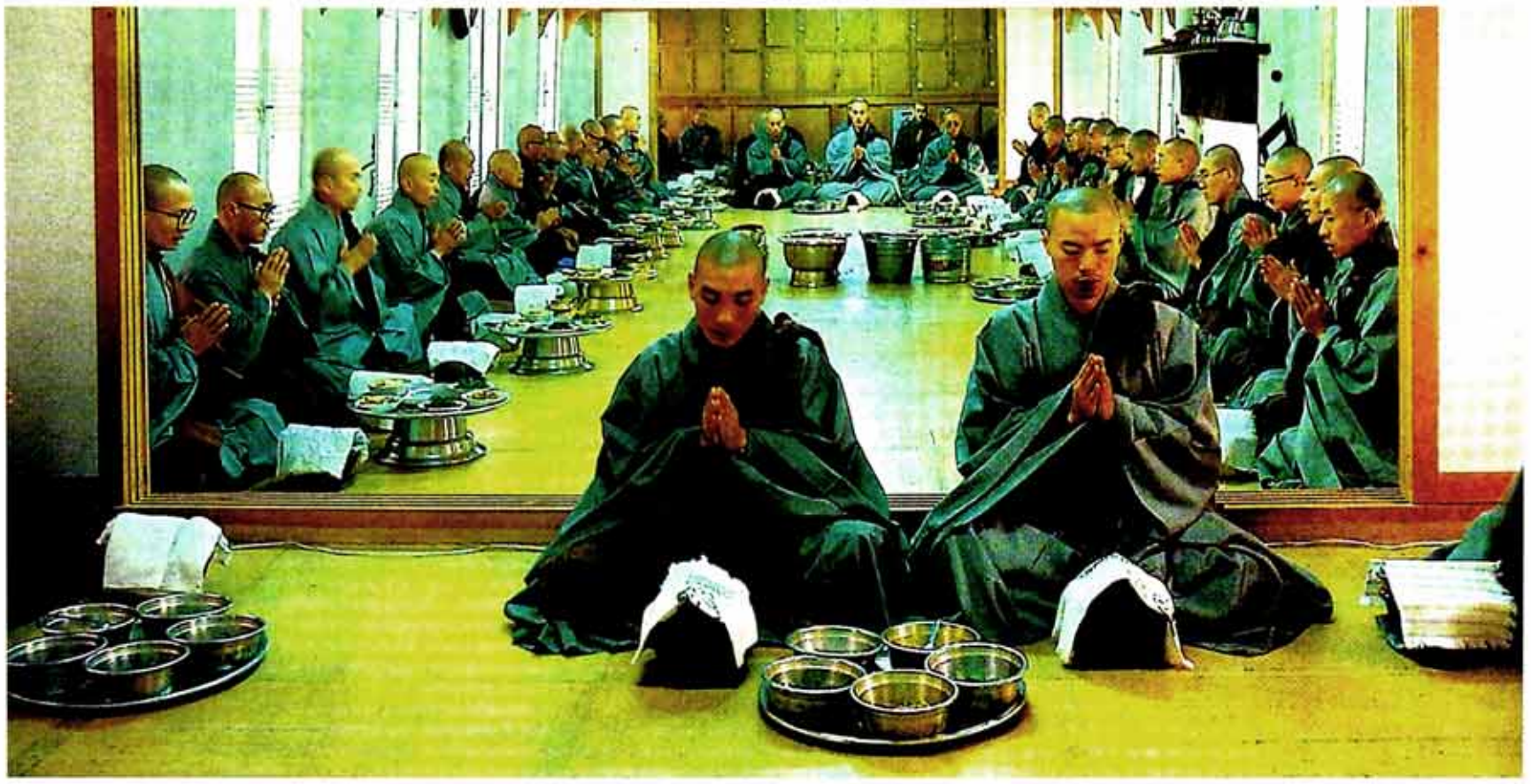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출가자에게는 밥먹는 것조차 수행이다. 사진은 송광사 발우공양 장면.
<사진제공 안장현>

발우공양으로 되새겨 보는 출가정신

절약…공생…소욕지족 "해탈 향한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철저한 무소유의 삶 마음 풍요롭게 하는 길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사진은 탁발장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취하는 발우공양에는 출가정신이 베어있다.

출가(出家)는 속세(俗世)를 등짐이다. 그렇지만 또다른 한 세상을 찾는 일이다. 발우하나 달랑 옆에 낀 채.

삭발한 것만으로 출가라 하지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아픔을 내것으로 여기며 그들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발심을 할 때, 이를 출가라 한다. 출가는 몸동아리의 편안함을 구함도, 이익이나 명예를 위함도 아니다. 오직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함이요,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출가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친출가(肉親出家)로 가족과의 결별하는 것이다. 둘째는 오온출가(五蘊出家)인데 이는 일체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한다. 셋째는 법계출가(法界出家)로 번뇌와 업보,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참된 수행자는 고고하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자는 수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육물(六物)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육물이란 탁발을 하는 발우와 큰 옷인 상가리, 웃옷인 울다리, 속옷인 안타회, 깔거나 덮는 좌구, 이를 닦을 때 쓰는 도구 등 여섯 가지를 말한다. 출가자들에게는 이 육물만이 소유의 전부다. 그야말로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을 사는 이가 출가자인 것이다. 하지만 육물도 '내것'이 아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어찌 '내것', '네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출가는 모두 버림으로써 모두를 얻어야 하는 고행의 길이다. 그렇기에 출가의 모든 행위는 수행이다. 발우공양(鉢盂供養)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발우공양은 평등, 절약, 감사, 공생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수행 행위다. 여기에는 출가 수행자가 음식을 매개로 중생과 함께 하는 자비의 정신이 숨어있다. 또한 음식을 나눠먹고, 유 · 무주 중생을 생각하며, 나아가 환경의 건강함까지 고려한 지혜 보시 인욕 정진이라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 살아있다. 깨끗이 비운 발우 속에 수행자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의 세계를 담는다.

출가자들은 발우를 가지고 밥을 비는 탁발(托鉢)을 중요한 수행으로 삼는다. 부처님 또한 탁발을 통한 걸식(乞食)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일좌식과 부작여식의 규칙이 지켜졌다. 일좌식이란, 비구는 오전 중에 거리에 나가 음식을 얻는데 탁발로 얻은 음식을 오전중에 한끼만 먹는 것으로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여식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다. 만약 검식한 음식이 많을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생활수단으로 정한 데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는 많은 중생에게 복과 이익을 주기 위함이요, 둘째는 아만심을 절복시키기 위함이고, 셋째는 몸과 괴로움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넷째는 탐욕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3월 2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되새기며 봉축한다. 그러나 그 정신을 실현하는 데는 게으르기만 하다. 모든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출가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길이 아닐까.

글=김두석 기자(docbi@buddhapia.com)

발우란

스님들 사용하는 밥그릇 요즘 나무발우 많이 써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을 발우 또는 바리때라고 부른다. 이는 범어의 음사인 발다라(鉢多羅)의 약칭으로 응기(應器) 또는 응량기(應量器)라고도 한다.

발우의 색과 재질에 대해서 경전에는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다. 〈사분율〉에는 진흙발우(泥鉢)와 철발우(鐵鉢)만을 인정하고 나무발우(木鉢)은 외도법이라 하여 쓰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볍고 실용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대부분 스님들이 나무발우를 사용한다.

〈십송률〉 제56권에는 금발, 은발, 유리발, 마니발, 동발, 백랍발, 목발, 석발 등 8종의 발우가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비구들은 대체로 철발 또는 와발을 쓰고 부처님은 홀로 석발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 〈마하승지율〉 제 29절에 바루의 색은 공작새의 색깔, 가릉빈가의 색깔, 비둘기의 색깔 등 3색을 불에 쪼여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색깔이고 다만 철발은 불에 다섯 번 쪼여서 색깔을 내고 토발은 두 번 쪼여서 색깔을 낸다고 하였다.

발우는 용량에 따라 상발(上鉢), 중발(中鉢), 하발(下鉢)로 구분된다. 부처님은 사천왕으로부터 네 개의 발우를 받았을 때 이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인도나 남방불교계통에서는 아직도 걸식할 때 하나의 발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개로 된 발우를 쓰는데 보관시에는 포개어 하나로 합친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당귀잎떡

혈액순환 촉진…부인병에 효과

400여 년 전, 왜군이 조선을 유린할 때, 의로운 두 사람이 있었다. 일만자에 달하는 상소문을 12차례 올려 일본의 침략을 미리 경고했다가 두 번이나 억울한 귀양살이를 겪은 중봉 조헌과 서산대사의 수제자였던 기허당(騎虛堂) 영규 대사는 당시 전라도에서 북진하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1592년 8월 18일, 협공을 약속했던 전라순찰사 권율 장군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낮과 곡괭이가 전부였던 700여 의병들이 조총으로 무장한 1만5천명의 왜군과 격돌하기 전야였다. 싸움을 앞두고 영규 대사는 보석사 법당에서 마지막 향을 사르며 삼배를 올리다 깜박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한 여인이 나타나 "스님, 공격을 이레(칠일)만 연기하시오."라고 호소하지 않는가. "그건 무슨 연유요?" "이레만 연기하면 스님과 중봉 대장(조헌)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소." "내가 살기 위하여 적을 눈앞에 두고 공격을 연기한단 말이요? 그렇게는 못하오." "당귀 꽃이 피는 일주일만 공격을 연기해 주시오, 스님!"

여인의 애원소리가 맴도는 가운데 잠을 깬 영규 스님은 혀를 찼다. '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연기라니 안 될 말이지, 암!' 보리쌀을 탈탈 털어도 내일 아침 먹을 식량밖에는 없었다. 들판의 푸른 당귀 밭이 황토 흙으로 뒤집어지도록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다.

처음에 왜군은 진한 당귀 향에 무슨 계책이 숨은 것으로 착각하여 쉽게 달려들지 못했다. 마침내 세 번이나 왜군의 총공격을 막아낸 700 의병은 전원이 그 당귀 밭 언덕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고 보면 금산의 당귀가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금산 보석사 주변에서 자생하는 당귀의 맛과 향은 최고 수준이다.

▩ 약선식 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당귀잎가루(승검초), 쌀가루, 색콩, 천궁 달인 물, 송화가루, 꿀, 굵은 소금

요리법 ① 불린 쌀에 소금간을 해서 빻고 천궁 달인 물을 섞어 체에 내린 뒤 송화가루를 섞어 다시 체에 내린다.

② 당귀잎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먹이고 비벼서 체에 내린다.

③ 대나무 찜기에 ②를 깔고 그 위에 ①을 담고, 다시 ②를 얹어서 쪄낸다.

효능 당귀는 신경안정작용이 있어 두려움을 없애주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㉒

先德曰 菩薩本爲度他 是以先修定慧
선덕왈 보살본위도타 시이선수정혜
空閒靜處 禪觀易成 少欲頭陀
공한정처 선관이성 소욕두타
能入聖道 此其證也 旣發度
능입성도 차기증야
他之願 先修定慧 有道力則雲布慈門
타지원 선수정혜 유도력즉운포자문
波騰行海 窮未來際 救拔一切苦惱衆生
파등행해 궁미래제 구발일체고뇌중생
供養三寶 紹佛家業
공양삼보 소불가업
豈同趣寂之徒也
기동취적지도야
問今時行者 雖專定慧 多分道力未充
문금시행자 수전정혜 다분도력미충
若也不求淨土 留此穢方 逢諸苦難
약야불구정토 유차예방 봉제고난
恐成退失
공성퇴실

옛스님의 말에 '보살은 본래 남을 제

남 제도할 서원 세웠으면
먼저 선정과 지혜 닦아야 한다

도하기 위해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그래서 한가하고 조용한 곳이라야 선관(禪觀)을 이루기 쉽고, 욕심이 적은 고행이라야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미 남을 제도할 서원을 세웠으면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도력이 있으면 자비의 문을 구름 펼치듯 하고, 행(行)의 바다에 물결 출렁이듯 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서 삼보에 공양하며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니, 이 어찌 고요한 데에만 들어가는 무리들과 같다 하겠는가."

물었다. "요즈음 수행하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에 전념하고 있으나 대개는 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약 정토(淨土)를 얻지 못하고 이 사바세계에 머문다면 온갖 고난을 만나 타락할까 두렵다."

答此亦各在當人 不可一例取之
답차역각재당인 불가일례취지
若是大心衆生 依此最上乘法門
약시대심중생 의차최상승법문
決定信解四大 如泡幻 六塵似空花
결정신해사대 여환포 육진사공화
自心是佛心 自性是法性 從本以來
자심시불심 자성시법성 종본이래
煩惱性自離 惺惺直然惺惺
번뇌성자리 성성직연성성
歷歷直然歷歷 依此解而修者
역력지경역력 의차해이수자
雖有無始習氣 以無依住智治之
수유무시습기 이무의주지치지
還是本智 不伏不斷
환시본지 불복부단

답하다. "그것도 각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 큰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상승의 법에 의해 이 육신은 물거품이나 허수아비와 같고, 육진(六塵)은 허공의 꽃과 같으며, 자기 마음이 불심이요, 자기 성품이 곧 법성이라서 원래부터 번뇌는 떠났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려면 바로 깨어있고 분명할 때는 그대로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서 여기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은 비록 오래된 습기(習氣)가 있더라도 집착이 없는 지혜로 다스리면 그것이 곧 본래의 지혜이므로 억제하거나 끊을 것이 없다.

雖有方便三昧 離昏散之功
수유방편삼매 이혼산지공
以知緣慮分別 是眞性中緣起故
이지연려분별 시진성중연기고
任性淨而無取攝之相
임성정이무취섭지상
雖涉外緣違順之境 爲了唯心
수섭외연위순지경 위요유심
無自他能所故 愛憎嗔喜 任運不生
무자타능소고 애증진희 임운불생

비록 방편의 삼매로써 혼침과 산란함을 버린 공도 있겠지만 모든 생각과 분별이 바로 참된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성품의 깨끗함 그대로에 맡겨 취하거나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고, 바깥 인연의 역경이나 순경을 당하더라도 오직 마음인줄을 알아서 자타와 주관 객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이나 미움, 분노와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지 옹 스 님

화엄사 선덕

"오늘을 이세상 마지막 날처럼"


◇청정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수행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고 강조하시는 지옹 스님.

화엄사(華嚴寺)를 품고 있는 지리산 자락에는 2월인데도 벌써 이름모를 풀들이 고개를 들어올리며 봄냄새를 뭍씬 풍기기 시작했다. 화엄사 경내에 들어서니, 며칠 전 폭설이 내린 서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곳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햇살이 따사로웠다.

화엄사 선덕 지옹 스님이 주석하시는 만월당은 일주문 왼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당에 따뜻한 봄기운을 쐬러 나온 스님은 우리 일행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아침부터 기다렸다며 함박 미소를 머금는 스님의 얼굴에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느낌을 받는다.

삼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스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늙은이를 보려고 먼길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절에서 하룻밤 자면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가세요"라며 원주스님께 전화를 걸어 객방을 하나 내주도록 일러주셨다.

그리고 말문을 여셨다. "승풍진작을 통한 청정한 승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정계행을 지키며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출가한 지 5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예불 때 이 말을 지키려고 마음 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이 말을 하면서 요즘은 승가에서조차 청정 계행을 지키는 스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스님은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스님은 말을 이어 나갔다.

"예전에는 출가할 때 부모형제와의 인연을 철저히 끊고, 양식이 없으면 탁발 해서 먹을 정도로 청빈하게 수행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속가나 승가나 먹을 것, 입을 것 등이 넘쳐나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자는 언제든지 걸망 하나 지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스님은 잠시 후 벽장 속에서 낡은 걸망 하나를 꺼내 보였다. 세월의 무게를 단번에 짐작하게 해 주는 걸망 속에는 평생동안 전국의 선방을 떠돌며 철저하게 수행한 공력으로 꽉 채워진 듯했다. 실제로 스님은 19살 때 금강산 마하연에서 출가해 여태까지 주지 소임 한번 맡지 않고 퉁도사, 해인사, 화엄사, 대둔사, 봉암사 등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돌며 수행에만 전념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도 수행이 모자란다며 몸성히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전국의 도량을 돌며 선방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하는 게 남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 "욕심을 버리세요
> 언제든 걸망 하나 지고
> 떠날 수 있도록
> 만사에 걸림없게"

"권속과 문중 의식이 너무 지나쳐 다른 사찰 출신의 스님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지 소임을 맡지 않거나 자신의 사찰을 갖고 있지 않은 스님들은 나처럼 노후에 편안히 머물면서 수행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한국불교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수행에만 전념 하고 싶어도 노후를 생각해 할 수 없이 소임을 맡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상좌들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대물림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편협된 문중 의식이 타파되지 않는 수행자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행에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스님에게도 10여명의 상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연락되는 상좌 스님은 한 명도 없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상좌들도 사찰의 소임을 맡기보다는 스님처럼 전국에 흩어져 선방을 찾아 수행 중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스님의 지나온 행장을 듣기란 어려웠다.

그러나 2개월 동안 곁에서 지옹 스님을 지켜봤다는 화엄사의 한 행자는 "지옹 스님 방을 지나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고 참선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님은 70세가 넘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 청소와 빨래를 손수 하십니다. 법랍이 이 정도 됐으면 상좌들의 시봉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수행자란 무릇 죽기 전까지 평생동안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3년동안 해남 대둔사 북암 옆에 토굴을 짓고 혹독한 수행을 했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혼자 지내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예불도 일정한 시간에 모시기 어려운 등 수행하는 데 장애가 많이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대중 생활과 똑같이 죽비를 치고 입선과 방선을 하는 등 철저하게 수행을 했지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성불을 위해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으면 그곳이 선방이든 토굴이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경험했다며 스님은 그 당시의 일을 다시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한 번은 깊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서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 같기도 하고 꿈을 잘못 꾼 것 같기도 했지요 아무튼 느낌이 좋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고열에다 복통까지 앓아 사경을 헤맬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며칠이 지났는데 만행 중이던 한 스님이 우연히 내 토굴을 발견하고 쉬었다 갈 생각으로 들어와서 누워있는 나를 보고는 정성껏 며칠 동안 간호해 줘 간신히 위

서점가-화제의 책 ①

평생,
일년,
열두 달,

삼백 예순 다섯 날, 날마다…
희망을 설계하십시오!



정겨운 12가족이
전국 서점에 소문없이 모였습니다.

5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운세이야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12명의 전문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제의 책.

사랑하는 연인, 친구, 부모님께
365일 운세를 선물하세요.

취업 · 창업자에게, 나의 사업파트너는?
영원히 뜻을 함께할 동반자는 과연, 누구?

12가족 운세 이야기™

2001년 뱀띠 해[辛巳年]

점집이나 전화상담, 인터넷의 운세내용과 얼마든지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는 적중률……
이제, 최고의 적중률을 책으로 만난다!

오늘의 운세 시리즈①~⑫권
12가족 가운데 띠별로 한 권씩 고르십시오.
1질(전 12권)을 구입하시면 2001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의 운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12권 각권 값 6,000원

12가족이야기㈜ 전화:02-542-2769 팩스:02-2266-2760 불교전문서점 공급처:법우당|02-994-4437~8

지옹스님은

평생을 선방수좌로 청정한 선사의 풍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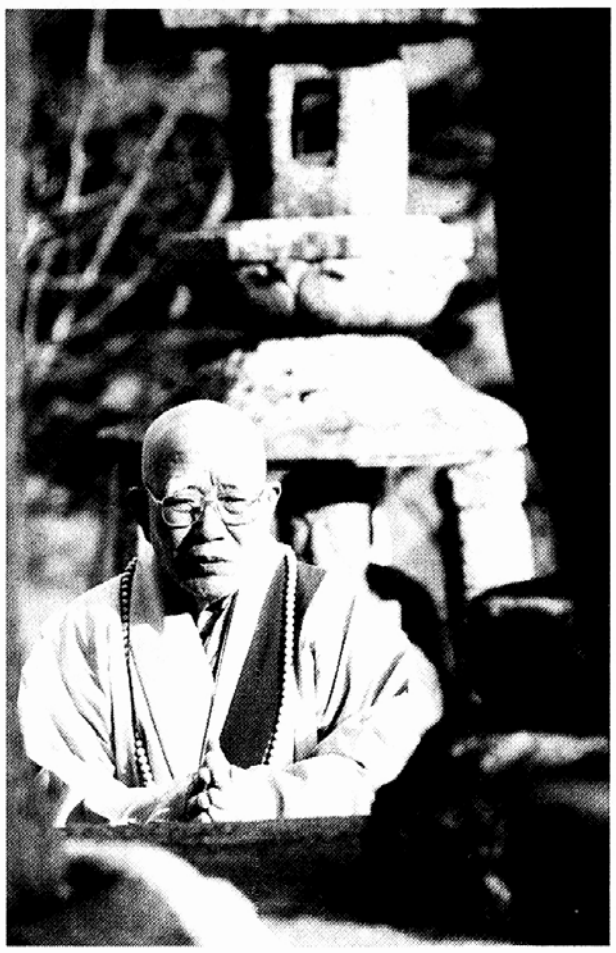
스님에게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청정한 선사의 풍모가 확연히 느껴진다. 주지 소임 한 번 맡지 않고 평생 동안을 선방 수좌로 보낸 수행 이력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겉모습만으로도 단번에 비범한 수행자임을 그냥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스님은 출가 이후 평생동안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몰두해 온 선승이다.

화엄사 만월당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은 고희를 넘긴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상좌의 도움 없이 손수 자신의 옷가지를 빨면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참선하지 않는다. 한 평 남짓한 선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면 화두를 들고 참선하며 또 졸리면 뒷산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

스님에게는 삶과 수행이 하나다.

평소 스님은 불제자라면 승속을 막론하고 초발심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청정 계행을 지켜 용맹스럽게 수행에 매진하는 것만이 작금의 현실에서 혼탁해진 한국불교를 맑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몇 번이고 강조한다.

지옹 스님은 1925년 경북 울진에서 나서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철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70년~83년 대둔사 북암 토굴서 용맹 정진을 했다. 98년 운암사 조실을 역임했다.



"다툴일 생기면 먼저 상대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저절로 화해돼요"

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도가 보이니 다시 걸망을 지고 떠나더군요. 그때 도반의 진한 정과 함께 혼자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토굴을 지어놓고 수행할 때도 수행자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스님은 조석 예불 드리는 것을 공양하는 것처럼 결코 빼놓지 않았다. 철저히 몸에 밴 탓이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대웅전 법당으로 나와 예불을 모시고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예불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풍토에서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이틀날 아침 스님은 6시 아침 공양 후 1시간동안 경내를 산책한 뒤 방 뒷산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에 올라가 40분 가량 기도를 했다.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주장자를 들고 비탈진 계단을 올라가는 스님의 발걸음에는 아직도 힘이 느껴졌다. 참선하다 졸음이 오면 이 효대(孝臺)의 언덕에 올라와 연기조사의 효심이 각인돼 있는 사사자삼층석탑에서 매일 정근 기도를 한다.

예전에 스님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참선을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떨어져 피곤할 땐 약간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고 깨어나면 다시 화두 삼매에 든다. 이제는 몸의 근기에 따라 수행 시간이 불규칙해졌다고 하신다.

스님이 평생동안 이렇게 홀로 수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행자 시절을 엄격하게 보낸 탓이라고 일러 주신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수행자가 철저하게 수행 가풍을 익혀 참다운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자 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행자 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은사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규율이 엄격해 술을 한잔 먹고 절에 들어오면 바로 옷을 벗겨 일주문 밖으로 내쫓았지요. 또 수좌들은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었다면 입에도 안되고 내버릴 정도로 청정한 계행을 지키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행자들을 보면 힘들더라도 행자 때부터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고 은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몸에 익히라고 당부한다.

스님의 철저한 구도 정신은 외국에까지 입소문을 통해 전해졌다. 97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오르스트가 스님을 미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오르스트는 오로지 선불교만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생각에서 미국에 사찰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스님을 절로 초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수행만으로 일관해온 스님이기에 소임을 맡는 일에는 문외한이라는 이유로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평생 사찰 운영하는 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조건이 좋다고 그 일을 수락한다면 탐심이 생겨 안 되지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지옹 스님은 불자들에게 항상 용서하며 살기를 강조한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합니다. 행동으로 잘못한 이도 있고, 말로 구업을 지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쉽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을 되갚는다면 그만큼 이승에서의 업(業)이 쌓여 내세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이승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 업을 제거해 나가는 선행을 쌓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자신이 한 행동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항상 다툴 일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럴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타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변화하는 마음을 살피며 날마다 새롭게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는 스님은, 일생을 통해 수행을 다 못 마치면 내생에도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으로 업을 갖고 태어나 어차피 주어진 죄업을 소멸해야 하는데, 수도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다시 태어나도 수행자로 태어난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불자들도 자신이 불제자가 된 것을 긍지로 알고 수행에 매진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되돌이켜 보면 실로 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죄업 짓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하길 바랍니다."

승속을 초월하고 청정 계행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불제자가 될 때 드린 약속이니 만큼 철저히 지키는 참불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스님은 간곡히 당부한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수스님

우리 사회에 있어 맏이의 개념은 참으로 크다. 책임감이 있고 모든 일을 통솔력 있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반면, 늘 받기만 하는 막내들에 비하면 마음도 참으로 넉넉하다. 항상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덕을 흠뻑 베풀며 다른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의 귀의처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댈수 있는 언덕이 되기도 하는 맏이, 부모가 없는 집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모든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는 맏이. 절집에 있어서도 맏이의 역할은 대단하다.

현수 스님은 속가집에 있을 때도 맏이였으며 절집에 와서도 맏이였고, 강원생활을 할 때는 아예 '현수'라는 불명은 뒤로 하고 '백씨(伯氏) 스님'으로 통했다. 어느 처소에 가나 우리 모두의 영원한 백씨 역할을 싫은 기색 없이 해내는 스님이 현수 스님으로 항상 열린 마음의, '큰 언니'였다. 만나면 늘 푸짐하다. 자신에게는 참으로 인색하지만 아우들에게는 영원한 물주 역할을 해주고, 무엇을 요구하기 전 먼저 눈치를 채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익혀온 맏이만이 갖는 장점이다.

스님이 어디를 가나 맏이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우리들에 비해 늦은 출가 때문이다. 아버지가 안 계시기에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모두 끝내고

생각도 푸짐하고 인심도 푸짐 자기희생 아끼지 않는 '큰언니'

나서 동생의 영향을 받아 출가 했다고 한다. 스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아우들의 눈에 차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너그러이 보아주었고 때론 정말 친언니처럼 걱정해 주었고 나무라 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스님의 그런 역할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스님의 성품 때문에 늘 누군가가 스님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상담을 한다. 그 찾아 가는 한사람 한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맞이해, 내 일처럼 상담에 임해주는 큰언니의 역할은 정말 자기 희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그럽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 참으로 예리하고 날카롭다. 적당히 넘겨버릴려 하면 어느새 스님은 그것을 끄집어 내고 지적해 주며 고쳐 줄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현수 스님을 의지한다.

현수 스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다. 그러면 스님은 이야기 하나 하나에 내 일인 듯 함께 고민하고 또 기뻐한다.

지식인이라고 자랑하는 스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늘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것이 없어 남들에게 무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은근히 자신을 감추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겸손과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말 '중답게' 살려는 스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해였던가, 경상도 어느 두메 산골에 있는 암자에서 기도정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적이 있다. 손님 접대를 위해 방앗간에 내려가서 만들어 왔다는 쑥찰떡을 내놓았는데 참으로 맛이 있어 이후에도 경상도에 가면 그 떡 맛을 혹시나 볼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려 보기도 한다. 번잡한 서울에 살면서도 스님 내면에 자리한 토속적인 향수를 늘 풍겨 주었는데, 산중 골짜기 암자에서 만난 스님의 모습은 제 옷을 제대로 입은 듯 한결 잘 어우러져 보였다.

손수 텃밭을 가꾸고 하루 사분 정근으로 자신의 깨침소리를 들을려고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앞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스님은 그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허물어져 가는 암자를 기도와 정진으로 반연을 만들어 제법 제 모습을 찾아 가도록 만들어 두었더니 돈 꽤나 나오는 암자로 착각한 본사의 명령을 거역 할 수가 없어 나와야 했다고 한다



스님이 나온 뒤 암자의 주지는 몇 차례 바뀌었고 스님마다 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편안하게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한 본사의 주지직 이권다툼이 싫어 몇 년 나름대로 불사하고 기도한 도량을 말없이 건네 주고 나오면서 스님은 아까워 하거나 욕심내지 않았다. 부처님 도량 허물어져 가는데 먹물 옷 입고 부처님 밥 먹는 수행자가 어찌 내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만 찾겠느냐고, 나머지는 또 인연 있는 스님의 몫이라고 했던 스님.

아무리 가난한 절이라도 열심히 목탁치고 기도 잘하고 정진 잘 하면 먹는 걱정 할 것 없다고 늘 말해주던 스님, 기도의 힘도 정진의 힘도 없이 부처님밥을 그저 먹으려고 했던 몇 차례 바뀐 암주 스님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 불교계가 치료 해야 할 고질병 같은 것은 아닌지. 스님은 지금 동화사 가는 길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스님을 만나고 오면 고향에 다녀 온 것 같은 푸근함과 넉넉함을 느낀다. 내 마음의 고향집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스님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 세원사 주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1기 확인 모집

Ⅰ. 승려과정

모집과정	20명 (남10,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40세 이하, 중졸 이상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 (여권용)
모집기간	2001년 3월 30일 까지

◈ 단 기혼자는 동의서 제출

Ⅱ. 포교사과정

모집과정	20명 (남10,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무속인 환영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 (여권용)
모집기간	2001년 3월 30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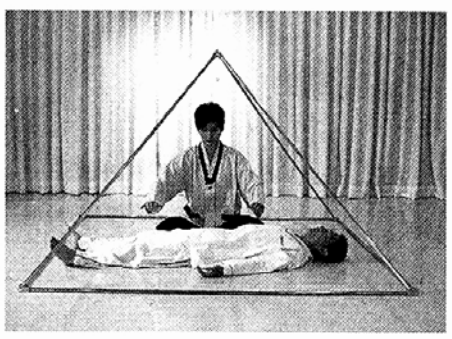
■ 모집과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중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교무금 의식주 일체 무료,
단 포교사는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671-7751~3 팩스 : 671-7754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다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합장

3월을 맞아 각종 교육기관들이 일제히 문을 여는 요즘, 신입생을 모집하며 개강을 준비하는 독특한 학교가 있다. 바로 범음 · 범패를 지도하는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는 비록 제도 교육에서의 학교와는 내용과 형태가 다르지만, 불교의식에 필요한 음악과 무용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며 오늘날까지 불교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특

신입생 모집 · 개강준비 바쁜
범음대학 – 어산작법학교
일반인에게도 문 활짝

"불교 전통문화 오늘에 잇자"


◇범음대학은 사라져가는 불교 전통문화와 의식을 연구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히 이들 범음대학은 스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문을 개방하고 있어, 불교전통문화와 불교의식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범음대학의 원조격인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은 1969년 결성된 옥천범음회를 모태로 지난 94년 창설됐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음 · 범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곳은 무형문화제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이자 하장인 구해스님을 비롯해 교육보유자 일운, 기봉, 송강스님 등이 지도한다.

3년 과정으로 1학년 상주권공, 2학년 각배, 3학년 영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연구반에 입학해 짓소리와 안차비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범음 · 범패의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졸업 후 영산재보존회의 준회원 자격이 주어져, 각종 공연과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02)392-3234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어산작법학교도 어산과 작법과 불전의식과에서 전통 불교의식을 지도한다. 1년 과정인 어산과는 범패, 신중작법, 상주권공 등을 공부한다. 6개월 과정인 작법과에서는 바라무와 착복무 등을 지도하고, 도량석과 각종 시식, 예경 등 제반 의식은 불전의식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운다. 조계종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원하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02)921-3425

해동불교범음대학은 기본과정(3개월)과 중급과정(3개월) 작법반(6개월), 신행과정(1년)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기본과정에서는 사물(법고, 운판, 목어, 범종) 다루는 법부터 도량석,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을 배우게 되며, 상주권공과 신중작법, 관음시식 등은 중급과정에서 배운다. 작법반에서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등을 배우게 된다. 02)741-0495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사무처장 법운스님은 "범패를 배우는 일이 쉬지 만은 않다. 상주권공 16곡만 전수하는 데 3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승속을 막론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전통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우리 전통 문화의 멋과 미,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워보자.

새봄에 눈여겨 볼 우리문화강좌
한옥 문화원 성천 아카데미
한옥으로의 초대 우리문화 밝힘

우리 전통 문화의 멋과 미,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워보자.

한옥문화원은 8일부터 문화강좌 '한옥으로의 초대' 강좌를 연다. '건축사진 강좌', '무늬 강좌' 등을 통해 우리 한옥문화를 읽는 시각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건축사진 강좌'는 민가건축과 사원건축 등을 직접 찾아 실습도 할 예정이며, '무늬 강좌'에서는 우리 전통무늬를 생활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한옥의 특성과 미학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파트를 한옥처럼', 집짓기의 전 과정을 알수 있는 '내집을 지읍시다' 등의 강좌도 진행된다. 02)562-0303

성천아카데미도 9일부터 '우리문화 밝힘 강좌-우리 예술의 얼과 뿌리'를 시작한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박사, 가천박물관 윤열수 실장 등을 강사진으로 '한국인의 미의식' '우리 그림의 이해' '민화의 해학과 멋' '장승일기' '토기의 역사, 옹기의 원류' 등 우리 문화예술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꾸몄다. 02)786-1755

문화소식

사천 운흥사 음악회

경남 사천 운흥사는 2일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영산재 시연에 이어 열린 산사음악회에는 성각가 정률스님, LMB싱어즈, 마하연 국악실내악단, 소리꾼 최진숙씨 등이 출연했다.



장욱진 禪 목판화전

가나아트센터 아트숍에서는 장욱진 화백의 10주기를 회고하며 선(禪)시리즈 목판화를 공개 판매한다.

선시리즈 목판화는 장화백 특유의 단순한 선과 해, 달, 산, 소나무, 아이들, 집의 모티브를 형상화한 것으로 총 76세트만 제작된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네 자신을 찾아라' '과거 현재 미래는 마음 속에 있다' '날마다 좋은 날' 등 총 25점이다. 080)321-1020

70년대 마을로 사진여행

강운구 '마을 3부작 展' … 25일까지 금오미술관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서의 마을과 집, 자연경관들을 주제로 한 사진가 강운구씨의 사진전 '마을3부작 전'이 25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현실의 기록이라는 사진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예술 행위로서의 사진이 가진 따뜻함과 애뜻함을 잃지 않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마을3부작-황곡, 용대리, 수눈리〉라는 연작 시리즈로 지금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70년대의 마을들을 사진으로 되살려냈다.

초가, 주택, 너와집, 건색집(초가의 일종, 억새로 지붕을 엮음) 등 사라져간 것들의 아름다움과 실용성,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자신만의 시각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강씨는 1966년 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를 거쳐 94년 〈우연과 필연〉, 98년〈모든양금〉으로 2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사진집으로 〈경주남산〉(1987),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1999)가 있다. 02)720-5114

이은자 기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여행의 후유증인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평소엔 그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신체의 온갖 부위가 말을 걸어온다.

가만히 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니, 발끝에서부터 어깨, 목, 머리끝까지 저마다 아우성이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것들이 마치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통증으로 인해 그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래, 참다운 '있음'은 마치 '없는 것' 같아야 하고, 일단 그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벌써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없는 것처럼 있기', 이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뜻도 이것 아니겠는가?

이성선의 새 시집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를 읽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이 시인은 그동안 10권이 넘는 시집을 발표해왔는데, 설악산 아래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써 내려간 이번 시들은 선미(禪味)로 가득했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출가'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이성선의 출가

'자기' 버리는 것
자연과 하나돼
생사로부터 초연

해지기 전에 아주 잠깐
담벼락에 기대섰다 떠나간 나무 그림자처럼
출가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
풍더미 속에 앉아 풀더미가 되어버린 집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고
텅 빈 집, 바람만 와서 자고 가는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한다. 젊은 시절 그 허전한 가슴 한구석이 존재의 가시에 찔린 후로, 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그 상처로부터 끊임없이 선홍빛 피가 흘러나온다.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상처를 잊고 살기도 하지만, 환절기가 올 때마다 가슴앓이 병은 계속 도지기만 한다.

그 아픔을 소중히 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수도자와 예술가이다. 문득문득 일상을 급습하며 불쑥 튀어나오는 존재의 이질성을 끌고늘어지며 그 해답을 구할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 처열한 싸움의 전리품이 '사리'이다. 여기 이성선이란 시인의 사리 한 알이 있다. 작지만, 맑고 영롱하다. 그러나 이 몇 마디 말이 시인의 뼌을 통해 흘러나올 때까지, 그가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

시는, '출가'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 하나된다는 것은, 원효가 좋아했다는 화엄경 구절 '일도출생사 일체무애인(一道出生死 一切無碍人)'처럼, 생사로부터 초탈하는 것이다. '무애'가 되려면 몸과 마음에 뭔가가 걸리면 안될 것이다. '더러움'은 '털 없음'이다. 아주 없어져야 깨끗해진다. 그러나 우리 생활인들이 '텅 빈 집'이 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문학평론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증원 제조특허(등록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마음 닦으니 행복이 보이네

'마음' 제목 단 수행서 출간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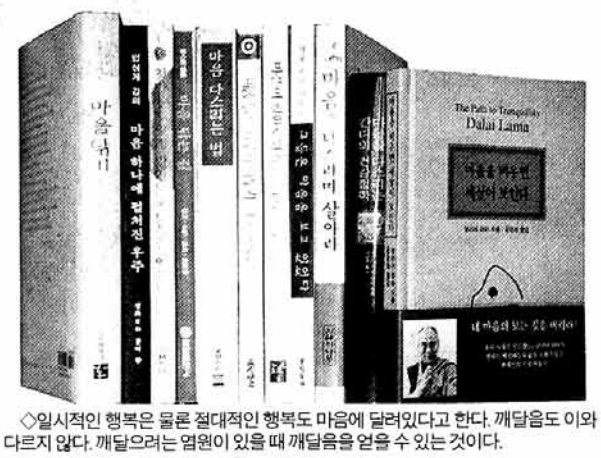
"행복과 고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과 고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낸다고 하셨다. 행복과 고통도 그 본질은 마음의 반영이란 얘기다. 최근 출간된 책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음'을 제목으로 한 책들이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상업 출판시장의 한 흐름이긴 하지만 불교적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책들은 '참나를 찾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책 속에는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을 강조한 수행지침서, 동양 고전에서 가려 뽑은 마음 이야기,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책들이다.

불교와 관련된 책으로는 우선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법공양)를 꼽을 수 있다. 의상조사 〈법성게〉를 강의형식으로 풀어놓은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불교서점가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뒤 불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그 동안 출간된 〈법성게〉 역서에 비해 이 책이 널리 읽히는 것도 '마음'에 초점을 맞춰 풀어놓았기 때문이란 것이 서점가의 공통된 평이다. 법성 스님의 이야기 법문집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깨달음을 이룬다〉(지혜의 나무)도 빼놓을 수 없다. 글쓴이 법성 스님은 "깨달음이란 한 생각이 일어나는 아주 짧은 찰나에 속해 있는 간단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밑자리에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며 마음 수행을 강조한다. 불성의 씨앗을 틔우기를 권하는 마음 법문인 셈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법〉(예문당)과 〈생활 수행 이야기〉(불광) 등은 마음 수행지침서라 할 수 있는 책들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법〉이 달라이 라마들의 심오한 명상적 가르침을 담은 수행지침서라면, 〈생활 수행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깨달아 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마음 닦는 생활 수행',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등 4장으로 구성된 〈생활 수행이야기〉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 신행의 주춧돌로 삼을 만하다. 또 물질적 탐욕과 감각적 쾌락이 대신해버린 마음자리를 되찾으려 스스로 낮추는 이방의 불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세등 스님의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문학동네), 몸과 마음이 조화를 갖출 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뜨란)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음 한번…' 등 1년새 200여권
물욕 벗어나 참나 찾기 유도
생활속 신행 주춧돌 삼을만



◇일시적인 행복은 물론 절대적인 행복도 마음에 달려있다고 한다. 깨달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깨달으려는 염원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간 〈내 마음 내가 안다〉(손혜숙 옮김, 아름드리미디어)는 글쓴이 젠들리 교수가 창안한 심리치료 기법인 '초점 맞추기'에 대해 적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은 몸이 아는 마음의 진실,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으로 왜곡된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아로 일깨워주는 내면 활동인 초점 맞추기를 매뉴얼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 고전 〈열자〉를 우화기법으로 재구성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라〉(지혜의 나무)도 '마음'이란 주제에 맞춰 쓴 책이다.

이밖에도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사과나무), 〈마음을 바로 봅시다〉(법공양),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문이당)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200여권이 책이 나왔다.

스트레스가 없는 현대인은 없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것이 '마음의 병'으로 진전되어 한 개인의 일생을 망쳐놓는다는 점이다. 지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닦는 책들을 권해 본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책의 한구절

■"생전에 사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푼 스승이 인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영적 스승이 없으면 진리의 형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도 없다면 같은 종교를 가진 학식 있는 자가 대신한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베트의 경전 〈티벳 사자의 서〉(파드마 삼바바 지음, 류시화 옮김, 정신세계사). 값 1만5천원.

■"고통과 기쁨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자는 바른 가르침에 도달한 것이네. 인간의 소망과 붓다의 지혜가 다르지 않음을 본 자는 위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네. 진아의 마음과 붓다가 '하나'임을 본 자는 진정한 성취에 도달한 것이네."

—티베트 성인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노래 〈미라래빠의 십만송〉(이정섭 옮김, 시공사). 값 1만원.

화가 날 때 생각 돌리는법 익혀둬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진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또 전적으로 안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을 닦아야만 죽어 가는 과정에 겪는 혼돈의 소용돌이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영적 스승 소갈 린포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티베트의 지혜〉(소갈 린포체 지음, 오진탁 옮김, 민음사). 값 2만원.

■"분노의 해독제는 인내심이다. 그러나 화내는 순간에는 인내심을 발휘하거나 분노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분노의 단점을 기억하고 인내하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화가 날 때는 사고전환법을 적용하고 람림 명상을 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한다. 그러면 즉시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진다."

—사고전환법에 대해 설명한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라마 소파 린포체 지음, 주민황 옮김). 값 5천원.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 티베트인인 중국인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을 진앙지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티베트인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안겨 주었다."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탐구한 〈티베트와 중국〉(김한규 지음, 소나무). 값 2만원.

산수화 보듯 고아한 禪의 세계

최병식 · 여한경 엮음 '괄허집'



"항상 만족에 있는 사람은 만족을 잃었는데도 또한 만족을 보느니라. 그러나 세상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항상 적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항상 많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고." – '만족과 불만족' 중에서 –

18세기 한국 불교문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괄허(括虛 1720~1789) 스님의 문집 〈괄허집〉 역주본이 도서출판 불광에서 출간됐다.

이 〈괄허집〉은 스님이 입적한 지 100년이 지난 고종 25년(1888)에 김룡사의 산내 암자인 양진암에서 유고를 모아 목판본으로 간행됐다. 이 목판으로 토대로 최근 출간된 역주본에는 스님의 시와 문 그리고 게송 등이 망라돼 있다. 스님의 사상과 문장을 오늘에 되살려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괄허의 산수시(山水詩)에 나타난 선'이란 논문을 쓴 이종찬(전 동국대 인문대학장) 교수는 추천사에서 "산수를 통하여 천리를 드러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괄허 선사의 시와 율문과 그 밖의 문장들은 모두가 뜻이 심오하고 고아하며 표현기법이 공교함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고려 4대 불교의례 심층분석 '눈길'

한국중세의 불교의례

우리나라 중세 불교의례에 관한 최초의 학술서인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문학과 지성사)가 나왔다.

고려의 국가 의례는 불교와 유교의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불교의례만을 분석한다. 글쓴이는 김종명(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그는 고려시대 불교의례 연구를 위해 '왕실(임금) 불교'에 초점을 맞춘다. 임금을 추축으로 한 왕실의 후원 아래 개최되었던 주요 불교의례들의 불교 경전적 기원과 의미, 의례 형태, 사회적 중요성, 의례의 특징, 의례 절차, 사상적 배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불교의례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한 것이다.

김 교수는 고려시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불교의례가 행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불교의례의 연구방법론을 비롯해 명칭 임금 재위별 불교의례, 대표적 불교의례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밝힌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얼마나 불교의례가 성행했을까. 글쓴이가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가〉 등을 바탕으로 도표로 정리한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70년 간 34명의 임금들 가운데 창왕을 제외한 33명이 불교의례 개최(연평균 2.08회), 가장 많은 의례를 개최한 임금은 숙종(연 6회), 연등회, 소재도량, 인왕(백고좌)회, 팔관회 등 97종의 의례 실시.



이 책은 또 고려시대에 가장 개최 빈도수가 높았던 소재(消災)도량을 비롯해 인왕(백고좌)회, 연등회, 팔관회 등 4대 불교의례에 대해서는 문헌적 기원과 역사, 특징, 절차로 나눠 깊이 있게 탐구한다.

특히 글쓴이는 마지막 장 '역사적 의미'에서 고려 불교의례를 '호국불교'로 간주해온 기존 학계의 통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달라이 라마家 인생유전 생생

김충현 옮김 '쿤둔'



"1933년 12월17일, 티베트의 동북부 탁세르 마을. 시장에 갔던 쵸꽁 체링은 정신 없이 말을 몰고 있었다. 그 가족과 이웃을 깊은 슬픔으로 몰아 넣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제13대 달라이 라마, 툽텐 갸초가 생을 마쳤던 것이다."

신간 〈쿤둔〉(메리 크레이그 지음, 김충현 옮김, 인북스)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죽음과 그의 환생자를 찾는 티베트 정부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

고위 라마승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라모 돈둡의 전생에 대한 기억을 시험한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생전에 사용했던 염주, 지팡이, 북 등을 정확하게 집어낸 소년을 쿤둔(kundun 살아 있는 부처)으로 확인된 어린 달라이 라마와 그의 가족은 티베트를 침략한 중국과 맞서게 된다.

그 동안 14대 달라이 라마를 조명한 책들은 여러 권 출간됐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달라이 라마의 부모와 4형제들, 2명의 누이들로 이루어진 달라이 라마 가족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작품이란 점이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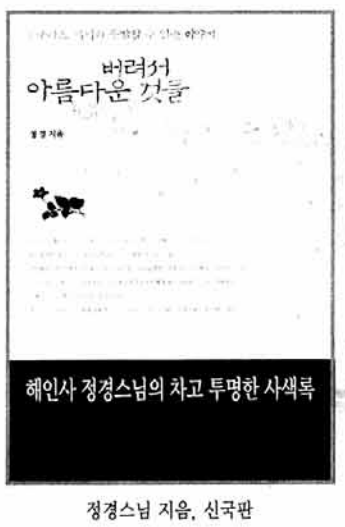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르쉬	청 하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4	한국의 불교의례	정 각	운 주 사
5	무심, 나는 진아다	대 성	탐 구 사
6	공자 노자 석가	모토하시 테쓰지	동아시아
7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8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9	생활수행 이야기	법 상	불 광
10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도서 안내:(02)737-0695

세상에는 버려야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해 · 인 · 사 · 정 · 경 · 스 · 님 · 의 · 차 · 고 · 투 · 명 · 한 · 사 · 색 · 록

버려서 아름다운 것들



정경스님 지음, 신국판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잘 봐야 내 몸에 행복을 담지."

복잡한 생활, 어지러울 정도의 관습들을 꿰뚫는
맑은 한 가닥 선이 두 눈과 정신을 관통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하기만 한
행복의 의미와 만나게 된다.
하나만 더 가지려는 것, 하나만 더 구하려는
그 탐욕을 놓아버리는 순간이라야
우리는 우리를 행복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게 된다.
하루 한끼 생식으로 20여 년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는
정경스님의 쇠처럼 단련된 언어가 '버리는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하남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BD 302호
전화 (02)720-3211 · 팩스(02)720-0312
http://www.hnp.co.kr * e-mail · hanam@hnp.co.kr

禪의 세계

극에 달한 물질문명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선과 21세기

담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가 몸소 체험한 선 이야기를 펜으로 옮겨 본았다.
극도로 오염되고 훼손된 정신세계의 복원과 인간성 회귀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요즘 들어 일기 시작한 고전 붐에 편승하기에 앞서 선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저자가 쉽고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해 놓고 있어
현대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안내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주리라 믿는다.



석원연 지음/값 6,600원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선방의 세계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봄직한 궁금증에 대한
해설서인 동시에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모든 현대인들의 교양서

함께 건너는 세상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화집

도서출판 들꽃누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 4층 전화 02)3672-1387 팩스 02)762-1387 E-mail : draba21@dreamwiz.com

용인지역 4개 절터 새로 발견

조계종 발굴조사단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

용인지역에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가 밝혀졌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혜자 총무원 문화부장)은 지난 해 5월부터 용인 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단순한 불교유적 현황조사가 아니라 용인 지역 불교사 및 불교유적의 특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지역 불교유적 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굴조사단으로서도 지난해 〈북한산의 불교유적〉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다.

조사단이 확인한 용인 일대 전통사찰 및 절터는 모두 24개. 이는 1942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수록된 22개보다 많은 것이다. 또 이 일대에는 미평리 석불입상, 가창리 석불입상, 두창리 삼층석탑 등 20개의 불상 · 부도 · 탑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미 알려진 절터 이외에 4개의 절터를 새로 발견했다. 조사단은 이번에 불당골, 절골말로 불리는 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하갈리사지, 공세2리사지, 덕성리사지, 상현2리사지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고문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절터 2개를 확인한 것이다. 고림리사지와 송전리사지는 그 동안 위치만 알려졌을 뿐 옛 기록이 없어 창건연대 등을 알 수 없었으나 유물 분석 결과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찰임을 밝혀냈다.

송전리사지로 불리는 절터의 이름을 확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암막새 기와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한 결과 이 절터가 1448년에 새워진 도립사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장 혜자 스님은 "현장 정밀 지표 · 실측조사를 통해 불교문화재, 사찰터, 주요 사찰에 대한 상세한 현황기술과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한 실측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과 훼손에 따른 보존의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찰터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0곳이 기본적인 학술조사 없이 파괴된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 불교유적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어비리사지(금단사지)와 두창리사지, 천리석조여래입상이 있던 곳 등이 저수지가 생기는 바람에 수몰된 것을 확인했다. 양지리사지, 송전리사지, 상현2리사지 등은 골프장 건설과 건물 신축 등으로 파괴됐으며 4곳은 경작과 주택지 등으로 현장 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1942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보다 불탑은 3기, 불상은 무려 99구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난개발에 따라 조사도 없이 불교유적이 파괴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땅 속에 묻혀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물의 경우 더 많이, 쉽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양지리사지 주변 공사현장.

골프장 건설 – 건물신축 등 난개발 10여곳 학술조사 없이 파괴

"미륵신앙은 사회변혁 이념"

윤승용 씨 '미륵신앙과 청정사회' 논문



"불교학계나 인문 · 사회학계는 미륵신앙을 현대 사회의 변혁 이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사진)씨는 2월 27일 제3회 미륵사상학술대회에서 '미륵신앙과 청정사회'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의 미륵신앙이 불교나 민간신앙, 신종교 등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 윤씨는 "학계에서는 그 특성 간의 차이 · 공통점을 연구하고, 동시대 미륵신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회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미륵신앙은 현대화되고, 모든 단체와 계층을 아우르는 희망불(希望佛)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결론에서 "학계의 노력으로 새롭게 다듬어진 미륵신앙은 개인의 업(業)과 사회의 공업(共業)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사회윤리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원각경은 禪經 아니다" 조윤호 씨 주장

"사상적 기반 여래장 사상"



〈원각경〉은 〈좌선삼매경〉이나 〈달마다라선경〉 등과 같은 의미의 선경(禪經)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원각경〉은 선경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36차 월례발표회에서 조윤호(전남대 철학과 강사 · 사진)씨는 "비록 선불교와의 관련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선종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성립한 선경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기존 불교계의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각경〉을 선경으로 분류해 왔던 불교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우선 〈원각경〉이 한국불교에 소개, 유통되었을 때 여래장 사상이 풍미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원각경〉의 사상적 기반은 선(禪)보다는 여래장 사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원각경〉이 선경으로 알려진 이유를 "원각이란 용어는 선불교를 중심으로 널리 일반화되어, 본래성불(本來成佛)의 개념과 같이 선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즐겨 원용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단신

미륵사지 홈페이지 개설

백제 무왕(660-641)때 창건된 전북 익산면 금마면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게 됐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최근 미륵사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mireuksaji.org)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전시돼 있는 각종 유물 143점과 전시실 안내, 미륵사지 발굴과정, 미륵사지 창건설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북도는 26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안동 용수사 대정삼년명 금동고' 등 11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2년 전 용수사 중창불사 때 발견된 '대정삼년명 금동고'는 1163년이란 제작연대가 기록돼 있다.

이밖에도 △안동 용수사 금호비 △영천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 △경산 불굴사 석조입불상 △의성 중율리 석불좌상 △울릉도 수토관 관련 각석문(3건) △고령 죽유종택 △청도 동헌 등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과연 실화일까 설화일까

의상과 선묘 이야기

도업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



중국불적답사팀의 일원으로 청도행 비행기를 타면서 필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에 얽힌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니면 설화인지 하는 점이다. 또 실화라면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설화인지 궁금했다. 실화 반 설화 반이라면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다.

왜 '당신라국의상전'인가

다른 하나는 〈송고승전〉을 쓴 찬녕(贊寧: 919~1002)의 당시 국가 의식 내지 선묘 연사(戀事)에 관한 시각에 대한 것이었다.

찬녕은 신라의 화엄법사 의상과 당나라 선묘낭자에 얽힌 구도와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제목을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이라 붙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라국의상전'이라 함이 당연할 것 같은데 찬녕은 왜 당(唐)이라는 글자를 앞에 붙여 '당신라국의상전'이라 했을까. 당나라 의상의 전기라는 뜻인지 신라의 의상전이라는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찬녕은 왜 그랬을까?하는 의문이었다.



◇의상대사가 입항한 곳으로 알려진 등주항의 모습. 그 뒤로 선묘설화가 얽혀 있는 봉래각이 보인다.

청도에 도착해서 고려정관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적산법화원을 돌아보면서도 내 머리 속에는 왜 그랬을까? 의상과 선묘낭자 얘기는 과연 꾸며진 설화일까? 1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설화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까?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선묘화룡(善妙化龍)의 설화는 왜 만들어졌고 그럴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주(登州)에 가면 찬녕 스님이 그렇게 기록할 만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찬녕 스님이 '당신라국의상전'이라 제목을 붙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으로 내 머리 속은 꽉 차있었다.

2000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27일 정오가 한참 지난 시각에 봉래(逢萊)시에 도착했다. 동지섣달 설한풍에 비까지 내리니 여행자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661년 어느 날 화엄을 배우겠다는 구법 일념으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낯선 등주로(登州路) 거리를 헤매다 불교신도인 유지인(劉至仁) 거사 집에서 객고(客苦)를 달랬을 의상스님을 생각하니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다.

650년경 신라불교는 한창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꽃봉오리였다. 원광, 자장과 같은 선구자가 구법을 하고 돌아와서 불법을 전했지만 아직 화엄의 꽃이 만개하지 못했었다. 원효와 의상은 불화엄(佛華嚴)의 꽃을 피우고 볼과(佛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650년에 입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제2차로 구법의 길을 떠났으나 원효는 중도에서 자각(自覺)의 법희(法喜)를 맛보았고, 홀로 남은 의상은 초지일관의 뜻으로 외롭고 험난한 뱃길에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모습을 〈삼국유사〉에는 "영휘 초년에 (의상은) 마침 당나라 사신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으므로 그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처음 양주(揚州)에 머무르니, 주장(州將) 유지인이 의상을 관청안에 머무르게 하고 대접하는 것이 매우 성대했다"(〈송고승전〉에는 총장 2년에 장사배를 타고 등주의 해안에 도착했다고 되어있다)고 전하고 있다.

등주에 도착한 의상 스님

이 곳 등주에 도착한 의상은 재가 불자인 유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 곳의 불법에 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지상산으로 가는 길을 묻기도 했을 것이다. 지상산 지엄 스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그에 대한 정을 더욱 다져갔을 것이다. 그러다 지금 봉래각이 있는 이 곳 해안에 올라 동쪽으로 신라를 향해 삼배예불을 드리기도 했을 것이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1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화엄경 대강좌

한정섭 법사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약찬게 · 법성게 · 세주묘엄품



정규반(50명)	3월 5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화엄경 제1회인 보리장회의 장면을 묘사한 세주묘엄품에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룸과 동시에 비로자나불인 법신과 한몸이 되었다. 이어 수많은 보살과 호법신중들의 세존의 정각의 덕을 찬탄하다. 약찬게는 화엄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상스님의 법성게는 화엄경 사상을 압축요약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화엄경 세주묘엄품 · 약찬게 · 법성게
- 화엄경 십지품
- 화엄경 입법계품
- 화엄경 보현행원품 · 여래출현품
- 대승불교사상(불 · 보살사상)
- 보성론(여래장사상)

박종 교수

관세음보문품 대강좌



정규반(50명)	3월 6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구제원력과, 32방편의 보문시현으로 중생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가슴에 새겨 전법활동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화경 제17분별공덕품에서 ~ 제28보현보살권발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법화경 방편품
- 법화경 여래수량품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비교종교론
- 금강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대강좌



정규반(30명)	3월 8일
통신반(30명)	오후 4시 개강

근본불교란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 초기 경전군들인 아함-반야-법화-화엄-정토로 이어지며, 아함경과 대승경전을 아우르는 최봉수 교수의 명쾌하고 전후내용이 일목요연한 대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근본불교 연기설
- 반야사상(금강경)
- 화엄사상(십지품)
- 법화사상
- 정토사상(무량수경)
- 근본불교 업설

송찬우 교수

불교경전 통신 대강좌



통신반(30명)

십여년동안 부처님의 주옥같은 한문원전강좌를 열어 경전의 깊은 묘리와 심심이 묘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송찬우 교수님의 경전통신 대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통신대강좌 A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능엄경 1,2권 · 능엄경 3,4 · 능엄경 5,6권 · 능엄경 7,8권 · 능엄경 9,10권

통신대강좌 B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유마경 · 원각경 · 육조단경 · 조론 · 대승기신론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본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06~8/FAX 02)732-1207

http : www.dongsanbud.org

수많은 절을 지었다해도 공덕은 '無'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㉒

㉑ 양 무제와의 만남

양 무제는 출가한 일도 세 차례나 있었던 만큼 불학(佛學)에 대한 연구도 깊었다. '열반(涅槃)' '대품(大品)' 등의 저서를 출간하여 방방곡곡에 퍼트렸다. 문무백관과 백성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무제의 신심과 높은 학덕을 믿고 따랐다.

무제는 명실공히 이 나라 불교의 정상(頂上)이고 중심(中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고승(高僧)들과는 문답을 주고받게 마련이었다. 달마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달마는 무제의 지나친 총명과 교만이 염려스러웠다. 자칫 한 차례 설전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달마는 잠시 생각했다. 비록 스승 보리다라의 명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서천 28대조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이 곳까지 온 까닭은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一)의 진법(眞法)을 회귀시키는 데 있지 않은가? 문득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의 마음은 바다를 뒤덮고 하늘을 품어 안았다. 그는 환한 얼굴로 일어서서 무제를 향해 합장하며 읍을 했다.

"노납이 우매하오나 감히 성상께서 질문을 해 주시지요."

"좋소!"

무제는 큰 소리로 웃으며 화답했다. 그리고 내관들에게 명했다.

"음식을 올려라."

"자, 한잔 드시지요"

미리 준비해 놓은 황금빛 쟁반엔 술잔과 술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채로 안주가 한 상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무제는 내관에게 술을 따르라고 이르고 직접 술잔을 받아 달마 조사에게 바쳤다.

"조사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한 잔 드시지요."

달마 앞의 술잔에선 흰색의 술거품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을 바라보는 달마의 낯빛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정각, 법광과 문무백관들은 아연 긴장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술을 먹는 것은 불가의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믿고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늘 조사에게 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달마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달마가 어찌 그런 것을 모르겠는가. 그는 말없이 한참 동안 술잔을 바라보다 슬그머니 웃음 지었다. 제(濟)를 가지고 선(禪)을 시험해 볼 심산이었다. 달마는 서슴없이 술잔을 들고 말했다.

"특별하신 배려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한 입에 술잔을 비웠다.

무제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원들은 금새라도 무슨 일을 낼 듯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구석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마저 들렸다. 다만 무제가 아직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아 감히 앞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무승 철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달마의 술잔을 향해 돌을 날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크게 놀랐다.

"수행은 마음을 맑게하고 自性을 보아야 하는 것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달마는 기다렸다는 재빠르게 승복의 소매로 돌을 받아 냈다. 그는 철타를 바라보면서 돌을 꺼내 도로 던져 주었다.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긴장, 충격, 놀라움이 뒤범벅이 되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철타는 돌을 받아 들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그란 돌멩이가 달마의 손아귀 속에서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돌 위에는 지문까지 뚜렷하게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철타는 무승답게 의젓하게 응수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달마를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금릉의 술맛이 어떠신지요…."

달마는 빈 술잔에 스스로 술을 따라 벌컥 들이킨 다음 대답했다.

"좋은 술입니다. 아주 좋은 술입니다. 노납이 정말 먹을 복이 있나 봅니다."

철타는 이런 달마의 태도가 너무나 방자하다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폐하께서 시험 삼아 술을 권했기로서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계율을 어기는 중이 어떻게 조사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달마 앞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당신이 설마 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오. 이게 무슨 짓이오!"

철타는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힐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달마는 오히려 웃는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몸을 일으켜 합장하며 철타에게 물었다.

"그대의 법호는 무엇이오?"

"철타라고 하오."

"아, 그래요."

달마는 철타를 정면으로 보면서 말을 이었다.

"철타라면 동태사의 무승인 철타가 아니오?"

이 말에 철타는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 늙은 중이 어떻게 내가 동태사의 무승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철타의 마음을 읽은 달마는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날렸다.

"노납의 말에 개의치 마시오. 그저 추측해 본 것일 뿐이오. 생각해 보시오. 성상께서 세 차례나 동태사에 사신(舍身)했는데 무승을 뽑아 호가(護駕)하려면 어찌 동태사에서 뽑지 않을 리가 있겠소?"

"조사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제야 무제가 위엄 있는 소리로 말했다.

달마는 술잔을 들어 철타와 문무백관 앞에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불가의 여덟 가지 제계(齊戒)를 모르겠소. 더군다나 금루의 계를 지키지 않을 까닭이 있소. 그러나 오늘은 경우가 다르오. 성상이 내려주신 술을 내 어찌 사양하겠소. 내가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심성(心性)이 명징(明澄)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면 술 따위에 너무 속박될 것도 없다는 것이오. 또 술은 사람들의 생계의 근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오."

달마의 말에 이번엔 무제가 반박했다.

"조사, 당신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소. 불가에서 계를 세운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정과(正果)를 이루자는 것이 아니겠소. 설마 천축의 선종은 계율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달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종은 마하 가섭 존자가 영산회상에서 세존의 염화시중의 가르침에서 도리를 깨달은 이후 불립문자(不立文字)와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전통을 세운 후 여러 대에 걸쳐 이심전심(以心傳心)하여 왔소이다. 마음으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외다. 팔계의 계율은 사람들이 출가하지 못하여 성불할 수 없음을 걱정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이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오. 단지 표상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일 뿐 본질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외다. 그것은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달마의 이 말은 그야말로 선(禪)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무제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덫이나 진배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사설(邪說)이다. 집어치워라."

무제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일찍이 조칙(朝則)으로 금주(禁酒)를 선포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달마의 주장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황제의 뜻을 아는 관원들이 길길이 날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제 스스로도 자칫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해 마지않았다.

무제는 불문(佛門)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외도(外道)에 속하므로 엄히 규제돼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심지어 '금주육문(禁酒肉文)' 즉 '술과 고기를 금하는 글'까지 써서 반포했을 정도였다. 이 글은 마치 경전처럼 숭상되었다.

이 글에서 무제는 술을 악(惡)의 뿌리이고 '술을 마시는 것은 마사(魔事)라고 규정했다. 술이란 쌀과 물이 혼합하여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쌀도 정체(正體)를 잃은 것이고 물도 정체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죄업의 인연으로 이 나쁜 물을 마시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감로(甘露)의 맛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마땅히 음주를 금해야 하며 그것을 어기는 자는 파문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제는 나름대로 수양의 경지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관원들의 소란을 제지했다. 짐짓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마에게 말했다.

"짐의 무지를 용서하시오. 조사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소. 부디 자세히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라오."

달마는 마음 속으로 기뻐했다. 무제의 이런 태도가 대견스러웠다. 흔히 생각하는 임금과는 완연하게 다르다고 믿었다. 비록 선의 이치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불의 성실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여겼다.

달마는 무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진정으로 선법을 전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간곡하게 말했다.

"성상께 삼가 아뢰오. 노납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예불은 마땅히 마음에 있어야지 입에 있는 것이 아니오.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자성(自性)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표면적인 것이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는 조사의 마음과 입, 내면과 외면의 설법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달마의 말이 너무 고매하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침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싶었다.

"다시 조사께 여쭙겠습니다. 짐은 지금까지 경건히 부처를 모시고 수많은 절을 지었소. 불교의 경전도 많이 펴냈고, 수많은 승려를 길러냈소.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덕의 보답이 있을 것인지 조사께서 한 마디 가르쳐 주기 바라오."

그림자를 좇아다닌 것

보리달마는 무제가 전혀 깨닫지 못하자 적이 실망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것은 전혀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무제는 그 대답에 도리어 어리둥절했다. 볼쾌한 말투로 응수했다. 모든 신하들의 표정도 얼어붙은 듯 싸늘해졌다.

"무엇이라고? 어째서 그렇소? 짐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많이 베풀었는데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달마는 부드럽게 응수했다.

"성상께서는 노납의 입에서 공덕이 있다는 대답을 기대하셨을 테지만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찌꺼기라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은 세속적인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상처럼 그렇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시시한 소과(小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행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은 그림자를 좇아다닌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회 안내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 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회 법당(강남구 개포3동 주공5단지 Apt.)
- 내 용

첫째주 - **정병조** 박사의 육조단경 강좌	둘째주 - **권기종** 박사의 아함경 이야기
셋째주 - **인환** 스님의 선불교 산책	셋째주 - **김상현** 박사의 한국불교사상사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산실 —원효학당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과정 ○○명
- 모집기한 : 2001년 3월말
- 강의과목

사기열전 (**진성규** 교수 · 중앙대)	화엄경십지품 (**송찬우** 교수 · 중앙승가대)
무량수경 (**정병조** 교수 · 본원 원장)	법화경 (**권탄준** 교수 · 동국대)

☎ 02-3411-6167-8 / 지하철 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키우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
피로
이제 매일 매일 푸십시요...
돌침대전문 리빙스톤의 2001년 히트상품!
금강약돌 리빙스톤 안마 찜질 방

◆ 지압 맛사지로 전신에 기(氣)와 활력(活力)을!
◆ 16가지 기능으로 온몸을 안마 맛사지 하십시요
◆ 부위별로 맛사지 해주세요!!(15분간)

싱글 (950×2000) 금강 맛사지 101 / 육각 맛사지 103
더블 (1400×2000) 금강 맛사지 201 / 육각 맛사지 203
참숯육각 매트 701
참숯금강 매트 703



북한이 자랑하는 三大 명산품
금강약돌, 개성인삼, 신창버섯
원적외선 방사율 96% 최고율

리빙스톤 금강약돌 안마 - 찜질방 효과
◆ 맛사지와 지압 효과 - 지친 신경조직 강인하게!
◆ 혈압, 동맥경화 순환기 기능에 최고의 효과 - 경직된 혈행을 원활하게!
◆ 근육피하조직 지방막을 터뜨려 군살제거, 체중감소 효과 -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지역사업부
영 천 054-334-3551
남양주 031-595-0108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절에서 '봄 향기' 느껴 보세요

답사회 · 여행사 사찰순례 상품 인기

소록소록 찾아오는 봄을 따라 절집 나들이를 해보자는 유혹(광고)이 부쩍 눈에 띄는 때다. '동백꽃 여행' '일출여행' '산사체험' 등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꽃피는 춘삼월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겸해 찾는 산사 체험은 사색과 자기 성찰의 기회도 되므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10년째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적을 테마로 한 답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터사랑'은 봄기운이 퍼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많은 답사회와 여행사들이 사찰 순례를 테마로 잡고 여행 상품을 속속히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씨투어의 국내담당 김성인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은 불교적 바탕 위에 형성된 것들이고, 전국의 유명한 산사는 경치가 수려한 곳에 위치해 여행 상품 계획을 짤 때 사찰 한 곳쯤은 반드시 넣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다른 종교 신자나 일반인들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을 찾으면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맑은 공기를 들이키며 사색의 시간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 관광객들도 사찰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치좋고 불교 문화재도 감상

장소 다양화 · 가이드 확보 과제

하지만 사찰 답사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돌아온 관광객들의 불만도 적지는 않다. 교계의 전문 답사회를 따라 사찰을 답사했는데도 사찰의 문화재와 불교 유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겉모습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멘 소리를 낸다.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4차례 정도 사찰 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해 봤다는 김미선(진선여고 2년) 양은 "아는 만큼 느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기 위해 수첩까지 준비해 갔는데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는 바로 수첩을 덮어 버렸다"며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강의 능력이 있는 전문 안내자를 섭외해 여행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계 일각에서는 장소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찰 선정에 있어서도 각 답사회마다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포교와 여행의 질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교계나 일반 여행사의 사찰 관련 상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한 대규모 사찰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답사 프로그램을 따라가 보면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방 식상해 진다고 답사를 다녀온 많은 참가자들이 입을 모은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계의 답사 단체들이 질 높은 사찰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내놓는다면 사찰 여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포교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답사를 가서 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객들.

주부 신행담

금강경을 외우며 (上)

〈금강경〉 독송을 통해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매일 새벽 '바른법연구원' 법당에 나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 몸은 몹시 가벼워졌고, 마음 역시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한 환희심에 가득 차 있다.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를 정도다.

내가 하는 공부란 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無量衆生,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다 바치고 나면 실로 모든 생각이란 것이 본래 없음을 알 것이다(如是滅度無量衆生實無衆生得滅度者)" 란 부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공부다. 이 말은 즉 탐심 · 진심 · 기쁨 · 슬픔 등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분별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 온 마음을 바쳐 분별망상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글귀는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처음부터 이 구절이 왠지 친밀하고 흐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침착한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되곤 했다.

이러한 나의 생활 태도는 누구보다도 "부처님께 모든 생각을 바치고 나면 분별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알 것이라는 말"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더더욱 〈금강경〉 독송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그림 · 이준석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한 줄 몰라

고맙게 느껴져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즐거웠다. 누가 부탁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음에 무척 기뻤고, 받은 사람이 유용하게 쓰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배가되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남의 돈을 꾸어서라도 빌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내 성품 탓에 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생활비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그로 인해 때때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번민에 휩싸이는 것은 잠시뿐,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태평스럽게 지내자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나의 행동 때문에 남편 속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걱정할 일이 뭐 있어, 물

새벽의 금강경 3회 독송으로 나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한다. 석가여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독송을 마치고 나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그전의 신행 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했던 기쁜 체험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다보면 대부분 저녁때까지 생활도 즐거움의 연속이 된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뒤부터 잠도 많이 줄었다. 일부러 잠을 줄이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3시간만 자도 몸과 마음이 개운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수행인들은 마땅히 잠을 적게 자고 말을 적게 하라고 가르치셨다는데 아마도 스님이 살아 계셨으면 칭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웬일인지 잠을 적게 자도 하루종일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눕고 싶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신은 더욱 맑고 상쾌했다. (계속)

김초심행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윤제학 기자의 손 이야기 ⑪

■ 주부습진

아직도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가 완강히 똬리를 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부'라는 말은 '굴레'로 읽히기 쉽다. 전업 주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실 '전업 주부'라는 말도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답



시고 만들어낸 말이 '전업' 주부인 것 같은데, 남자인 내가 들어도 알량하기 그지없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유폐되다시피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이 고작 '전업'이라는 호칭의 선사라니. 이건 숫제 '가사도 어엿한 〈업〉이라고 생각해 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다고 과연 주부들이 위로를 받을까? 어쨌든 한 가정에서 주부의 몫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

이런 주부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을 고르자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주부습진'이다.

흔히 주부습진의 주원인을 세제라고들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끝없이 재발하는 데도 별 의심도 없이.

세제가 주부습진의 유일한 원

목등 피돌기 이상 문제

약보다 운동이 해결책

인은 아니다. 세탁기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도 그런 증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얘기다. 피부의 스트레스를 인체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과 어깨와 팔의 혈행 이상이 문제다.

주부들이여, 운동하시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에 좀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라.

김현진 양 만해백일장 대상

단체상 한마음 선원 · 안양예고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과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 · 1 민족독립운동 82주년 기념 제22회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초 · 중 · 고 · 대학생과 일반인 1000여 명이 참가해 '눈(雪)' '만남' '나눔' '만세소리'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올해 백일장에는 3대가 함께 참가한 이원옥(75 · 서울 동대문구)할머니 가족 등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 할머니는 "작년에 참가한 손녀의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왔다"며 "상은 아무도 못 받았지만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눠 진행된 백일장에서 만해대상을 수상한 김현진(창원 중앙여고 3년)을 비롯해 10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안양예고와 한마음선원이 받았다.

'부처님과의 만남'을 주제로 만해대상을 받은 김현진 양은 "할머니 지장재일에 절을 찾으며 할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마음을 소설형식을 빌어 표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대불련 새내기 포교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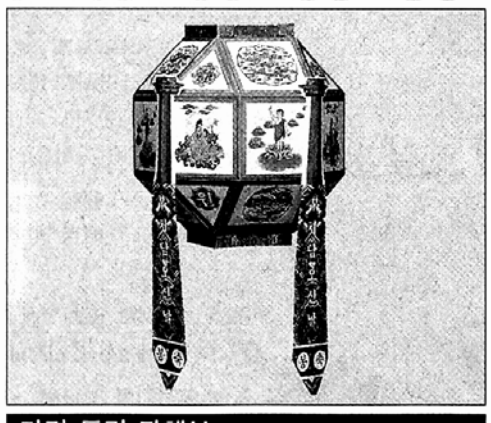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2월 19일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대학생 새내기 포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새내기 포교팀을 새로 구성한 대불련은 이 달 초까지 설문조사와 지회 상황파악 등을 토대로 한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인 새내기 포교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불련 홍보지 발행하고 버튼과 배지 및 CD를 신입생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또 군입대생과 휴학생 포교를 특별 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전역이나 복학 후에도 대불련 활동을 계속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어린이 연극교실 열어

경주 신라문화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연극교실'을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연극교실은 연기지도 위주에서 탈피해 심성계발과 발표력 향상, 대인관계 훈련 등 어린이들의 심성교육 훈련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참여 방식도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054)746-1950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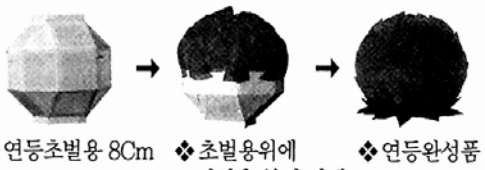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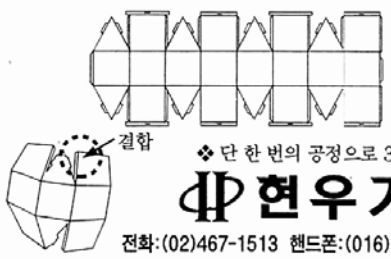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업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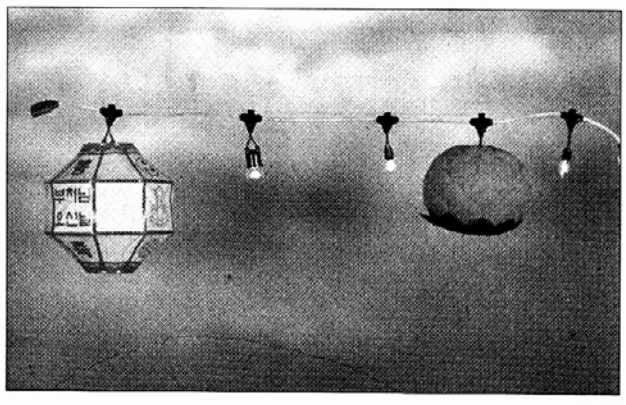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삼보봉축행사용 연등전선〈케이블〉



등 간 격

▶ 30cm, 50cm
▶ 1M, 2M, 3M
※ 간격은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불교행사 사찰용품일체

삼보전선만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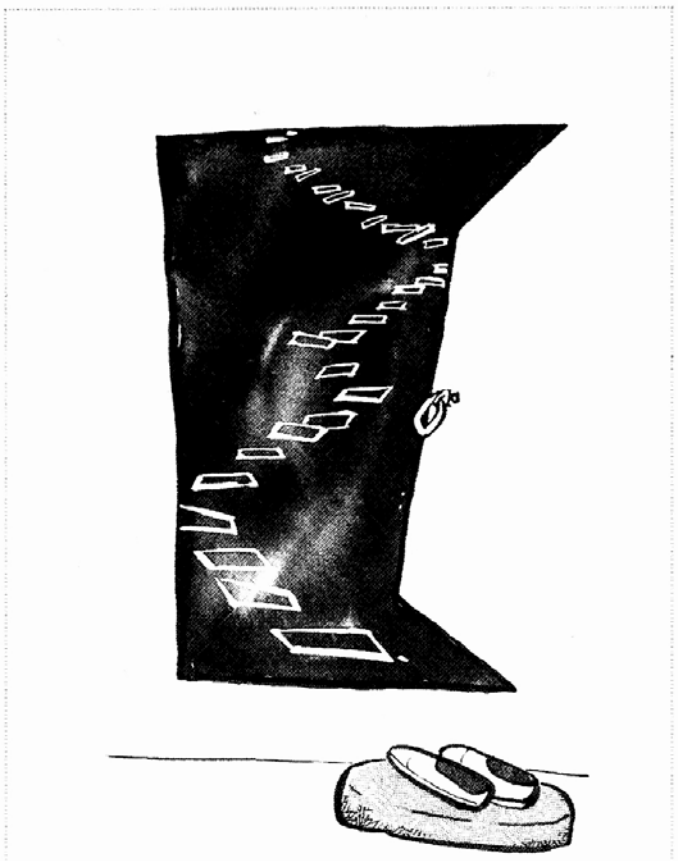
물에 타지 않는다.
인장강력이 강하다.
기존전선보다 무게가 절반정도이다.
개폐 고리가 있어 설치가 용이함.

(주) 삼보기획

☎ 031)972-5056 〈Fax겸용〉, 011-327-5056
031)987-5316, 011-206-02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499-4

삼세를 둘 아니게 보고 공굴리는 도리

오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되니 새삼 기쁩니다. 눈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조심 하셔 야죠. 어른, 아이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눈 온 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눈이 딱 뭉쳐서 함박꽃이 희게 피고, 전후사를 다 덮었으니 뾰족한 게 안보이죠. 억울한 것도 보이지 않고 악초도 보이지 않고 선초도 보이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온 산에 눈 온 것을 볼 때 하얗게 덮였으니 악초, 독초나 나쁜 초식이 없고 이젠 공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연줄이란 그게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내면처에 공 마당을 만들어야 할테니까요. 공이 있어야 공을 치죠.


그림 · 최주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방귀 씨를 얻었느냐고요. 귀신 방귀 씨를 얻지 못하면 공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개인이 못 났든 잘 났든 다 가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억울하고 누가 덜 주고 더 주고도 없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한 치도 움죽거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하고 자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거기에 미묘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마음이 둘 아니게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했듯이 죽어야 나를 본다, 이런 말을 했죠. 완전히 보려면 세 번 죽어야 나를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눈이 덮이면 아주 깨끗하죠. 조금이라도 납득이 돼서 마당을 골라서 공 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그게 도리천하고도 둘이 아니요, 삼세하고도 둘이 아니요, 우주 천지 삼세가 다 둘 아니게 공 굴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니 공이 굴려지지를 않거든요. 하다 못해 밭에 초식을 심으려고 해도 굵은 돌은 골라내고 호미로 김을 매고 심어야 제대로 먹는데, 하물며 일생을 공부해서 세세생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를 못 버려 사단 생겨

우리가 살면서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나를 버리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것을 나를 버리지 못해서 모든 결과가 벌어지고 말죠. 지금 우리 스님들이나 여러분이나 공부하는 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더 한층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공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움죽거리고 있는 사실은 말을 못합니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애가 죽게 됐다고 하길래 그 아이를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서류를 다 없애야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승에 가서 그 서류를 세 군데에서 받아서 다 해결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야 나를 건지지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를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공생이다, 우주 천지 삼세가 다 어우러져서 공생이라는 겁니다. 적게는 내 몸 하나가 공생이지만은 크게는 우주 천지 삼세가 다 어우러지는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자리부터 만들어야 자꾸 거기다, 즉 말하자면 한 군데에다가 일거수 일투족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오색이 영롱한, 세상 천지를 뒤집는 색색가지가 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불로 가면은 위 부처님으로 하나가 되고, 자로 내려오면은 법으로 하나가 되는 도리를 생생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서, 이거는 대신 누가 공부해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만이 자기가 앉았는지 섰는지 누웠는지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좌선을 하다가도 오줌을 눈다, 똥을 눈다 그러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지가 둘 아니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선도 둡이 아닌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앉기만 하면 참선인 줄 알고, 서면 참선이 아닌 줄 알고, 또 일을 하면은 참선이 아닌 줄 알고, 누웠으면 참선이 아닌 줄 알거든요. 거 참 공부하기가 편리하고 좋다고 내가 말할 때 보면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다 못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든지 변소에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생명의 근본을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인 모습은 정신적인 모습 없는 자기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둘 아니게 만드는 요리죠. 그 요리를 못하면은 진짜 수행자도 못되거니와 부처님 도량에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거짓으로 하지말고 진짜 진실로서 한발한발 딛는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올 때도 한발한발 딛고 들어오지만 딛고 들어오는 그 발자국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 가끔 해 드리죠.

이 소리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 마산에서 어느 분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적었다고 하면서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지가 꽤 됐는데도 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좀 넘겨봤어요. 넘겨보니까 공치는 소리는 안 나고 공치는 소리를 그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을 쳤으면 친 거는 결정이 나더라도 함이 없이 결정을 해야 하고 함이 없이 해야 하는 도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이고 할 사이가 없죠. 말하고 할 사이도 없고 그리고 할 사이도 없고, 난 이렇게 한다 그럴 사이도 없고,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 한 찰나에 할은, 옛날에도 천둥이 온 사방, 오방에서 천둥이 솟구치지만, 그게 법의 음성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한다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허사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꼭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못하든지 하든지 자기 발자국은 자기가 떼 놓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들 아닌 줄 알아야 하고, 색색가지로 찰나찰나 변화하는데 그거를 받아 들여서 해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 **내가 죽어야 나를 보는 법인데**
> **내가 한다 내가 산다 생각하니**
> **정신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탑 세워놓은 데도 그래요. 그거 몰라서도 안되지만 뜻을 모르면 사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뜻을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영령들이 되거나 말거나 샀으니까 팔았으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잘못하면 몇 대가 손해를 보는 거죠. 종자가 한 종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양자로 가고 뭐 하고 해서 위 조상들이 뒤바뀌어 가지고, 양자로 갔으니까 본가도 해야겠다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때가 있어요. 냉정해야 하는데. 자손 없는 데로 양자를 갔으면 그쪽 조상들만 모시고, 그 쪽으로 간 사람은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양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은 자손들이 부모는 모시고 해야, 아주 간단히 조상들이 다 정돈이 되죠. 얽히고 설키면 뒤죽박죽이 돼서 이리로 가도 안되고 저리로 가도 안되고 산 사람도 뒤죽박죽이 되면 안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그거 찾습니까? 찾아도 인정을 해 줍니까? 인정을 안 해 주는, 상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몇 대 손을 잘못 살게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내 분수껏 살다가 차원대로 나와도 고생들을 하는데 법원에서 말씀 한마디만 잘못했다 하면은 얼마나 치욕을 받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

그러니깐 여러분은 꼭 자기 지금 현재 모습은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모습은 공했으니까 안보이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대신 누가 살아주는 사람 없고 대신 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꼭 찾아야 하고 또 그 놈이 둥자도 됐다가 비구니도 됐다가 비구도 됐다가, 별의 별 다 바뀌어서 됐다 하더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바뀌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도리를 똑바로 알아야 남한테 이익이 가고 나도 이익이 있죠. 왜냐? 그렇게 되면 속이 안 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께 시주하던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줬다든가 해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거저가 없다는 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내 돈을 주니까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번 한 생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 내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가. 그래서 절대로 이 모습으로 남을 건지겠다고 나오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모습이 필요한 거지 정작 일 하는데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면에 공치기 운동 마당을 해 놓고 나면은 귀신 방귀 씨를 하나 얻는다. 얻으면은 그걸 또 먹여서 키운다는 것은, 왜 키워야 되느냐? 자기를 키우는 거죠. 키워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구석구석, 우주 천하 삼세 둘로 보지 않고 공을 치려니까 꼭 해야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상난 집에 들어갈 때 관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관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죠. 당장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 없어야 하니까, 물론 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요령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남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훔쳐갈 건 없지만 관하고 나가서 하루 저녁 자고 들어 왔는데 아무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고 관하지도 않고 나갔다 들어 왔는데 도둑이 들어서 홀딱 다 쓸어 갔더랍니다. 그것도 가르침이죠. 관 했을 때는 안 가져갔는데 관하지 않은 날은 왜 그렇게 가져가게 되었느냐. 가져 간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요, 안 가져가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주인공 하나가 수십 가지로 화한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라고 한다고 하나인 줄만 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자1: 제가 부처님의 감로법을 느끼면서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을 뵙기까지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시켜온 저의 주인공 자리에 눈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능성 소화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장자 자리를 붙잡고 붙을 사이가 없는 그 질병과 업식을 녹이며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행회 회원들은 대부분 초심자들이어서 주인공 자리에 관하고 정진하면서 가는데도 때로는 입으로만 눈으로만 행하여지고 진짜 놓고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초심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법문 청하옵니다.

▲스님: 예전에는 한발 떼어놓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냥 발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두 법문이 다 녹음되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24시간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니까, 내 몸이 송장인데 주인공 자불이 생명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를 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앉고 서고 일하는 거 모두가 참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들 힘들어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만 내면에 정말 호미로 공 마당을 만들려면 자꾸 거기다가 놓고 가야 그것이 더불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게을리 생각 마시고 몸은 앉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몸은 비록 앉았으나 마음은 뛴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뛰지 않으면 안되죠. 뛰지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송장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2: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마음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스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주인공에 관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선원에 온 지는 4년 되었습니다. 저는 선원에 오기 전 마음을 잃고 방황하던 때 어느 보살이 법회가 있다 길래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니 통영지원의 주지스님 법회였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은 모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선원에 오게 된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선원에 와서 예불이며 선법가를 부를 때면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 아프게 산 삶이 허무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너무 가슴이 메었습니다. 또 그러다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스님께서 내 육신 고기 덩어리를 믿지 말고 자기 주인공 믿으라 하시는 말씀에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지원의 두 분 스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때로는 엄격하신 가르침 속에 한 발 두 발, 한 해 두 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고 있었어요. 힘이 솟아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두려움 없이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솟았습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대처

지난 겨울 예불하는 데 신경성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무서워서 어찔 줄을 몰라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뿌리깊은 고목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좋은 법을 펼쳐주시어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요즘 들어 제 마음이 녹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녹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있는데 그 아이 가졌을 때 충격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교가 중요한 걸 알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원 스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올라오는 마음이 없길래 녹아졌나 했는데 그 아이가 나약하고 자주 아픈 걸 보면 저 때문에 아픈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 아이와 제가 어떤 마음을 내야 마음의 상처를 다 녹이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저희 시댁의 종가집인 큰댁은 기독교입니다. 큰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제사를 모시고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사를 극진히 모시는 분이라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모셔 올래도 시아주버님께서 안 주실 거고 만약 큰집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같은 날 집에서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 차후의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첫째 여러분께서 내 몸을 버리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어요. 내 몸을 버리면…, 버릴 수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상 문제인데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주인공 하나가 수십가지로 화해 돌아

☞ 19면에서 계속

릭교를 믿든지, 어른들이 믿든지 형제들이 믿든지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형님이면 형님과의 말 끝에 주처는 모두 개개인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집안이 잘 되지 않소, 하든지 또 손아래 동서면 동서대로 그렇게 하고. 제사는 안 지낸다, 조상들이 안 잡숫는다 하더라도 아래로는 교훈이 되고 위로는 우리의 인연 정성이 되니까 꼭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냇다 봐라, 조상님들이 잡숫지 않으니 그냥 우리도 다 치워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하는 걸 봤어야 되죠.

믿지 못하면 해결 못해

그래야 인연이 무엇인지 알고 자비가 무엇인지 알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걸 알고, 우리가 생시에 살아도 영령들하고 반반 섞여서 사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반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꿈에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들어오지만 그걸 냉대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의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반갑고 즐겁게 해 주세요. 착하게 하면은 착하게 다 돌아옵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제각기 주처는 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어느 강당에 가든지 법당에 들어오던지 항상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시고 부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줄 알아야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이 세상 만물의 부처님이 다 한 부처님이 되죠.

▲질문자3: 스님의 하해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은 주인공의 나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저희들은 항상 가설이 돼 있다는 느낌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자이지만 복받쳐 오는 그런 울음을 너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울지 않도록 관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접하고 작지만 경험했던 이야기를 도반들에게 전하고자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매해서 공급한 자재로 작업을 하면 중 자재불량으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접하고 그 자재를 납품한 회사에 어떤 문제로 작업할 수 없는지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재는 문제가 없었고 작업을 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아주 든든한 빽을 믿고 '그래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내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말고 이 자재를 정말 사용할 수 없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게 해.' 하고 정말 간절하게 관했습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자에 지었던 저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니 하루 전만 해도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재는 검사방법과 작업방법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복받쳐 오는 눈물이 나왔지만 돌아서서 저 혼자 주인공 감사해. 하고 놓았습니다. 그래, 주인공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 모두 정진 열심히 하세요. 주인공이란 즉 자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인데 보이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안되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까? 밤에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낮에는 충족시킨 그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게 없고 무서울 게 없고 그대로 영원히 세세생생을 얻기 위해서 한생을 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모두. 그래서 진짜로 믿지 못하면 구석구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야 구석구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4: 저는 제주에서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설마 나에게는 우리 학생들과 같은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자만 아닌 자만을 하면서 살아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제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이는 아주 건강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설마 했던 마음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몸에는 요즘 얘기하는 아토피성 피부라는 게 성해 가지고 밤새 잠 한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곤해지면서 가정이 원만하질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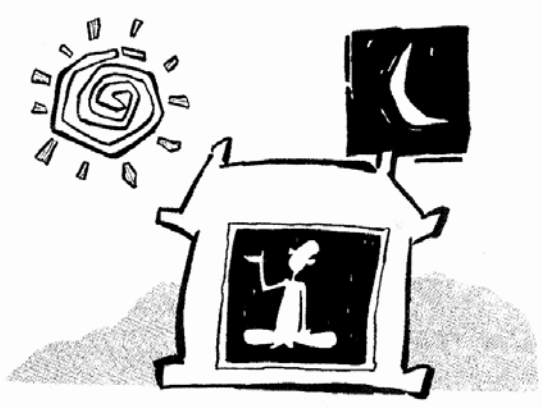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은 앉았어도 마음 게으르지 말도록

부처는 자기한테 있지 딴데 있지 않아

모습 달라도 마음 하나

그 인연으로 저는 저의 보살이 선원에 원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경삼아 따라다니던 공부가 이제는 여러 도반들의 도움과 스님의 가르침과 이끌어주심에 의해서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가 일곱 살이 되는데 올해 유치원에 가고 내년에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아직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자폐성 아동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모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아이의 인연에 의해서 스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닫혀 있는 우리 작은 놈의 마음을 열 수 있을 지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자식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촛불재를 지냈죠. 초는 한 자루를 켜도 한방을 훤히 밝히죠. 한방에 가득하게 실리죠. 그러니까 그 촛불처럼 내 마음이 자식의 마음으로 가서 불이 켜지기도 하고 또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모에게 와서 불이 켜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 시간부터이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울지 말고 사세요. 그래 여러분도 생시 때에 살면서 나라는 아만 때문에 모두 업신여기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시고 모두 나와 같이만 생각한다면 더불어 같이 살아도 죄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제 삼자를 믿나? 자기 자성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자성불이라고 한다면 또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밑에 내려 앉을까봐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평등하게 항상 같이 하기 위해서죠. 너만이 이끌 수 있고 너만이 공을 만들 수도 있고 공 마당을 만들 수 있잖아, 하고 열심히 관하세요. 그래야 공을 치죠. 그러고 둘 아니게 한다는 소리를 내가 가끔 하죠. 애비가 자식 묘지에 가면은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 묘지로 가면 부모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모래알 같은 색색가지는 어떻게 다 담당하시렵니까? 하니까 한 생각이면 되지 두 생각 가지고 하나 이랬대요. 그러면 모래알 같은 색색가지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나. 우리가 모래알이 하나가 돌아서 나가려면은 그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는 게 한 찰나 돌아가거든요. 그래 이 도리를 정말이지 꼭 믿고 자기를 꼭 믿으세요. 꼭 믿고 일거수 일투족 너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세요.. 그러고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둥글어야 되고 너와 나를 둘로 보지말고 나같이 보고 자기같이 생각하세요. 자기 같이 생각하면 뭐든지 안되는 게 없잖아요.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자기 같이만 생각해라 이거예요. 못하든 잘하든 자기같이 생각해서 둘 아니게 항상 믿고 해라 이거죠.

말이 씨 되니 삼가도록

옛날에 어느 스님이 저를 처음 삭발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네가 비구가 되든지 내가 비구니가 되든지 해야 네 머리를 깎아주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한 찰나건만, 여자 남자가 모습은 다르지만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습니까? 하고 어린 게 촐랑촐랑 말을 하니까, 한 쪽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 쪽으로는 밉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서 네가 동자가 못되면 내가 비구니가 되지 뭐 하시길래 잠깐 찰나인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추장하게 법을 청하지도 않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겼는데 가면 돈을 물고 문 닫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라는 게 돈보다도 더 중하고 말이라는 게 한마디 했으면 그 말 한마디가 금은보화를 이 세상에 갖다가 다 내던져 주는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도 그 말 한마디를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나중엔 뭐 벼락을 맞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허탑하게 살면 안되죠. 내일 잘 살려고 오늘 별의별짓 다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치가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은 더 더욱 그래요.

▲질문자5: 선원을 오가며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체험도 수없이 해 보고 맛도 봤지만 최근 저는 평소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우리는 저 구름처럼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는 진리를 몸소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본래 서울에서 30년 넘도록 살면서 서울 아니면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제주에 내려 온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 갑니다. 일찍부터 돈이 들어올 때는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겁나게 날아가는 이치에서 또다시 오뚝이 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전자에 내가 빚이 많아서 빚을 갚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는 네 번 이상이나 지나 IMF 이후 어려울 때도 오래도록 갈 거를 짧게 많이 오는구나 느끼며 그래 주인공 죽지 않게만 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6년 전 이웃에 동생 되는 인연들이 둘씩이나 생겨서 어찌나 저를 챙겨주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그 동생과 저는 일 때문에 동쪽의 우도 섬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의 친정 어머니 친정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도 섬의 이름난 갑부로 교편생활을 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가까운 친척까지도 피해를 주고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랍니다. 그 날 새벽 그 동생 꿈에 등근 해가 떠오르며 밝은 빛이 자기와 저에게로 확 비추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의 친척과 친구들을 접하며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한 집에 갔는데 그 곳에 아주머니들 칠 팔명이 모여 앉아 노시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고 마치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같이 친숙함이 느껴지더군요. 또 섬 끝까지 차로 가도 온통 낯설지가 않고 바다, 집 모든 기운들이 그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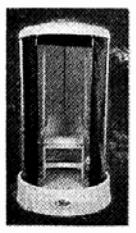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 예불에 앉아 있노라니 마치 제가 그 동생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더니 제가 78년도 신혼여행 와서 동쪽 바다를 보며 이 곳에 와서 살았으면 하던 잠시잠깐 마음이 나를 이렇게 제주에 묶어 놓았을까. 이 모두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며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한동안 오더니 그래, 평소 스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 님의 부모가 따로 없구나 하며 참회의 눈물이 마구 솟구쳐 오르더군요. 스님 제 이 감정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 감히 말씀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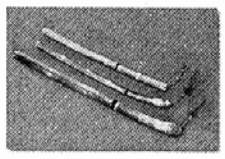
▲스님: 더불어 같이 합시다. 그래 여러분이 자식들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부모한테나 또 부모가 자식들한테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그냥 씨가 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모두 자유인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월 18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부리죽비(대) 30,000원
· 부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부리(대)부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 가격 : 20,000원 (책 포함가)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기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108 나한단주

산목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삼보죽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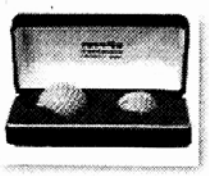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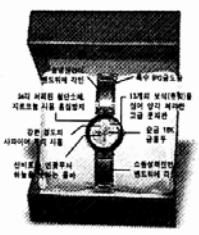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만다라 옥침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담이시계 + 수입육(10엽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등가구 (2.75kg) 150,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바구니中 (1.1kg) 60,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한과 잔치방 2호(0.9kg) 22,000원
한과 잔치방 3호(1kg) 33,000원
한과 잔치방 4호(1.5kg) 45,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재배된 찹쌀과, 깨, 콩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옥(玉) 다기세트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 330,000원

참선 명상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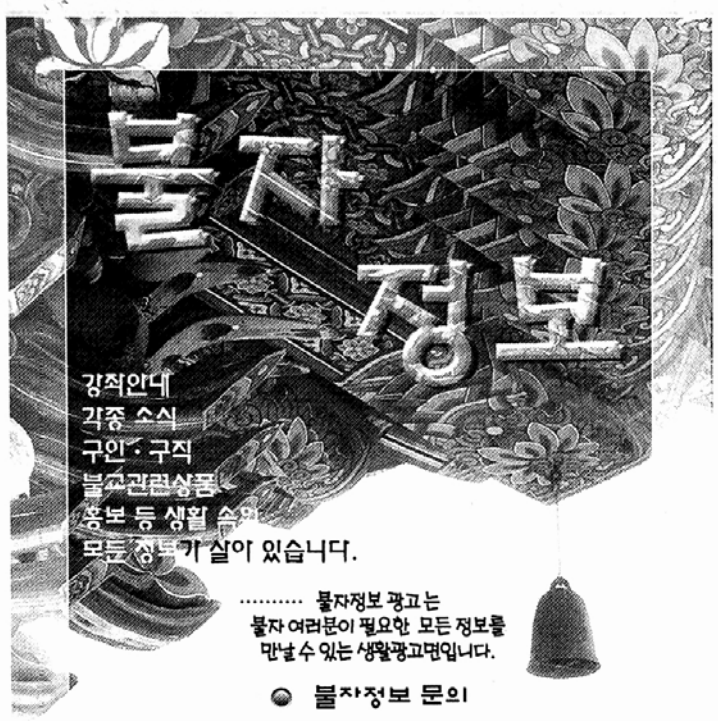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갈대 쥬스 잔 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창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대웅전 복원 불사 권선문
신라시대 절터(폐사지)석탑과 대웅전, 복원불사를 도와주시면 소승이 고이 고이 간직하던 600년된 벼락맞은 대주나물(벽조목) 염주, 담주, 도장, 차량용걸이, 핸드폰걸이 5가지를 20만원 시주 하시면 보증서와 함께 엄선하여 수가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장선원 주지 혜봉 합장
※ 생년월일, 성명, 대웅전에 새겨 영구히 보존해 드립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부처골)
주소를 알려주시면 복원 불사지 사진, 불사내역을 보내 드립니다.
011)813-3679 국민은행 615-21-0517-898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정규(주,야간반), 인터넷, 통신반 모집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선착순 3천명 누구나
□ 행자(여비스님, 남 · 녀) 모집
행자원있음 (엘리트 스님양성을 목표)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저거는 멧날 고기묵고' 저자) 직접지도, 강의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 친견법회
- 3월 2일(춘가재일) 3월 9일(열반재일)
□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 사찰다도, 사진, 컴퓨터, 불교만화, 단전호흡, 불화반, 사물놀이, 풍수지리 역학, 한국무용, 민요, 스포츠댄스
문의대구 (053) 474-8228
소문보다 거창하오니 꼭 들리시어 참배하십시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3-3004

◎ 인터넷 백화점을 분양합니다.◎
※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으신 분 ※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신 분
※ 명예 퇴직 하신 분 ※ 전업 주부님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
21세기 유통의 변화로 기존 판매 대리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직도 사업 개설 보증금 매장 임대료 관리비용 재고 부담 각종 세금 그리고 인건비로 걱정 하십니까? 인터넷 백화점을 분양 받으면서 편하게 영업만 하시면 됩니다.
분양 문의 02)516-6347 담당자 : 정인철 H.P 016)246-8410
FAX 02)3442-015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14층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전스님도 행자도 구함)
천안 종무소 :
041)584-6674~5
주지실 직통 : 041)584-6676
수행여건 좋음

기도, 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공부하며 스님이 되고자 원하시는 몇분을 모십니다
▷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 858-0134

부전스님 (비구니)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안 영락사
041) 584-6675
041) 584-6676
011) 289-1635

부전스님 구합니다
▷ 서울
02)993-3065
02)992-7064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1)486-4408
043)838-3562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구함)
055)552-4542
011)855-1116

서해 바닷가 사찰에서 거주하며 기도 할 보살 1명 구함
(55세 이하)
041)673-2333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순연사 선원
063)626-7025

제주도 (사찰및일반및민박지부지전문)
● 제주 : 사찰, 일반, 대소다량 확보 지주직거래, 투자 가치
● 신축사찰내 「암방생수사업」가능
※ 사찰 수십만 관광객 신혼부부 신도 참배(日本, 中國, 국제자유도시)
주 · 야 : 011)9089-3538
금강사 대표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남성시장 통 2층
● 평수 : 법당 13평, 방 10평 1칸 주방, 베란다 5평, 욕실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60만원 권리금 650만원
02)533-9637
011)9949-8637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두산리 ● 부지 : 300평
● 평수 : 법당 29평, 산신각 6평 요사 36평
● 교통편 : 시내버스 운행 300M 거리 (정거장에)
● 가액 : 2억 5천만원
017)743-8801

대가람사찰터
● 위치 : 충남 유구 문금리
● 면적 : 2600평(전기, 포장도로)
● 특징 : 산좋고 약수터(큰절자리)
● 가액 : 평당 30,000원
불사함께하실비구니그님모십니다.
041)565-3535
지암합장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375-7063 (창건주 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전세 :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 20평 방 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65-440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300만원
02)481-4483

사찰 안내
● 경북 산업도로 IC 1km지점
● 법당 24평 요사 24평 요사 15평 화장실 3개
● 특징 : 사찰 앞 300m까지 시내버스 운행, 130가구중 끝집, 조경완벽 ● 가액 : 9천만원
054)335-0092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특징 : 사찰 앞 300m까지 시내버스 운행, 130가구중 끝집, 조경완벽 ● 가액 : 9천만원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
● 가액 : 6억 ● 요사 : 140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절대 비밀 보장)

포교당(급)안내
● 대구 용계 전철역 출구 옆
● 동대구 IC 3분거리 4층 건물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4십만원 시설비 5백만원
● 호조건, 납골당 관심있는 분 환영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샤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답사 후 결정)시설비 3,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 근교
● 부지 : 7000평
● 법왕 : 20평 목조건물
● 요사채 : 40평 목조건물
● 특징 : 용왕당 각종시설 완비
● 가액 : 5억
043)260-6766
011)9746-676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역 앞 3층 건물
● 2층 : 차와 사주공간 커피숍 실내면적 40평 보증금 700 월 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각각 매매 가능
● 3층 : 포교당 40평 (불광사) 보증금 200 월 10만원 시설비 500만원 (절충가능)
042)256-1707
011)9079-013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산 명당
● 부지 : 1만평, 자연녹지 우거지역 등산로
● 가액 : 평당 80만원
011)241-0408

토굴 및 사찰터 안내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소재
● 대지 : 220평 ● 건평 : 30평
● 신축전통 황토한옥 2채
● 준 농림지 605평
055)545-9414
017)356-9414

토굴(급)안내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임법당1개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600만원
033)763-9737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 부지 : 242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
● 가액 : 상담 후 결정
055)391-53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2평
● 요사 : 40평
● 부지 : 450평
● 가액 : 2억 3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포교당)
● 요사 : 18평
● 가액 : 1500/30
017-2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 소재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60평 (2동)
※ 교통 및 산세 좋은 기도 정진도량 임
● 양도가 : 1억 8천만원
● 위 치 : 전남 여주시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5평 (2층)
● 요 사 : 35평 (1층)
※ 도심소재 역사깊은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1억 2천만원 (융자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근26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1억 5천
017)552-7350
055)746-7350

지리산 한옥식 황토방 토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우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밀 텃밭 ● 가액 : 1억 9천
● 임야 2583평 ● 가액 : 1천 8백만원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각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합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국유지 인법당 28평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산사 청정 도량임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 874-0194
011) 321-019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포교원(급) 안내
● 대구 남산동 106-28호 2층 48평 태흥사
● 법당시설 A급 : 개금3존동불, 1급탱화3점반야평풍1점, 대북, 범종<방2, 부엌, 화장실>
● 신중단에 고려대장경 23권 봉안
● 보증금 6백(월 40만원) 시설권리 1천5백
053)255-6628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시 세류 3동
● 부지 : 3층건물 2층 30평 (법당 방 3개 주방)
● 가액 : 전세 2,000만원
● 시설비 : 500만원(답사 후 절충)
011)480-1248/031)234-12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신선마을유학서당에서 알림
● 서당운영에 참여하실 분 모집
● 서울 2명, 부산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 조건 : 소액투자자 (2~3천만원) 현지에 사무실 가능자
서당현황 장소 : 지리산 청학동 주변(구 심곡분교) 대지 1,211평 건평 205평
011)569-5844/055)884-5840
명덕합장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찬란한 전통 불교문화 복원"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한국불교의 메카로 통하는 부산불교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불교 전통문화를 일반인과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과 모든 종파를 초월, 화합하는 불교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은 부산불교에 거는 불교계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 한해 살림을 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천태종을 비롯 모든 종단이 초종파적으로 불교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불교연합회는 1천300여개에 달하는 회원사찰수가 말해주듯 사업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

"부산지역은 단위사찰별로 활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제한 성오스님은 "각 단위사찰별로 복지법인, 사단법인 등을 만들어 부처님 자비를 펼치는 복지, 장학 사업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연합회 차원에서는 전체 행사에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연등제 · 팔관회 시민과 함께

타종교와 교류 · 화합 실천

출 · 재가를 떠나 부산불교의 힘을 모아 전통불교문화를 현재에 되살려 내고 있는 행사가 시민연등축제와 팔관회.

부처님 오신날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시민연등축제는 몇해전부터 문화행사를 가미, 시민들의 참여도를 부쩍 높였다. 전시, 공연, 복지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분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시켜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나 공연, 연등 만들기 시연등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그것이 포교로 직결된다는 것. 특히 부처님의 철저한 수행력을 되새기기 위한 부산역 광장 삼천배 철야기도는 이제 불자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팔관회는 불교의 전통행사를 발굴,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반인들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히는 행사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불교연합회는 북한에 내복 보내기 운동을 계획하고 올 부처님 오신날 행사기간부터 모금과 물품 모집을 대대적으로 벌여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오스님은 "무슨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종단간에 화합하고 출 · 재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종단간 갈등을 잠재우고 화합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한 성오스님은 이제 타종교와의 교류, 협력에 마음을 냈다. 지난해 천주교와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날 상호방문을 턴 것을 계기로 타 종교와의 화합과 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

"어떠한 일을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죽이고 전체를 돌아보는 화합에 있다"는 성오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 전체 불자들의 뜻을 모으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널리 회향하는 길을 열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후쿠덴지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2월26일 보광사에서 채토(採土)하고 있다.

日人이 통일발원 · 징용영가 추모

후쿠덴지스님, 남 · 북한 · 日 흙 섞어 도자기 제작

오구시씨, 한국식 사찰세워 희생자 유골 안치

남북한과 일본의 흙을 섞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자기 제작에 나선 일본 스님과 태평양전쟁에서 숨진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찰건립에 나선 일본 체육계 인사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다이쇼지(大成寺) 주지 후쿠덴지 다이에이(福田寺大英) 스님과 히젠지(和靜寺) 건립추진위원장인 오구시 간지(大越貫司)씨.

후쿠덴지 스님은 2월 26일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에서 채토식을 거행한뒤, 이미 확보한 북한의 흙과 원자폭탄 피폭지인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흙을 섞어 4월 하순까지 도자기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이 도자기에 영어, 불어, 한국어 등으로 남북 평화 기원' 이란 문구를 새겨넣은뒤 남북한과 미국 등 서방 7개국 정상들에게 전달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는 서한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백제불교와 문물을 전해준 한국을 위해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 1월 보광사의 장기수 묘역을 둘러본뒤 도자기 제작을 결심했다"는게 스님의 설명이다.

히젠지 건립을 추진중인 오구시 간지 씨는 일본 프로야구단인 주니치 드래곤스 구단주를 역임했던 일본 스포츠계의 인사.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억울하게 숨진 한국인들의 유골과 영가를 안치할 히젠지를 3월부터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에 건립키로 하고 7천만엔을 들여 3천평의 대지까지 확보한 상태다.

김재경 기자



◇2월27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영령 환국봉안 노재.

한인 원혼들 59년만에 환국

법연사 136위 위패 봉안

일제 강제징용 장생탄광 수몰희생자 136위 영령 천도재 및 환국봉안 노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조연스님)는 2월 27일 부산역 광장에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의 장생탄광에서 채석 작업중 바닷물이 갱도에 유입되는 사고를 당해 익사한 한국인 노역자 136명에 대한 환국봉안 노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각사 주지 흥교스님,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법연사 회주 조연스님,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최고의원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이 동참 환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59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136위 영가 위패는 이날 경주 법연사로 옮겨져 극락전에 봉안됐다.

부산=천미희기자

운흥사 임진왜란 승병 위령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와룡산 운흥사는 2일 임진왜란 때 화두 대신 검을 들고 나라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병(僧兵)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올해로 270회를 맞는 이 법회는 돌아가신 마을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운흥사는 성악 전공인 정을 스님과 판소리꾼 최진숙씨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아울러 열었다. 김재경 기자

"범종소리 퍼져 세상 맑게"

은하사 신어범종 이운식

김해 신어산 은하사(주지 대성)에서는 2월 23일 동김해 IC에서 은하사까지 신어범종 이운식을 봉행했다.

대성스님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이운식은 전통기법으로 조성된 12톤의 범종을 은하사 종각까지 이운하는 의식.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은 "웅장하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밝고 맑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이 3m50cm의 통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해 웅장미를 더하는 범종각에 모셔진 범종 타종식은 4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된다.

김해=천미희 기자

영주 中高 종교편향 방치

교육청 간부 2명 고발

영주 · 봉화실천승려회(회장 도기)는 2월21일 영주교육청 교육장과 학무과장이 관내 6개 사립중 · 고교의 종교편향적 교육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천승려회는 고발장에서 "영주지역 6개 사립 중 · 고교에서 재학생들을 강제적으로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여케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데 대해 영주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주교육청은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공문 발송에만 그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대둔사에 선원 건립

제22교구 본사 대둔사(주지 보선)는 올 상반기 중 사찰내 대광명전 근처 광장에 단층한옥 형태로 65평 규모의 선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둔사는 건립비 7억2천만원중 3억원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4억2천만원을 해남군과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다.

월정사 장학금 전달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2월 16, 19일 두 차례에 걸쳐 평창관내 초 · 중 · 고교생 11명에게 모두 1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정사는 지난 91년부터 관내의 소년 · 소녀가장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97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해 왔다.

태고종

장애인 전문법당 건립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서울 신내동에 장애인 포교활성화를 위한 40평규모의 장애인 전문법당을 건립한다.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장애인법당은 박영걸거사(한불청 이사)가 부동산 240평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한국불교청년회는 1일 달마선원에서 제 82주년 3 · 1절 및 마음의전화 개통 6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모범청소년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각종

진각복지재단 3돌 법회

진각복지재단은 2월 23일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설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장기 근속직원에 대한 포상 및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패 전달, 어린이집 교사대표들의 축하공연, 사회복지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총화종

수중릉서 수륙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29일 오후 1시 경주 문무왕 수중릉에서 영산수륙재를 개최한다.

이번 수륙재는 총화종 종단차원의 행사로 전국의 종도 7천~1만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원효종

애국지사 55인 위패 봉안

금수사(주지 법홍)는 1일 82주년 3 · 1절을 기념하여 한용운 스님 등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과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등 순국선열 22인의 위패를 호국영각에 봉안했다. 이날 위패 봉안식은 법홍스님과 한국전쟁때 금수사로 피난온 초대 부통령 이시형 박사와의 인연으로 이루어 진 것.

법홍스님은 "이시형 박사가 애국지사의 위패를 모셔달라고 부탁한지 48년만에 약속을 지키게 기쁘다"며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불교조계종

제4대 종정 취임식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서의륜)은 2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보문산 그린타워 대연회장에서 제4세 종정 이 · 취임식 및 나라안정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제4세 종정에는 혜명스님<사진>이 추대됐다. (02)831-3888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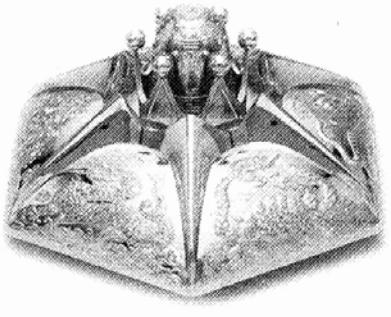
氣 란 현실이다.
음, 양 조화가 맞져야 합니다.
※ 좋은 氣가 강해야 강자가 될 수있고,
氣가 약하면 무능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는 것입니다.
※氣란 강, 약, 이 꼭 필요합니다.
강, 약, 이 맞지 않는 기(氣)는 가정에 무능과, 충돌과 불화가 자주 일어 납니다.
※ 육氣방은 중심의 氣로서 가정에 氣의 강, 약, (바란스)을 조절해 주고 청명한 정기(正氣)를 발산하여 좋은 氣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요.



◆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고서를 인용하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雀)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기(氣)란 : 현실이다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 당 육지(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

비금도 서산사와 소쩍새 마을 시금치·소금 인연 7년



섬마을 신도들 십시일반 후원

"오실 때가 됐는데…" 강원도 원주 소쩍새 마을 식구들은 요즘 한 스님을 손꼽아 기다린다. 스님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승합차에 시금치를 가득 싣고 오곤 했었다. 그 시금치가 어찌나 맛있던지….

시금치로 맺은 인연. 그 인연 속에는 넉넉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이나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따스함이 스며있다.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산사 주지 근원스님과 소쩍새마을 식구들과의 만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5년 우연히 소쩍새마을에 가게 된 근원스님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곳 장애인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스님으로서는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절에 돌아와서 신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의 신도들 역시 소쩍새마을을 후원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재배하는 시금치라도 후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곳 시금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최상품.

그러나 운송이 문제였다. 목포에서도 뱃길로 3시간 이상을 가야하는 작은 섬 비금도에서 소쩍새마을까지 시금치를 배달해줄 방법이 난감했다. 이때 스님이 나섰다. "이렇게 마음을 냈으니 어떻게든 실천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며칠 후 스님은 신도들이 모아 준 시금치 20Kg들이 40여 박스를 실은 승합차를 배에 싣고 소쩍새마을로 향했다. 목포에 내려서 혼자 운전하며 10시간 이상을 달린 끝에 소쩍새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시금치 박스를 내려놓자마자 차 한 잔 얻어 마시고는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다.

교회가 20여 개나 되는 비금도에서 서산사는 이곳의 단 하나뿐인 사찰. 신도수래야 50여 세대에 150여명 안팎에 지나지 않지만 18년 전에 이곳에 온 근원스님과 신도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시금치를 전달지 4개월쯤 뒤. 스님과 신도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도 소쩍새마을에 보내자고 마음을 모았다. 비금도는 전국 수요량의 20분의 1을 생산해내는 천일염 생산지. 8월 어느날 근원스님은 50Kg들이 소금 30여 박스를 싣고 다시 소쩍새마을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서산사 신도들의 마음과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일년에 꼭 두 번 만나게 됐다.

"한해 두해 하다보니 벌써 7년이 됐네요.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소중한 인연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있다고 돕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도울 수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신도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지요."

근원스님과 신도들은 올해도 이달 10일경 시금치를 소쩍새마을에 전해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날씨가 추웠던 탓에 예년에 비해 수확이 좀 늦어졌지만 시금치를 맛있게 먹는 소쩍새마을 식구들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면 천리길도 가깝게만 느껴진다. (061)275-4893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나눔의 집은 지난 1일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및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 앞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나눔의 집 '봄기운'

자체감사 등 정상화 방안 수립

'후원회 모임' 추진도

나눔의 집이 1일 오후 3·1운동 82주년 기념식을 갖는 등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법인다운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후원자들도 후원회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혜진스님 사건을 계기로 나눔의 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복지법인 나눔의 집 법인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이남재씨는 "그동안 마비됐던 행정업무와 역사관 관람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국장은 또 "현재 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고, 제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명유실했던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복지문제까지 개선하는 등 법인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이사회에 건의할 생각이며 나눔의 집 원장도 이때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으로 떠도는 혜진스님의 공금 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문제가 됐던 회계상의 미숙한 행정처리는 광주군청의 지시에 따라 이미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나눔의 집 후원회원들은 2월28일 모임을 갖고 나눔의 집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인만큼 이번 일로 인해 더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으고 '나눔의 집과 함께 하는 후원자 모임'을 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청년불자, 봉사 "관심" - 교육 "불만족"

재가연대, 조계사 청년회 의식조사

청년 불자들은 봉사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찰 청년회는 법회와 불교강좌를 통해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돼,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2월 27일 발표한 '조계사청년회 회원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은 교계 활동에 대해서는 불교시민사회활동(25.2%)과 청년회 교류활동(19.1%) 포교활동(17.9%) 등을, 교계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애호활동(26.7%), 환경운동(22.6%) 지역 시민사회활동(18.6%)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의 청년회 가입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법회에 참가하여 입문(41.9%)하거나 청년회 교육에 참가하여 입문(22.9%)했다는 응답자가 많아 회원 수급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서활동에 대해서는 20.2%가, 회원교육에 대해서는 29.7%가 불만족을 나타내 신행및 회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하고 싶은 강좌를 2개씩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경전교육(20.9%), 문화교육(19.3%), 교리교육(16.3%), 시민사회활동론(1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불자들은 이밖에 '청년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 자비(29.6%), 지혜(21.8%), 나눔과 화합(각 19.5%) 등을 제시했다. '조계종'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들로는 전통(32.9%) 참선(21.0%) 무소유(10.2%) 등을, 부정적인 것들로는 폭력(28.1%) 불화(17.5%) 구태의연(14.8%) 부정부패(14.3%)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계사청년회 전준호 회장은 "회원들이 각종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교리·경전 및 실용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한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시민사회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청년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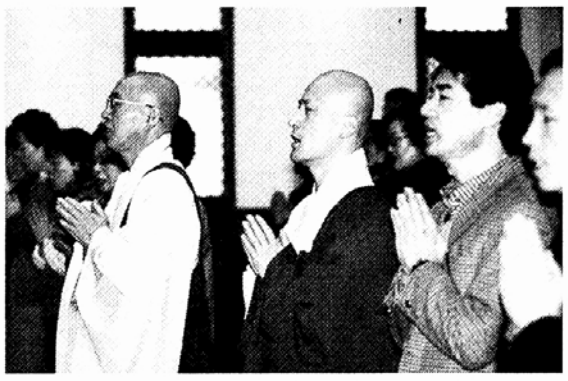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는 모집단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106명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 ±7%의 오차범위를 나타냈다. 김재경 기자

실상사 귀농학교 '농업지킴이' 모집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모태로 하는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교장 도법스님)는 농업 생명지킴이가 될 6기 학생을 모집한다.

귀농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초강좌, 전문강좌, 농촌생활강좌, 시청각교육, 현장학습교육, 마음 나누기 등이며, 교육기간은 3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지원자는 전국 귀농운동본부 주최의 기초이론 교육 수료자 중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며, 교육비는 3개월에 50만원. (063)636-3776 김재경 기자



◇정토회는 3월1일 1000일 정진 1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쉼없이 이어진 통일기도

정토회 1000일 정진 1년

목탁을 치며 자신이 맡은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응답하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진, 다음 기도자가 목탁을 치며 염불할 때까지 그 소리가 이어지면 자신이 하던 기도를 마친다. 통일운동과 수행이 하나된 기도는 그런 식으로 365일을 쉼없이 이어져 왔다.

하루 평균 28명이 릴레이 철야정진, 연인원 1만220명이 동참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이 시작된지 1년이 되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1000일 정진' 1주년을 맞아 3월 1일 서울 정토법당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1절 기념식, 법륜스님의 1주년 기념법문, 유애경씨의 수행담 발표(통일의 원력으로 지낸 1년을 돌아보며), 포상(개근상, 정진상, 통일돼지상) 등으로 진행됐다.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업보고를 통해 주 1회 기도에 참가한 신도들은 평균 80명, 청년불자는 40명, 월1회 이상 참가자는 179명(2팀), 부부 동참자는 7쌍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니룻다회 김해영 보살과 청년정토회 권윤정 불자는 매일 기도에 동참했으며, 부산에서 온 일진행(65) 보살은 21일간 기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히말라야 지산암 "한국불자 인등불사 동참 기다립니다"

한 스님이 히말라야에 암자를 마련하고 현지 포교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산스님은 네팔 히말라야 산중에 지산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과 포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산암이 있는 곳은 화엄경 약찬게에 나오는 용수보살이 수행한 곳. 지산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지산암 인등불사에 참여해 수승한 인연을 쌓기를 바라고 있다.

지산암 인등불사 동참구좌는 NEPAL GRINDLAYS BANK LIMITED 102-0514136-251(예금주 EUNG LIP LEE)이며, 일인당 한등 월 5천원이다. 우편주소는 P.O BOX 4930 KATHMANDU NEPAL. 한명우 기자

■ 도와주세요

백혈병 10살 어린이



김은진(10) 어린이가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99년 7월. 은진이네는 은진이가 투병을 시작한 지난 1년반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 오면서 남아난 것 하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빠 종서군(15)의 골수를 이식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하지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하루하루를 어렵게 견뎌오고 있는 은진이네로서는 7천만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도움주실 분은 생명나눔실천회(02-734-8050)로 연락하거나, 은행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 생활의 지혜 ·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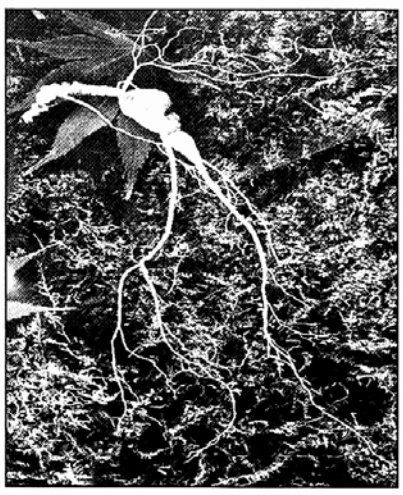
■ 문 의 :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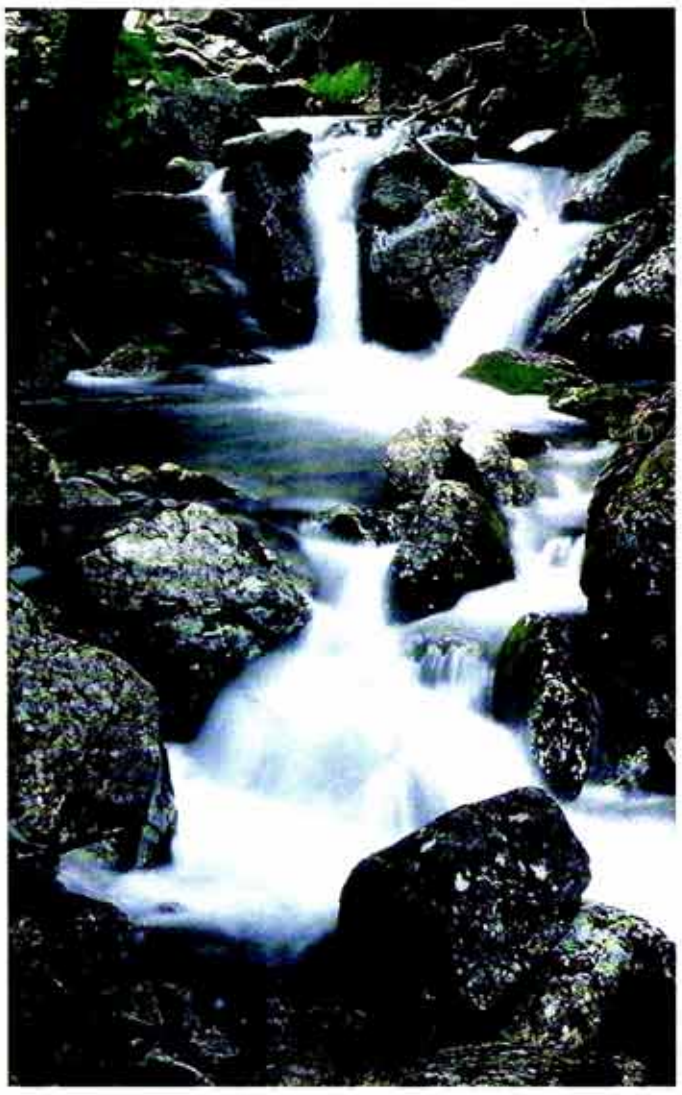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세속의 때 씻어주는 정화수

감성으로 보는 절

<4> 도피안에 이르는 길 - 내(川)

절에 갈 때 나는 차 안에서 주로 차창 밖을 내다보며 간다. 창 밖에 주마등(참 멋진 등인데!)처럼 스쳐 지나가는 먼, 그리고 가까운 풍광은 언제나 싫증나지 않는 명화 같은, 뿌듯한 감동을 준다. 생물과 무생물을 따로 나누지 않는 나는, 창 밖의 삼라만상이 모두 나에게 무언의 말을 넌지시 건네고 있는 것에 놀란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한 시간, 두 시간, 아니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마음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감동에 차 있고, 내 감성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감았던 눈을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뜰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차 안의 사람들은 대개 책을 보거나(아, 고상한 분들!) 꿀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면서 지루함(지루해?)을 메우는 것이 상례다. 글쎄, 절을 가든, 산을 가든, 내(川)를 가든, 어쨌든 모처럼 자연과 벗하러 하루를 나선 건데, 차 안을 독서실이나 침실 또는 휴게실로 착각하는 건, 아무래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닐까? 꼭 산 속에 들어가야만 자연이고, 불상 앞에 앉아야만 절에 왔다는, 그 막힌 사고구조가 우리의 삶을 경직되게 하고 답답해지게 하는 것 아닐까?

절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 세계로 이끌어 주고, 산은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으로 가는 길은 멀다. 산으로 가기 위해선 세속의 때를 먼저 씻어내야 한다. 산에 가서 씻어내려고 해선 이미 늦는다. 예전엔 치성을 드릴 때 적어도 삼 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았던가? 요즘 세상이 복잡한 것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 싫다고 하지만, 적어도 절이나 자연에 몸 맡기러 가는 때만큼은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 마음이 차 안에 머물러 있어선 세속의 때를 씻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 차는 세속을 벗어나는 통과의례니까, 창 밖에 청량수가 있는 것을!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런 감동을 받지 않고 차 안에 마음을 잔뜩 매어두었다가 목적지에 다다라서야 눈 비비며 내리니까 눈 앞은 안개만이 자욱할 수밖에. 그리고 사진은 겉만 훑어 나가는 빈탕이 되고 만다. 사진? 예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예술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 나라는 산과 내(川)가 많은 나라다. 그래서 풍수가 발달

졸졸졸 굽이도는 냇물에

마음 씻고 부처님 세계로

되었고, 산천(山川)은 때 놓고 말할 수 없는 남말이 되었다. 산과 내-. 아, 산과 내가 어울린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감동이 아닐까? 사람들은 내만 보면 애가 된다. 물이 모태의 근원이 돼서 그럴까? 그러서인지, 내만 보면 뛰어들고 싶어진다. 뭇 사람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문화의 세뇌(사회화라 하는가?)를 받아서 그렇지, 다들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내로 뛰어들어가 텀벙거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릴 때 얼마나 그렇게 하고 놀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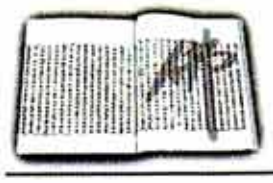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가 다 멀여서 없어지고 아스팔트 길이 되어 버렸다. 남아 있는 곳이 오직 산천을 함께 하고 있는 산사일 뿐이다. 산 따라 길 따라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졸졸졸, 때론 콰- 콰- 돌에 부딪치고, 물결 굽이치며 흐르는 냇물은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준다. 시원해? 뭐가 시원할까? 몸이 시원해? 아니, 마음이 시원하다. 왜 그럴까? 세상의 온갖 때가 다 씻겨내려가기 때문이다. 월천공덕이라고 한다. 내를 건너는 것이 왜 공덕이 될까? 세상의 때를 벗어야 바라밀에 이르는 것이니까. 물은 정화와 도피안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물은 핵심적 상징이 된다. 절은 들어가면서부터 내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준다. 그러기에 공덕이 된다. 냇물과 그 소리에 마음을 홍건히 씻고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내(川)는 길게 그리고 맑은, 정업의 진언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곳에 발만 담가야, 발이나 제대로 씻겨지나? 발은 이미 아침마다 깨끗이 씻고 와서 더 씻을 것도 없다. 마음은 여기서밖에 씻을 곳이 없는데, 마음은 씻을 줄 모르고 애꿎은 얼굴에 물을 추기고, 발을 담가서 뭘 할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만 멀뚱해 질 수밖에.

스님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오대산을 어디로 가지요. 곧장 가시오. 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곧장 가지. 절이 뭐냐고? 묻입세.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운허스님 옮긴 '법화경' 인기

법구경 · 장아함경 · 선문염송도 애독서

불자들이 즐겨찾는 경전

한글대장경 가운데 불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은 어떤 것들일까.

1964년 7월 역경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펴낸 〈장아함경〉이 빼놓을 수 없는 애독 경전이다. 부처님 재세시의 가르침은 물론 행적들까지 상세히 담은 〈장아함경〉은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전. 〈장아함경〉의 출간으로 불자들의 초기불교(원시불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으며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났다.

부처님의 전생담과 재세시의 행적들을 담은 경전들도 단연 인기 경전이다. 모두 5권으로 구성된 〈본생경〉과 2권으로 간행된 〈불본행집경〉이 대표적 경전이다. 이들 경전은 불자들에게 두루 읽히기도 했지만 자칫 신격화되거나 기복의 절대적 대상으로 오해 될 수도 있는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 주었다는데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본생경〉의 경우 팔리어장경을 곧바로 한글로 번역 한 것이어서 더욱 친밀감 있는 내용에 독자들이 매료되고 있다.

'많이 알려진 것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는 경전에도 적용된다. 〈법구경〉과 〈화엄경〉, 〈법화경〉에 대한 불자들의 애독은 대중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 〈법구경〉은 짧은 시구절에 담긴 번득이는 삶의 지혜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 때문에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단행본도 다양하게 나왔다. 〈법화경〉의 경우는 초대역경원장 운허스님이 친히 번역을 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며 〈화엄경〉 60권본, 80권본, 40권본에도 운허스님의 손길이 닿아 '최고의 번역'으로 꼽힌다.

법정스님이 〈화엄경〉을 축약해 펴낸 단행본 신역〈화엄경〉도 인기를 모았다.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동국역경원이 추가로 번역해 편찬한 한국찬술 가운데서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를 비롯한 저작들과 〈선문염송〉 〈초의집〉 등이 상당한 애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한글 대장경에는 한국찬술 논저 100여종이 포함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단순한 한역의 한글화 권찬 차원을 넘어 신행을 이끌고 학자들의 연구 범위를 넓혀주는 등 불교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전산화와 인터넷상의 제공은 물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들의 단행본 발간 작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추천사

진리의 삶 사는 지름길



김용림 탤런트

저는 불교방송국의 개국 때부터 13년째 '신행 365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자혜롭게 사는 길을 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가를 느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사는 사람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동국 역경원이 36년의 세월을 다듬어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그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글대장경을 소장하고 사찰에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찰마다 가정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을 구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6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7.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5. 정보커뮤니티 ⇨ 5. 인터넷채널
⇨ 8. 종교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7. 정보광장 ⇨ 5. 생활/건강/법률 ⇨ 불교정보
· 016, 018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
11.magic ⓐ시작 ⇨ 8. 정보와 생활
⇨ 4. 생활과 문화 ⇨ 2. 종교 ⇨ 불교세상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